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군주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에네아스 이야기』

- 전쟁과 사랑을 중심으로

Discours du prince dans le *Roman d'Énéas*

- Une étude sur les thèmes de la guerre et de l'amour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문학전공

오 수 환

군주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에네아스 이야기』

- 전쟁과 사랑을 중심으로

Discours du prince dans le *Roman d'Énéas*

- Une étude sur les thèmes de la guerre et de l'amour

지도교수 김 정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문학 전공

오 수 환

오수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8 월

위 원 장 _____ 신 은 영 (인)

부위원장 _____ 김 정 희 (인)

위 원 _____ 김 준 현 (인)

국문초록

『에네아스 이야기』는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중세 불어로 번역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의 번역이란 일종의 재창작의 과정으로서, 중세 작품은 원작을 다시 쓰면서 고대 로마와 12세기 중세 사이의 간극을 반영한다. 이 연구는 그 간극을 설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에네아스가 트로이 재건에 성공하는 과정을 재구성하여 원작과 구분되는 에네아스의 독특한 모습을 밝히고, 작품을 당대의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네아스가 작품에서 군주의 위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트로이 왕가의 방계 혈족이자 유민(遺民)들의 지도자로서, 그는 도시를 재건하고 로마의 시조(始祖)가 된다. 하지만 같은 군주라 하더라도 중세의 에네아스는 현명함과 지략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는 신들과 운명, 아버지에 대한 경건함 *pietas*이나 장수로서의 무위(武威)가 아니라 전략과 전술, 속임수와 언변을 통해 도시 재건에 성공한다. 에네아스의 능력은 ‘기술 art’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때 전쟁과 사랑은 그의 기술이 분명하게 펼쳐지는 장이 된다. 에네아스는 전쟁의 기술을 통해 경쟁자 튀르누스를 제압하고, 사랑의 기술을 통해 로랑트 땅의 상속녀 라빈의 마음을 얻는다.

제1장은 트로이 전쟁과 로랑트 전쟁을 중심으로 에네아스의 전쟁의 기술을 분석한다. 트로이의 참상을 목격하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뛰어들었던 윈작과 달리 중세 작품에서 에네아스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전사들을 대피시키고, 이후 군주들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보물을 챙겨 도시를 빠져나간다. 디도가 트로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청했을 때에도, 그는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그 배신’을 파리스의 불륜이 아니라 메넬로스와 윌리스의 속임수, 트로이 목마로 재해석하며 전쟁의 성격을 다시 쓴다. 또한 그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다듬으면서 자신이 도시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축소하고, 용맹하게 싸웠으나 신들의 명령에 따라 후퇴한 기사, 조상의 땅을 찾아가는 귀환자로 스스로를 내세운다.

빠르고 정확한 상황판단, 부(富)의 확보, 말솜씨 등 트로이 전쟁에서 암시된 전쟁의 기술은 로랑트 전쟁에서 몽토방 성, 트로이 막사, 연설들이라는 보다

정제된 형태로 발전한다. 로랑트에 도착한 에네아스는 지형지물을 활용하고 성을 세밀하게 설계하면서, 원작에서 도랑과 방벽, 둔덕으로 그쳤던 방어 시설을 강력한 요새로 탈바꿈한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며 전쟁의 동향을 파악하고 식량을 비축하고 방비를 강화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수성전을 고수한다. 그의 대리자들은 그가 원군을 요청하는 동안 전사들을 지휘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한다. 이 모든 과정은 원작은 물론 다른 중세 작품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쟁 묘사로서, 힘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에네아스의 변화된 면모를 강조한다.

수성전에 성공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에네아스는 로랑트 도시를 포위한다. 하지만 튀르누스에 반기를 든 도시의 유력자들이 동맹과 함께 휴전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막사를 세운다. 에네아스는 방어 능력도 없이 화려하고 장엄하기만 한 막사를 마치 잘 방비된 성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루 만에 지어진 성채의 위엄에 로랑트 인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화평을 맺지 않는 왕을 비난한다. 이때 에네아스는 한껏 치장한 트로이 무리를 이끌고 도시 앞을 행렬함으로써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이를 본 로랑트 인들은 감탄하며 이제 트로이 인들을 칭송하기에 이른다. 그는 휴전과 막사 건설, 평화로운 행렬을 탁월한 공격 행위로 만드는 책략을 구사한다.

에네아스는 자신의 명분을 세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튀르누스는 그가 자신의 약혼녀를 빼앗으려 한다면 에네아스를 파리스와 동일시하고 전쟁을 정당화한다. 이에 에네아스는 트로이 전쟁과 마찬가지로 로랑트 전쟁 역시 타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범하는 부당한 전쟁이라고 재규정하고 그 근거로 귀환의 테마를 내세운다. 그는 세 차례의 연설들에서, 이 땅에 온 것이 자신들의 땅으로 귀환한 것이며, 신들의 의지, 조상과 선대의 소유권, 현 통치자인 라티누스 왕의 승인에 따라 자신이 로랑트 땅의 권리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통해 로랑트의 온 가신과 유력자들의 인정을 받으며 왕위에 오르고, 도시 간의 완벽한 결합을 이끌어낸다.

1장이 에네아스가 전쟁의 승리로 영토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2장은 그가 통치권 획득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지속하는 과정, 나아가 라빈의 마음을 얻어 통치권을 공고하게 만드는 과정을 추적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디도와 사랑은 정욕에 사로잡힌 부정한 욕망으로, 라빈과의 사랑은 작품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 구현된 장소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작품을 정치의 관점에서 읽었을 때, 둘의 구분은 통치권 획득의 사명

과 어떻게 조화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디도는 건설에 힘쓰고 전쟁에 승리하며 현명하게 도시를 다스렸음에도 사랑에 빠져 통치의 끈을 놓았다. 강력하고 풍요로웠던 도시 카르타고는 적들에 짓밟혀 황폐화되었다. 디도의 에피소드는 사랑에 빠진 군주가 어떻게 도시를 파국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디도와 사랑 때문에 자신의 통치권을 포기할 뻔하였던 에네아스도 마찬가지로서, 그는 신들의 경고와 저승에서 아버지의 계시를 받고 나서야 통치권 획득의 사명에 투신한다.

라빈의 에피소드에서 에네아스는 전쟁, 변증, 항해라는 세 가지 사랑의 형태로 사랑과 통치의 양립을 꾀한다. 먼저 그는 상대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랑의 전쟁을 벌인다. 감정을 숨기고 간접적으로만 드러내는 그의 방식은 상대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고백하고 그에게 종속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중세 문학에서 사랑의 문법을 형성하였던 핀 아모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핀 아모르에서는 귀부인이 지배자로 군림하고, 남성이 귀부인을 숭배하며 사랑의 봉사를 바치는 형태를 띠었다. 『에네아스 이야기』에서는 이 관계가 전복되어 이제 군주 에네아스가 귀부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라빈이 그의 호의를 요청하는 처지가 된다.

물론 에네아스에게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는 라빈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두고 이성의 자아와 사랑의 자아 간의 거둬들인 분열과 싸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때의 싸움은 서로를 반박하고 논리를 쌓아나가는 변증의 형식을 띠는 것으로, 그는 광기에 빠지는 일 없이 보다 지성적인 방식으로 사랑에 접근하고, 사랑의 자아가 승리하면서 도출되는 행동 역시 감정의 간접적인 표현에 그친다. 에네아스는 사랑을 포기하고 전쟁에 집중하라는 이성의 자아에 맞서, 이후 문학에서 ‘궁정적 사랑’으로 발전할 용맹과 사랑의 상승 관계를 주장하며 사랑의 추구를 정당화하지만, 사랑을 그 자체로 좇기보다는 사랑이 부여해준 용맹을 통해 전쟁에 집중하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 라빈을 얻고자 한다.

라빈에게 이러한 태도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 사랑의 지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행동들로 비추어졌다. 이에 에네아스는 마지막 독백에서 스스로의 정당화를 꾀한다. 사랑은 싸움과 분노를 거친 후에야 더욱 단단하고 감미로워지므로 자신의 행동이 사랑에 유익할 수 있으며, 사랑은 전쟁을 오래 지속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이 사과하면 상대는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을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일에 비유한다.

작품에서 폭풍우 치는 바다는 모든 것을 금세 뒤바꾸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싸움과 분노로 사랑을 성장시킨다는 그의 기술은 항해의 비유를 거쳐 운명만큼이나 쉽게 변하는 사랑의 변심을 극복하는 기술이 된다. 이는 사랑의 전쟁의 승리를 마무리하는 또 하나의 변증이었다.

이처럼 전쟁과 사랑을 기술적으로 지배하는 에네아스의 군주상은, 작품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헨리 2세의 궁정이라는 정치적 배경과 연관 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헨리 2세와 에네아스는 여러 지점에서 동일시될 수 있는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헨리 2세는 노련하게 전쟁을 치르고 만인의 인정 속에서 왕이 된 에네아스의 이미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사랑에 있어서도, 라빈과의 결혼을 강조하기보다 핀 아모르를 전복하면서 에네아스가 라빈을 정복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 작품의 묘사는, 헨리 2세가 왕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알리에노르 다키텐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헨리 2세의 부인 알리에노르는 핀 아모르를 북프랑스와 잉글랜드에 전파한 인물이자, 거대한 영토를 상속 영지로 가지고 있어 라빈과 동일시되는 여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에네아스 이야기』는 헨리 2세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군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세우는 정치적 작업으로 해석 가능하다.

주요어 : 군주론, 전쟁의 기술, 사랑의 기술, 정치, 다시쓰기

학 번 : 2013-22763

목 차

서 론	1
1. 전쟁의 기술	9
1.1. 아스카니위스의 사슴 사냥과 전쟁의 주제	9
1.2. 트로이아 전쟁	13
1.3. 로랑트 전쟁	27
1.3.1. 몽토방	27
1.3.2. 트로이아 막사	36
1.3.3. 연설들	45
2. 사랑의 기술	59
2.1. 저승 방문과 사랑의 주제	59
2.2. 디도	64
2.3. 라빈	75
2.3.1. 사랑의 전쟁	75
2.3.2. 사랑의 변증	89
2.3.3. 사랑의 항해	99
결 론	108
부 록	112
참고문헌	118
Résumé	121

일러두기

1. 본문에서 아래 작품명이 다시 언급될 경우 다음과 같이 줄인다.

『브뤼트 이야기 *Roman de Brut*』 : 『브뤼트』

『에네아스 이야기 *Roman d'Énéas*』 : 『에네아스』

『테바이 이야기 *Roman de Thèbes*』 : 『테바이』

『트로이아 이야기 *Roman de Troie*』 : 『트로이아』

2. 자주 인용되는 논문과 연구서는 재인용시 '*op. cit.*'이 아니라 제목 혹은 제목의 약자(略字)로 표기한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에 기재한다.

CORMIER, Raymond Jean, *One Heart One Mind : The Rebirth of Virgil's Hero in Medieval French Romance : One Heart One Mind...*

CROIZY-NAQUET, Catherine,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dans *Le Roman d'Énéas* (vv. 7281-7352)" :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HUCHET, Jean-Charles, *Le Roman médiéval : Le Roman médiéval*

LOGIÉ, Philippe, *L'Énéas, une traduction au risque de l'invention : L'Énéas, une traduction...*

MARCHELLO-NIZIA, Christiane, "De l'*Énéide* à l'*Eneas*, les attributs du fondateur" : "De l'*Énéide* à l'*Eneas*..."

MORA-LEBRUN, Francine, *L'"Énéide" médiévale et la naissance du roman : L'"Énéide" médiévale...*

PETIT, Aimé, *Naissances du roman : Les Techniques littéraires dans les romans antiques du XIIe siècle : Naissances du roman...*

PETIT, Aimé, "Le thème de l'amour dans le *Roman d'Énéas*" : "Le thème de l'amour..."

POIRION, Daniel, "De l'*Énéide* à l'*Énéas* - mythologie et moralisation" :

"De l'Enéide à l'Enéas..."

POSSAMAÏ, Marylène et WOLF, Romaine, *Le Roman d'Énéas : Le Roman d'Énéas*

ROUSSE, Michel, "Le Pouvoir, la prouesse et l'amour dans l'Enéas" : "Le Pouvoir, la prouesse..."

ZINK, Michel, "Un Nouvel art d'aimer" : "Un Nouvel art..."

3. 고유명사의 표기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인용할 경우 고전 라틴어 발음을, 중세 소설 『에네아스 이야기』를 인용할 경우 중세 불어의 발음을 따랐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중세 불어의 발음이 지나치게 낯선 지명의 경우 예외적으로 라틴어 발음을 따랐다.

롬므 Rome : 로마

리브 Libe : 리비아

이탈르/이태르 Itaille/Itaire : 이탈리아

카르타주 Cartage : 카르타고

트루에 Troie : 트로이아

3.1. 주요 인물

라틴어	중세 불어	현대 불어
데이포부스 Deiphobus	데이페뷔스 Deyphebus	데이포브 Déiphobe
디도 Dido	디도 Dido	디동 Didon
라비니아 Lavinia	라빈 Lavine	라빈 Lavine
라티누스 Latinus	라티누스 Latinus	라티누스 Latinus
레무스 Remus	레뮈스 Remus	레뮈스 Rémus
로물루스 Romulus	로뮈뤼스 Romulus	로뮈뤼스 Romulus
메넬라우스 Menelaus	메넬로스 Menelaus	메넬라스 Ménélas
시빌라 Sibylla	시빌라 Sibilla/Sibille/Sebilla/Sebille	시뵐 Sibylle
시논 Sinon	시농 Sinon/Synon	시농 Sinon
아이네아스 Aeneas	에네아스 Eneas	에네 Énée

아스카니우스 Ascanius	아스카니우스 Ascanius	아스칸 Ascagne
안나 Anna	안나 Anna	안나 Anna
앙키세스 Anchises	안퀴세스 Anchisés	앙쉬즈 Anchise
에우안테르 Euander	외앙테르 Euander	에방드르 Évandre
울릭세스 Ulixes(오뒷세우스)	윌릭세스 Ulixés	윌리스 Ulysse
일리오네우스 Ilioneus	일리오네스 Ilionés	일리오네 Ilionée
카밀라 Camilla	카밀 Camile	카미유 Camille
투르누스 Turnus	튀르누스 Turnus	튀르누스 Turnus
파리스 Paris	파리스 Paris	파리스 Pâris
팔라스 Pallas	팔라스 Pallas	팔라스 Pallas
프리아무스 Priamus	프리아무스 Priamus	프리암 Priam
헬레나 Helena	엘루엔 Heloïne	엘렌 Hélène

3.2. 주요 신

라틴어	중세 불어	현대 불어
마르스 Mars	마르스 Mars	마르스 Mars
베누스 Venus	베누스 Venus	베누스 Vénus
볼카누스 Volcanus	뵐캉 Vulcan	뵐캉 Vulcain
유노 Iuno	쥐노 Juno	쥐농 Junon
쿠피도 Cupido	아모르 Amors	퀴피동 Cupidon
팔라스 Pallas(아테나)	팔라스 Pallas	팔라스 Pallas
헤르쿨레스 Hercules	에르켈레스 Herculés	에르켈 Hercule

3.3. 주요 지명

라틴어	중세 불어	현대 불어
라우렌툼 Laurentum	로랑트 Laurente	로랑트 Laurentes
로마 Roma	롬르 Rome	롬르 Rome
리비아 Libya	리브 Libe	리뷔 Libye
알바 Alba	알브 Albe	알브 Albe

이탈리아 Italia	이탈르/이타르 Itaille/Itaire	이탈리 Italie
카르타고 Karthago	카르타주 Cartage	카르타주 Carthage
트로이아 Troia	트루에 Troie	트루아 Troie
팔란테움 Pallanteum	팔랑테 Palantee	팔랑테 Pallantée

서론

베르길리우스의 로마 건국 서사시 『아이네이스 *Aeneis*』¹⁾를 다시 쓴 『에네아스 이야기』(1156년경)²⁾는 중세 소설의 원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서 『테바이 이야기』(1152-3년경), 『트로이아 이야기』(1165년경)와 함께 고대 소재를 다룬 소설 3부작을 이룬다.³⁾ 라틴어를 로망어로 옮긴 데에서 유래한 ‘roman’이라는 양식은 기본적으로 번역을 표방하지만, 위대한 옛 문학을 모방하면서도 새로운 주제와 글쓰기를 도입하여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작지 않은 의의를 지니며,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소설들을 비롯하여 이후 중세 문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⁴⁾

『에네아스』의 분석은 많은 경우 『아이네이스』와의 비교로 시작된다. 『에네아스』가 보여주는 변형, 대체, 삭제, 보완, 확장, 창조의 과정들이 원작과의 차

-
- 1) Virgile, *Énéide*, éd. et trad. J. Perret, 3 vol., Les Belles Lettres, 1981. 한국어 번역본은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천병희 역, 숲, 2012와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1』, 김남우 역, 열린책들, 2013을 참조하였다. 번역은 천병희 역을 따르되 라틴어 원문과 불어 번역본, 김남우 역을 참고한다. 인용은 본문에 권과 행의 숫자를 직접 표기한다.
 - 2) 본 논문은 가장 오래된 수고 A를 편집한 살베르다 드 그라브의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티리-스타생의 현대 불어 번역본을 참고한다. 작품의 인용은 본문에 행의 숫자를 직접 표기한다. *Eneas, roman du XII^e siècle*, éd. J.-J. Salverda de Grave, 2 t., Champion, coll. "Les Classiques français du Moyen Âge", 44 et 62, 1985 et 1968., *Le roman d'Énéas*, trad. M. Thiry-Stassin, Champion, coll. "Les Classiques français du Moyen Âge", 33, 1997. 에메 프티가 편집하고 번역한 수고 D는 비교가 필요할 경우에만 인용한다. *Le Roman d'Énéas*, éd. et trad. A. Petit, LGF, Le Livre de Poche, coll. "Lettres gothiques", 1997. 『에네아스』의 수고는 A-I까지 총 9개가 남아 있으며, A는 12세기 말 - 13세기 초, D는 14세기 말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J.-J. Salverda de Grave, *op. cit.*, pp. III-V.
 - 3) 작품의 추정연도는 위세를 따랐다.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UF, 1984, pp. 13-14.
 - 4) 코르미에는 『에네아스』의 문체적, 주제적 영향을 추적한 드레슬러 A. Dressler의 포괄적인 연구와 함께 『에네아스』와 개별 작품들의 비교 작업을 행한 여러 연구들을 소개한다. R. J. Cormier, *One Heart One Mind : The Rebirth of Virgil's Hero in Medieval French Romance*, Mississippi University, Romance monographs, 1973, p. 112 참조.

이를 드러내며 작품의 윤곽과 주제를 형상화하고, 자신의 독자성을 주장한다. 아버지 앙키세스를 어깨에 태우고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손을 이끌며 트로이아를 벗어나는 모습(2권 vv. 707-724), 로마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새겨진 볼칸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여주는바(8권 vv. 625-731) 과거 트로이아와 미래 로마를 잇는 위대한 과업, 그 가족사적, 민족사적, 세계사적 과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경건한 *pius* 아이네아스는 사라진다. 『에네아스』에서 전자의 사건은 두 행으로 처리되고, (vv. 56-57) 뿔캉의 방패는 그 재료와 뛰어난 기능만이 강조될 뿐이다. (vv. 4445-4450) 트로이아의 멸망과 재건, 로마의 건국은 다른 맥락 속에 놓인다.

푸아리옹 D. Poirion은 이를 설명하면서 후속 논의들의 출발점이 되는 원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안젤리 G. Angeli를 인용하여 『에네아스』가 플랜태저넷 왕조를 찬양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같은 궁정의 작품들이라 추정되는 『트로이아』, 『에네아스』, 『브뤼트』는 트로이아에서 로마를 거쳐 브리튼에 이르는 계보를 완성하고, 신생 왕조에 거대한 신화적 역사를 부여한다. 특히 『에네아스』는 『아이네이스』의 건국 영웅 신화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맞게 재손질한 작품으로서, 에네아스를 왕조의 창건자 헨리 2세와 동일시하게 만든다. 솔즈베리의 존 John of Salisbury이 지은 『폴리크라티쿠스 *Policraticus*』는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 헨리 2세의 궁정에서 군주의 이상을 제시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읽혔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⁵⁾

『에네아스』와 플랜태저넷 왕조의 긴밀한 연관, 『에네아스』가 중세적으로 각색된 건국 영웅의 이야기라는 점 등은 많은 연구자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었다.⁶⁾ 하지만 푸아리옹의 해석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건국 영웅을 사랑의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는 『에네아스』가 이후 12세기 소설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1부의 과오를 2부가 교정하는 이부 구조로 구성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때 그 교정의 대상이 “군사적 덕목인 용맹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⁷⁾ 카르타고에서 디도와 “방탕함에 빠져”(v. 1573)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모든 여정을 방기”하였던(vv.

5)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 mythologie et moralisation", *Cahiers de civilisation médiévale*, XIX, 3, 1976, pp. 213-219, 1장("La transformation idéologique du récit") 참조.

6) 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Ph. Logié, *L'Énéas, une traduction au risque de l'invention*, Champion, 1999, pp. 304-306 참조.

7)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pp. 226-227.

1609-1610) 에네아스는 신들이 약속한 땅 로랑트에서 라빈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영토를 상속하는 결혼을 통해 트로이아를 재건한다. 이 구도 속에서 디도와 라빈은 각각 1부와 2부를 나누는 구조적 위상을 가진 인물로 다시 태어나고,⁸⁾ 작품에는 일관된 사랑의 주제가 깃든다. 푸아리옹은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대립은 디도와 라빈이라는 두 인물로 요약된다.”⁹⁾

마르켈로-니지아 C. Marchello-Nizia, 위셰 J.-Ch. Huchet, 모라-르브렁 F. Mora-Lebrun은 자신들의 연구가 푸아리옹의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마르켈로-니지아는 푸아리옹이 이야기한 건국 영웅의 신화를 발전시켜 『에네아스』가 “완벽한 건국자에 대한 개괄서”이며 “왕조를 세우는 탁월한 방법”에 화답하는 작품이라 주장하였다. 그녀는 비록 사랑의 문제에 천착하지는 않지만 상속 영지를 가진 여성과의 결혼이 왕조 건설 이야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조건 중 하나이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속녀 라빈과 여왕 디도를 대비시킨다.¹⁰⁾ 한편 위셰는 당시 봉건제의 입장에서, 결혼을 통해 남편에게 통치권을 이양하지 않는 디도가 중세 상상계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던 부정적인 여성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상상계에 자리 잡은 이러한 위협적인 여성상은 라빈에 이르러 모성의 비옥함으로 바뀌고, 에네아스와 라빈의 결혼은 “아버지의 이름 아래” 제국의 건설과 미래를 정초하는 결합이 된다는 것이다.¹¹⁾ 모라-르브렁은 보다 문헌학적인 연구를 통해 문제에 접근한다. 그녀는 디도가 에네아스의 유혹자이자 경쟁자이며 탐욕과 계략으로 특징지어지는 인물이라고 분석하고, 라빈 이야기에서 완성되는 “사랑과 결혼의 시학”에 대립시킨다.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은 갈등을 해소하는 우주적 조화의 원리로서의 사랑을, 고대 후기부터 이어져 온 결혼 축시의 전통은 결혼의 다양한 모티프들을 작품에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에네아스』는 소설의 끝에서 모든 갈등의 전면적 화해를 성취하는 결혼상을 그려낸다는 것이다. 모라-르브렁은 작품이 헨리 2세의 결혼에 바쳐진 결혼 서사시의 오마주일 가능성을 제시한다.¹²⁾

8)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Atlande, coll. "Cleps concours-Lettres médiévales", 2015, pp. 41-43.

9)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pp. 227.

10) C. Marchello-Nizia, "De l'*Énéide* à l'*Eneas*, les attributs du fondateur", *Lectures médiévales de Virgile*, Actes du colloque de Rome (25-28 octobre 1982), École Française de Rome, 1985, pp. 257-262.

11)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p. 132-134.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코르미에 R. J. Cormier는 푸아리옹에 앞서 사랑의 주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에네아스에게서 새로운 감수성의 이상, ‘낭만적 romantic’ 영웅의 탄생을 보았다.¹³⁾ ‘One heart, one mind’라는 그의 연구서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에네아스와 라빈은 기독교 신비주의의 이상이 세속적 차원에서 구현된 사랑, 공동체에 안정성을 가져오는 하나된 마음을 구현한다.¹⁴⁾ 한편 루스 M. Rousse는 다른 연구자들처럼 디도와 라빈의 대립 구조를 택하지는 않았지만, 파리스의 심판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작품에서 사랑의 가치를 읽어내었다. 그는 세 여신을 세 주요 여성인물과 연결 짓고, 기사 계급에게 중요한 두 가치, 권력(쥐노)과 무훈(팔라스)이 아니라 사랑(베누스)을 선택한 파리스의 심판이 전체 서사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디도(쥐노)와 카밀(팔라스)이 아니라 라빈(아모르)을 선택한 『에네아스』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감수성, 새로운 윤리의 탄생을 예고한다.¹⁵⁾

이와 같은 해석들은 서로 다른 전거, 이론, 배경들을 통해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면서도 사랑과 결혼에서 작품의 최종적인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묶인다. 디도와 라빈의 대립이 작품을 분석하는 기본 독법이 되었고, 특히 라빈의 에피소드가 작품이 찬양하는 진정한 사랑이 구현된 장소로 간주되었다. 이름으로만 회자되며 세 번 출현하는 데 그쳤던 원작(11권 vv. 478-480, 12권 vv. 64-69, 604-607)과 달리 중세 소설에서 라빈은 작품의 1/5에 해당하는 2천 행의 분량을 차지하며 전면에 나선다. 위세는 말한다. “라빈과 에네아스의 사랑이야기가 소설의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중 하나이며 개작자가 원전과 마주해 가장 큰 자유를 발휘한 에피소드임을 증명하는 데 모든 주석가들이 합류하였다. 요컨대 그것은 가장 독창적이며, 가장 전형적으로 중세적인 에피소드이다.”¹⁶⁾

하지만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푸아리옹이 처음 이야기

12) F. Mora-Lebrun, *L'“Énéide” médiévale et la naissance du roman*, PUF, 1994^a, pp. 197-205, 217-234.

13) R. J. Cormier, *One Heart One Mind...*, p. 163.

14) *Ibid.*, pp. 278-279.

15) M. Rousse, “Le Pouvoir, la prouesse et l’amour dans l’*Enéas*”, *Relire le “Roman d’Enéas”*, dir. J. Dufournet, Champion, coll. “Unichamp”, 1985, pp. 149-167.

16)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 132.

했던 것처럼 『에네아스』가 일종의 건국 영웅의 이야기이고 영웅의 과오와 교정이 작품을 구획한다면, 에네아스가 교정한 사랑의 행동은 트로이아 재건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로랑트에서 일어난 우여곡절을 살펴보았을 때, 도시 건설의 토대가 된 에네아스와 라빈의 결혼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¹⁷⁾ 에네아스에게 결혼을 약속한 이는 라빈의 아버지 라티누스 왕으로서 둘은 서로를 알기도 전에 약혼하였고, 라빈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경쟁자 튀르누스의 항의를 받자 왕은 싸워 이긴 자가 결혼하게 될 것이라며 사태의 해결을 회피하였다.(vv. 3876-3880) 이후 모든 국면에서 라빈의 의사나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고, 결국 에네아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전쟁의 보상으로 주어졌다. 작품에서 사랑과 결혼, 사랑과 트로이아 재건의 관계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도, 자명하지도 않았다.

『에네아스』의 도시 건설 과정을 추적할 때 우리가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것은 사랑보다 전쟁의 주제이다. 트로이아 멸망의 원인에 있어서도 파리스의 사랑은 메넬로스의 전쟁과 결합하였고, 에네아스의 꿈에 나타난 안퀴세스의 예고, 저승에서의 계시 모두 에네아스와 그의 후손들이 세계의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할 노고를 전쟁으로 규정한다.(vv. 2213, 2982-2984) 에네아스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자신의 노고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화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왕국과 나라를 얻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그의 노고가 끝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를 것이다.”(vv. 3115-3118) 트로이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차적인 요인은 전쟁이다. 트로이아 재건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함께 전쟁에 주목하고, 작품에서 전쟁이 갖는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전쟁의 분석을 도입하고, 전쟁과 사랑의 관계를 탐색하며 에네아스의 도시 건설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푸아리옹이 배제하였던 무훈과 용맹의 주제를 되살리거나 이후 소설들에서 유행할 기사도를 중심 주제로 삼아 전쟁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전쟁의 주제를 다룰 때 준거점으로 삼게 될 것은 군주로서의 에네아스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 가신 회의, 외교 행위, 명령과 지휘, 선동과 격려 등

17) “그 왕조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미래 시제인 9836행(“그들은 왕과 왕비가 될 것이다”)은 과거 시제인 10108행(“그들은 이탈리아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과 정확히 호응하며 권력이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Ph. Logié, *L'Énéas, une traduction...*, pp. 212-213.

그에게서는 전사로서의 기사 이상으로 이끄는 자, 세우는 자, 다스리는 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¹⁸⁾ 전장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무위가 없음에도 에네아스가 불리한 전세를 뒤집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그곳에 있다. 전쟁의 분석은 이 과정을 추적한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이다. 푸아리옹과 후속 연구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랑이 도시 건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에네아스』는 분명 사랑의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텍스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건국 영웅의 이야기에서 사랑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에네아스가 군주라는 점은 사랑의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출발점이 된다. 푸아리옹은 이미 통찰력 있는 분석의 단초를 남겼다. “디도와 나눈 사랑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먼저 군주의 통치 *regimen principis*라는 관점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¹⁹⁾ 푸아리옹의 이와 같은 주장을 라빈과의 사랑이야기에도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 군주의 통치는 에네아스의 사랑이 과오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군주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된 디도와 라빈의 사랑이야기는 부분적으로나마 사랑과 전쟁, 사랑과 트로이아 재건의 관계를 밝혀준다.

우리가 에네아스를 군주라고 부를 때 전제하는 것은 군주에게는 일개 기사와는 다른 책임과 덕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기에, 『에네아스』는 그 다른 책임과 덕목을 현명함 *sagesse*에서 찾는다. 아이네아스와 구분되는 에네아스의 특징을 현명함으로 규정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에네아스』가 용맹보다 현명함을 강조하는 텍스트임을 지적하였고, “노련한 말솜씨”, “군사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사유”, 계략과 영민한 정신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명함의 특징을 설명하며 이를 군주의 면모와 결부시켰다.²⁰⁾ 우리는 이에 기반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네아스의 현

18) “에네아스의 ‘위업’이 집중되는 곳은 기사도보다 군주의 이상(理想)이다.”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p. 218.

19) *Ibid.*, p. 218.

20) “에네아스는 노련한 말솜씨를 갖고 있으며, 이 자질이 그를 그리스의 월릭세스(오뒷세우스)처럼 현명함 *sagesse*의 쪽에 위치시킨다.”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79. “만약 에네아스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행한 연설이나(v. 311 이후) 디도에게 보낸 트로이아 사절의 말(v. 564 이후)을 고려한다면, 텍스트를 지배하고 텍스트에 특별한 의미를 그려내는 것은 분명 군사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사유이다.”,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p. 218. “하지만 (힘 *force*과 부 *richesse*의) 그 상호관계는 텍스트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현명함 *sagesse*이라고 하는 제3의 항을 필요로 하며, 에네아스는 그 현명함을 상징하는 영웅이다. 현

명함을 군주의 기술 art이라는 용어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기술은 특정 가치를 전제하지 않는 방법론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에네아스의 특징들을 아우르는 동시에, 현명함에 내포된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인 뉘앙스를 제거하여 에네아스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에네아스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 실천을 구사하며, 이를 통해 도시 건설과 통치권 획득에 성공한다. 그가 군주로서 수행하는 전쟁과 사랑의 모습이 각각 전쟁의 기술과 사랑의 기술을 이루어 그의 군주의 기술을 완성할 것이다.²¹⁾

따라서 본 논문은 『에네아스』가 중세적 건국 영웅의 이야기라는 푸아리옹의 해석을 수용하되 전쟁의 주제를 도입하고 사랑의 주제를 재조정하여 이를 군주의 기술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군주의 기술은 전쟁의 기술을 다루는 1장과 사랑의 기술을 다루는 2장으로 나뉘어 분석될 것이다. 1장에서는 먼저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과 트로이아 전쟁의 에피소드를 통해 『에네아스』의 전쟁이 『아이네이스』의 전쟁과 어떤 점에서 갈라서는지를 검토한다. 변화된 전쟁의 모습은 로랑트 전쟁에서 분명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이곳에서 에네아스는 몽토방 성, 트로이아 막사, 연설들의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그만의 전쟁의 기술을 보여줄 것이다.

명함은 비록 *engin*의 다른 이름인 계략이 된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영민한 정신을 일컫는 개념이다.” C. Croizy-Naquet,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dans *Le Roman d’Enéas* (vv. 7281-7352)”, *Bien dire et bien apprendre*, 9, 1991, p. 85.

- 21) 쟁크 M. Zink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기술일까? 분명 예술가들의 기술일 수는 있다. 하지만 고대적 의미에서, 그리고 단어의 첫 번째 뜻에서, 기술이 실천적 지식, 기법, 직업적으로 구사되는 기술의 하나일 때는?” 물론 이 질문은 긍정의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적 질문이다. 그에게 서양 중세문학은 “그 전체로 거대한 사랑의 기술”이었다. M. Zink, “Un Nouvel art d’aimer”, *L’Art d’aimer au Moyen Âge*, Philippe Lebaud, 1997, p. 9. 한편 호슬러는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아도 솔즈베리의 존의 저술들에 담긴 조언들이 군사 교범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저술들의 출간과 확산은 실제로 “어떻게 전쟁을 가장 잘 치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조언의 전파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폴리크라티쿠스』 6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게티우스 Vegetius를 따라 솔즈베리의 존은 군주가 법과 군사학에 정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학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핵심적인 열쇠이기 때문이다.” J. D. Hosler, *John of Salisbury. Military Authority of the Twelfth-Century Renaissance*, Brill, 2013, pp. 3-7. 앞서 이야기했듯이 솔즈베리의 존은 『에네아스』의 저자와 동시대에, 같은 궁정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2장에서는 먼저 저승 방문 에피소드를 재해석하여 작품에서 사랑의 주제가 갖는 위치를 재고한다. 저승 방문은 에네아스가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전에 과오를 교정하고 극적 변신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분석에서 에네아스의 변신은 과오의 교정과 큰 관련이 없으며 그 방향도 사랑의 주제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이러한 저자의 관점은 디도의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축소된 사랑의 주제는 라빈의 에피소드에 이르러 에네아스의 사랑의 기술로 되살아나며, 우리는 이를 전쟁, 변증, 항해라는 세 가지 사랑의 형태로 분석해볼 것이다.

작품의 끝에서 에네아스는 사랑과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고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정당한 왕으로 거듭난다. 본 논문은 군주의 기술이라는 관점을 통해 에네아스가 트로이아 재건에 성공하는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네아스』가 『아이네이스』와 차별화되는 지점을 새로운 시야에서 밝히려는 시도이다.

1. 전쟁의 기술

1.1.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과 전쟁의 주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정말 『에네아스』의 핵심 주제일까? 티리-스타생은 역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연다. “『에네아스』는 첫 두 절부터 작품의 관심사와 생생한 힘을 밝힌다. 전쟁과 여성, 전투와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후 그녀의 분석에서 전쟁에 대한 해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녀는 모든 주요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전쟁만은 배제하는데, 의도치 않게 그녀가 알려준 이유에 따르면 “군사적 용맹이 중요한 [...] 당대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포위, 공격, 평야 회전, 기마 전투, 개별 전투들에 대한 이야기”는 “프랑스 서사시와 라틴 서사시라는 이중의 전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²²⁾ 다시 말해, 전쟁은 소설이 아니라 서사시의 주제이다.²³⁾ 당시 청중의 신분을 고려해 전투는 빠질 수 없는 대목이었고 무훈시의 계승자이자 경쟁자로서 소설의 저자는 전투 묘사의 정석을 숙지하고 활용하였지만, 전쟁은 서사시의 유산의 하나일 뿐 탄생 중인 장르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없었다.

프티 A. Petit는 무훈시에서 사용되는 모티프와 표현이 고대 소재의 소설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비교하면서 『테바이』와 『트로이아』에 비해 『에네아스』가 현저히 낮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 카밀과 에네아스 같은 주요 인물 이외의 싸움을 생략한다는 것을 밝힌다. 수많은 영웅들이 산발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서사시적 전투의 수평적 연쇄가 서사 진행을 중시한 핵심 전투들의 수직적 연쇄로 축소된다는 것이다.²⁴⁾ 또한 프티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두드러지는 긍정적 성격의 가미가 서사시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약화시키고, 무훈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²⁵⁾ 그가 보기에 라빈과의 결혼은

22) M. Thiry-Stassin, *op. cit.*, pp. 7-8.

23) 포사마이는 마들레나 D. Madelénat가 규정한 서사시의 주제들을 간단히 정리해준다. “영웅, 신, 전쟁”, M. Possamai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26.

24) A. Petit, *Naissances du roman : Les Techniques littéraires dans les romans antiques du XII^e siècle*, 2 vol. Champion, 1985, pp. 296-320.

“전쟁의 요소와 사랑의 요소 사이의 행복한 결합을 표상”한다.²⁵⁾

한편 포사마이는 다른 초점, 다른 분석을 통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녀는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과 튀르누스의 공성전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팔라스 및 에네아스의 일대일 결투 장면을 간략히 검토한 후, 『에네아스』에 서사시 고유의 어조를 보존한 전투 장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투와 전쟁을 반어적으로 묘사하고 때로는 조롱하면서 서사시적 요소를 비서사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단언한다. 『에네아스』의 저자가 전쟁 주제를 기만적으로 취급하면서 “고대 소재를 소설로 만드는 새로운 주제들”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다.²⁷⁾ 이는 티리-스타생, 프티와 핑가의 뉘앙스가 다를 뿐 두루 공유되는 전제로서, 그들은 『에네아스』에서 전쟁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주제가 아니며, 사랑을 비롯한 여타 소설적 주제들과의 결합 하에서만 유의미한 주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⁸⁾

하지만 프티와 포사마이의 분석 사이에는 한 가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전쟁의 분량과 중요성이 축소되어 카밀의 무덤 같은 경이로 대체되거나 사랑의 주제에 가려진다고 주장한 프티와 달리 포사마이는 전쟁의 서사시적 성격이 비(非)서사시적으로, 더 흔하게는 반(反)서사시적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²⁹⁾ 포사마이는 『에네아스』가 그려내는 전투와 싸움들에서 명예롭지도, 용맹하지도 못한 행위를 다수 발견한다.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을 예로 들어보자. 그녀가 보기에 혼전의 양상은 별로 기사도적이지 못하다. 검을 뽑아든 트로이아 기사들의 상대는 말뚝과 몽둥이로 무장한 시골 사람들이다. 아스카니우스는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활을 쏘는 데 집중하고,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말의 영웅, 그러니까 지략 *mètis*의 영웅”으로 활약한다. 말로 기사들을 북돋우면서 그가 내세우는 것은 “명예도, 신앙의 수호도, 왕국도 아닌 양식

25) *Ibid.*, pp. 338-342.

26) *Ibid.*, p. 496.

27)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p. 96-103.

28) “(저자가 원작에 행한) 이 덧붙임들이 여성성과 그 신비, 혹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에네아스』를 원작의 서사시적 궤적으로부터 그리고 무훈시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충분하다. 무훈시는 남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소란, 싸움에 대한 열광에 몰두한다.”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p. 41-42.

29) 이하 포사마이에 대한 모든 인용은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p. 93-103.

(糧食)”이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찾아 온 갈레쉬스를 죽이고, 전투 훈련도 받지 못한 평민에 몰려 원군을 요청한다. 완전 무장한 원군에 힘입어 승기를 잡은 후에는, 도망치기 시작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평민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고, 티튀스가 물러난 성을 포위한다. “싸움의 끝은 더 명예롭지 못하다.” 그녀는 결말이 “희극적 영웅담에 근접한 방법”에 따라 기술되었다고 평하며 작가의 조롱을 감지한다. 포위된 자들이 성에서 도망치자 트로이아 인들은 “저속한 약탈자”로 변모하였다. “그들은 사슴을 조각내 씹어졌다. 한 청년은 다리를 집어 들었고, 다른 청년은 머리를 움켜쥐었다. 이 모두 그들이 막강한 힘으로 얻은 것이었다.”(vv. 3767-3770)

세부사항들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포사마이의 섬세한 분석은 이 에피소드에 부여된 강조점에 걸맞은 의미를 끌어낸다. 65행(7권 vv. 475-539)에서 258행(vv. 3525-3782)으로 크게 늘어난 이 사건은 작품에 새로운 뉘앙스를 더하며 전쟁의 성격을 다시 쓴다. 『아이네이스』와 비교해보자. 싸움을 부추긴 유노와 알렉토의 계략이 사라진 중세 세계에서, 아스카니우스는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고장에서 사냥을 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부탁해 20여명의 호위 기사와 함께 성을 떠난다. 사슴이 냇물을 타고 떠내려 와 아스카니우스에게 접근하였던 원작과 달리(7권 vv. 493-495) 아스카니우스의 일행은 한참을 달려 성과 멀리 떨어진 숲에 진입하여 사슴을 사냥한다. 싸움이 벌어지자, 강인하고 거친 『아이네이스』의 농부들은 알렉토의 뿔피리 소리에 무구들을 집어들어 “단단한 몽둥이와 불에 그슬려 뽕죽하게 다듬은 말뚝으로 싸우는 시골 싸움이 아니”라 “쌍날칼로 서로 싸”우는 전쟁을 벌인다. 트로이아의 젊은이들은 원군 요청이나 아이네아스의 명령 없이 “아스카니우스를 도우러 쏟아져 나왔다”고, 튀르루스의 장남 알모를 죽인 화살은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쏘아졌으며, “양측은 대열을 갖추고 마주 다가”서 “백중지세를 이루며” 사건을 마무리하였다.(7권 vv. 520-540) 추격전과 공성전, 약탈 등의 후일담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 모든 세부사항의 변화, 그로 인한 분량의 증가는 포사마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세 작가는 사건의 발단에 새로운 설정을 도입하고, 무장(武裝)들 간의 대조 효과를 강조하며, 아스카니우스의 연설과 후속 사건들을 추가하여 에피소드의 뉘앙스를 조정한다. 그 방향은 그녀가 지적한 것처럼 비기사도, 반서사시적인 성격을 띤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소설의 주제들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기만적으로 다루어진 전쟁의 불품없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

해서일까? 이를 통해 작가는 전쟁 주제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전면적인 대(大) 화해의 움직임은 만들어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사랑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³⁰⁾ 『에네아스』가 보여주는 체계적이고 섬세한 각색은 오히려 그녀의 결론에 반박한다. 그녀의 말처럼 전쟁의 주제에서 “『에네아스』가 예외를 구성하고” 저자가 “독창적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³¹⁾ 이는 전쟁을 소설에 고유한 주제들, 예컨대 사랑으로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소설적 전쟁, 독자적이고 일관된 전쟁의 주제를 그려내기 위해서이다.

『아이네이스』에 비해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전쟁은 여전히 작품의 중반부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트로이아 전쟁, 종지부를 찍는 일대일 결투까지 포함한다면 『에네아스』의 모든 국면은 전쟁과 함께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티는 3부 구조를 제시한 후 1:2:1의 비율에서 2를 차지하는 중반부를 전쟁에 할애하면서도, 진정한 전투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품이 전쟁에 제한된 자리만을 남겨놓았다고 주장하지만,³²⁾ 이는 『에네아스』의 전쟁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 불과하다. 포사마이가 분석한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 에피소드를 다소 길게 소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대한 전쟁의 방아쇠가 되는 사건,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건은 트로이아 전쟁에서 어렵פות하게 드러났던 전쟁의 성격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앞으로 펼쳐질 로랑트 전쟁의 성격을 예고하는 문턱에 해당한다. 이 문턱에서 저자는 전쟁의 주제가 『아이네이스』나 무훈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선언하고, 사건의 앞뒤로 배치된 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을 권유한다.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된 트로이아 전쟁에 대해 우리는 어떤 분석을 가지고 있던가?

30) *Ibid.*, p. 103.

31) *Ibid.*, p. 94.

32) A. Petit, *Naissances du roman...*, pp. 483-491, 그는 1부를 ‘약속의 땅의 탐색’(vv. 1-3104), 2부를 ‘전쟁’(vv. 3015-7856), 3부를 ‘대단원 : 사랑이야기와 전쟁의 끝’(vv. 7857-10156)으로 나누면서도 실제 전쟁은 4825-5999행으로 끝나고 여기에 카밀과 함께 시작해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는 전투(vv. 6594-7225), 마지막 일대일 결투(vv. 9403-9817)가 덧붙여질 뿐이라고 분석한다.

1.2. 트로이아 전쟁

『에네아스』의 시작은 상당한 주의를 끌고 있는 했다. 당시 일반적 관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네이스』에도 존재하는 서문을 생략한 채 트로이아 멸망의 현장으로 곧장 독자를 초대하는 1-4행은, 앞서 티리-스타생이 밝힌 것처럼 소설의 주제를 극적으로 집약한 대가의 솜씨로 이해되었다.

메넬로스가 트로이아를 포위했을 때, 그는 도시를 점령할 때까지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영토와 전 왕국을 폐허로 만들었다. 아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vv. 1-4)

Quant Menelaus ot Troie asise, / onc n'en torna tresqu'il l'ot prise, /
gasta la terre et tot lo regne / por la vanjance de sa fenne.

작가는 1행부터 트로이아 원정의 지도자가 아가멤논이 아니라 메넬로스임을 강조한다. 트로이아 전쟁이 아내를 빼앗긴 메넬로스의 복수로 규정됨으로써, 불륜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도시의 멸망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된다.³³⁾ 원작에서 두 행으로 암시된 파리스의 심판이 길게 되살아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vv. 93-182) 파리스와 엘루엔(헬레나)의 부정한 결합을 에네아스와 라빈의 합법적 결합이 교정한다. 도시의 멸망을 초래한 결합이 도시의 재건을 정초할 결합으로 대체된다. 불륜과 결혼이, 트로이아와 로마가 짝을 이루며 작품을 정합적으로 마무리한다.³⁴⁾

이는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해석이다. 다만 2부가 교정하는 대상이 군사적 덕목인 용맹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라는 점 때문에, 이 구도 속에는 여전히 전쟁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여기에서도 전쟁은 부차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일까? 상대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는 2-3행에 동일한 주의와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 2행은 단순히 메넬로스의 집요함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이 아니다. “도시를 점령할 prise 때까지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는 구절은 그 한 문장 속에 10

33) 로지에는 반복과 반향이 중요한 의미작용의 고리들을 이룬다고 주장하면서 1-4행이 미묘한 변주와 함께 22-24행에서 반복되고, 전쟁의 원인이 불륜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Ph. Logié, *L'Énéas, une traduction...*, pp. 197-198.

34) 이러한 해석에서 디도와 에네아스의 결합은 파리스와 엘루엔의 결합을 반복하는 과오로 여겨진다.

년의 긴 세월 동안 이어진 포위 공격의 지난함과 마침내 점령에 성공하였다는 결과를 동시에 함축하여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길을 연다. “그는 도시를 배신으로 par traison 점령하였다 prist.”(v. 5) 여기에서 배신이 트로이아 목마를 의미함은 물론이다. 2행과 5행은 의미상으로도, 문장의 근접성과 ‘prise’, ‘prist’의 반복을 통해서도 호응 관계를 이루며 트로이아 목마를 연상시키기 위한 포석이 된다.

만약 우리가 1-4행에 상징적 중요성을 부여해온 것이 타당하다면, 함의의 폭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목록에 트로이아 목마로 대표되는 배신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2행만으로 그 정도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비약이겠으나 2행과 5행의 결합이 1행과 4행에 버금갈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에네아스가 디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

그녀는 손님에게 트로이아의 멸망과 그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하였다.(vv. 842-844)

son oste prie qu'il li die / de Troie la destrucion, / et li recont la traison.

‘destrucion’과 ‘traison’의 각운은 디도가 트로이아 멸망의 이야기를 그 배신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배신이란 말로 디도가 의도했던 것이 5행의 트로이아 목마에 관한 것인지, 4행의 파리스의 불륜에 관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³⁵⁾ 하지만 요청을 받은 에네아스는 자연스럽게 윌릭

35) 디도의 요청은 원작과도 비교할 만하다. 『아이네이스』에서 디도는 “프리아무스와 헥토르에 관해 묻고 또 물었고, 아우로라의 아들이 어떤 무구들을 갖고 왔는지 묻는가 하면, 디오메데스의 말들은 어떤 종이였으며, 아킬레스는 얼마나 큰지 물었다.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하고 그녀는 말했다. ‘손님이여, 다나이족의 계략과 그대의 전우들의 파멸과 그대 자신의 방랑에 관해 처음부터 이야기해주세요. 그대가 모든 바다와 육지 위로 떠돌아다니며 벌써 일곱 번째 여름을 맞았다니 말예요.’”(1권 vv. 749-756) 트로이아 전쟁의 유명한 장수와 무구와 애마를, 계략과 파멸과 방랑을 두서없이 묻는 디도의 요청은 『에네아스』에서 그 배신의 이야기, 단 하나에 대한 요청으로 압축됨으로써 ‘traison’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다만 원작에서 트로이아 목마를 분명하게 표현한 ‘다나이족의 계략’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디도가 말한 ‘traison’이 트로이아 목마의 계략을 가리키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며, 이는 디도가 트로이아 인들을 손님으로 환대하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보다 가능성 있는 해석이다. 하지만 트로이아 목마를 지칭하는 명시적 표현을 파리스의 불륜도 함께 가리킬

세스(오뒷세우스)와 시논의 계략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에게 파리스의 잘못은 메넬로스가 트로이아를 공격한 원인이었을 뿐 트로이아 멸망의 원인은 아니었다.(vv. 863-864) 강력하고 용감한 기사인 트로이아 인들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휴전을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메넬로스는 10년 동안 포위를 유지하고도 트로이아를 점령하지 못했다. “힘으로도 압박으로도 점령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하였던 트로이아가 멸망하였던 것은 월릭세스의 계략 때문이었다.(vv. 881-886) 에네아스는 월릭세스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아 모든 것을 잃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트로이아 인들은 순진하게도 시논의 거짓말을 믿었고 스스로 벽을 허물어 기꺼운 마음으로 목마를 끌었다. 그 앞에서 소녀들은 노래 부르며 하프와 교현금을 울렸고 커다란 환희와 즐거움 속에서 목마는 입성하였다.(vv. 889-1166) ‘angin’, ‘traïr’, ‘deceü’ 등의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교활하고 노련한 그리스 인들에, 시논을 동정하며 눈물짓고, 웃으며 파멸을 끌어들이는 순진한 트로이아 인들이 대비된다.

에네아스는 이처럼 화자가 제시한 2행과 5행의 결합에 주석을 달고 방향성을 부여한다. 그는 두 행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고 월릭세스와 시논을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월릭세스와 시논의 배신은 트로이아 멸망의 또 다른 원인이 되어 작품의 줄기를 이루는 주제로 기재되고, 트로이아 전쟁은 사랑과 불륜이 아니라 계략과 속임수의 주제와 연결된다. 트로이아 전쟁은 무력과 용맹을 겨루는 서사시적 전쟁도, 경이와 사랑의 주제에 자리를 넘겨주는 축소된 전쟁도 아닌, 계략과 속임수로 국면을 전환하는 새로운 전쟁의 모습,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과 호응할 비기사도적이고 반서사시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재해석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월릭세스와 시논의 계략이 파리스의 불륜처럼 극복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네아스는 둘의 교활함을 규탄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였지만 곧이어 자신 역시 속임수의 실천자임을 드러낸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파괴와 학살을 소개한 후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런데 에네아스가 말하는 자신의 모습은 서두에서 화자가 묘사한 그의 모습과 다르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그는 도시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싸움에 뛰어들다.³⁶⁾ 뒤따라오던 아내 크레우사를 잃을 정도로 그는 정신없이

수 있는 ‘그 배신’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로부터 저자의 중의적 의도를 짐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36) 에네아스의 이야기는 원작에 보다 가깝다. “나는 정신없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어

칼을 휘둘렀고, 그리스 인들을 죽이는 것에 지칠 무렵 베누스의 방문을 받게 된다. 그녀는 선조 다르다누스가 태어난 땅으로 떠나라는 신들의 의지를 전하였고, 그때서야 에네아스는 항해 길에 오른다.(vv.1177-1196) 반면 작품의 서두에서 화자는 한층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도시 한쪽 구석의 거대한 영토를 상속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에네아스는 소란과 파괴의 현장을 발견하자 두려움을 느낀다. 베누스는 그에게 트로이아 인의 패배를 알려주었고 지체 없이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에네아스도 그리스 인들이 곧 다가올 것이며 그들에 맞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충분한 여유를 들여 재산을 챙긴다. 전 가솔들을 불러 모아 보물들을 가져오게 하였고, 3천 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그는 도망쳤다.³⁷⁾

화자의 이야기는 원작에 없는 순수 창작이다. 디도에게 들려주는 에네아스의 이야기가 곧 트로이아 이야기의 전부였던 원작과 달리 중세 작가의 가필은 화자의 이야기와 에네아스의 이야기를 비교하게 만들고, 후자의 신빙성에 큰 타격을 준다.³⁸⁾ 트로이아 멸망의 날 에네아스가 하고 있었던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에네아스는 저승을 방문했을 때 전사(戰死)자들의 평원에서 엑토르, 프리아미스, 파리스, 데이페뷔스 등 트로이아 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못했다. “그는 감히 그들에게로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숨기고 얼굴을 붉혔”는데, 이는 “그들이 살해당할 때 그들로부터 은밀히 도망쳤기 때문이다.”³⁹⁾ ‘fuitis’와 ‘ocis’의 각운은 그와 트로이아 인들 간의 상반된 행동을 강조하며, 이는 몸을 숨기는 데이포부스를 알아보고 오히려 친숙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던 원작과 뚜렷이 대비되는 내용이다.(6권 vv. 494-546) 수고

디에 써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전쟁을 위해 부대를 집결시키고 전우들과 함께 성채로 달려가기를 열망했습니다. 광기와 분노가 나를 내몰았고, 무장한 채 죽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2권 vv. 313-317)

37) “Bel loisir ot del suen tot prendre, / tote sa gent fist asenbler / et ses tresors an fist porter ; / grant avoir et grant manantises / et granz richeces an a prises, / par un postiz s’an est issu, / bien en torna trois mile escuz ; / [...] Soantre lui grant gent la’n vait ; / la ou il fuit se sunt atrait.”(vv. 48-60)

38) “계략의 과거. 도시를 구획하기 위한 디도의 계략 *engien*에 더해지는 에네아스의 계략. (...) 이를 통해 그는 소설의 시작에서 화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보완-아니면 반박?-한다.” M. Possamai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120.

39) “Ne lor osot torner lo vis, / tant com pooit se resconsot / et anvers ols se vergondot, / por ce qu’il s’en enbla fuitis / d’entr’als, quant il furent ocis.”(vv. 2680-2684)

D는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이야기를 정리하였다”(vv. 930-933)는 사실을 밝힌 후, 50행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니, 내가 그곳에 있었고, 진실을 보고 알기 때문”(vv. 952-953)이라 말하는 에네아스를 소개하여 그의 속임수를 보다 분명하게 폭로한다.

요컨대 작가는 작품의 시작을 다시 씌으로써, 속임수를 비난하는 이야기에 서 속임수가 활용되는 상황을 연출한다. 실제 진실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에네아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정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난파된 배들, 쫓겨난 망국민들의 우두머리로서 그는 디도의 호의에 전적으로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 그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비겁하게 보이거나 트로이아의 명예를 실추시킬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어디까지나 부당한 속임수로 인해 멸망한 문명국의 피해자로서, 용맹을 떨쳤으나 신의 명령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후퇴해야 했던 기사로서,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어버린 가련한 사내로서, 도망자가 아니라 조상의 땅에 되돌아가는 귀환자로서 디도의 앞에 서 있다. 이 교묘한 사태의 반전은 에네아스의 빠른 상황판단과 말솜씨가 빚어낸 일종의 책략이라 할 만하다. 그는 트로이아 전쟁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는 해석자이자 변화된 전쟁의 면모를 선봉에서 수행하는 실천자로서 자리매김한다.

트로이아 전쟁에 대한 수정된 관점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다. 트로이아 멸망의 날 화자가 들려준 에네아스의 행동을 다시 평가해보자.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충격적인 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쓰여지던 시기의 문학적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로지에에 따르면 중세에는 베르길리우스 이외에도 트로이아 전쟁을 다룬 권위자들이 여럿 있었고 이들은 또 다른 에네아스 전통을 형성하였다.⁴⁰⁾ 호메로스에서부터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이 전통은 에네아스에게 비겁함 lâcheté과 탐욕 cupidité이라는 두 가지 큰 낙인을 찍었고, 그 전통의 기수라 할 디튀스 Dictys Cretensis의 『트로이아 전쟁 일지 *Ephemeris belli Troiani*』(4세기)와 다레스 Darès le Phrygien의 『트로이아 멸망사 *De excidio Troiae Historia*』(6세기)가 12세기에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에네아스』의 저자가 이를 모를 수는 없었다. 브누아 드 생트모르의 『트로이아』는 디튀스와 다레스의 관점을 전면

40) Ph. Logié, *L'Énéas, une traduction...*, pp. 265-285.

적으로 수용하여 에네아스를 안전과 부를 약속 받고 조국을 팔아넘긴 배신자로 묘사하기까지 한다. 『에네아스』에서 멸망하는 조국을 뒤로한 채 도망치고 숨 가쁜 와중에도 재산을 챙기는 면모를 주인공에게 덧붙인 것은, 이 전통을 무시할 수 없었고 또 무시하지 않으려 한 저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로지에는 『에네아스』의 저자가 감행한 주인공의 복권 과정을 추적한다. 그는 가장 무거운 죄, 조국에 대한 배신행위에서 일단 에네아스를 구제한 뒤⁴¹⁾ 탐욕과 비겁의 죄를 차례로 다룬다.⁴²⁾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에네아스에게 주어진 탐욕의 혐의는 선물이라는 정당한 사용 속에서 사라지며, 반대로 이를 통해 주인공의 관대함이 증명되기에 이른다. 저자가 선물 묘사에 들인 정성(vv. 736-760)과 선물을 본 이들의 반응(vv. 789-800)은 선물이 환대를 표현하는 일반적 관행 이상의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주인공의 관대함이 확립된다는 것이다. 비겁에 대해서도 그는 에네아스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화자가 그 감정을 정당화 해준다는 점(v. 31),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오히려 겁에 질린 무리를 격려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저승 방문을 통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떨쳐내고 도망의 죄를 극복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상젤리제에서 에네아스를 맞이하는 안취세스의 말이 결정적인 단서를 준다. “내 아들 에네아스야, 나는 이제 알겠구나. 네가 여기 내게 왔으니, 네 경애심이 두려움을 극복하였어.”⁴³⁾

41) 로지에는 생각하는 저자의 주된 전략은 비난의 내용을 미묘하게 대체하는 것이다. 그는 마르켈로-니지아의 주장을 수정하여 에네아스의 동성애 혐의가 왕조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조건(étrangeté)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기각될 손쉬운 비난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 주장한다. 로지에는 따르면 저자는 아마타 왕비가 동성애와 연결 지은 배신행위를 조국의 배신이 아니라 디도에게 저지른 사랑의 배신으로 대체하여 에네아스의 대표적 배신행위를 새롭게 규정한다. 또한 디도에 대한 배신은 신이 부여한 사명을 위해 힘든 시련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의 쾌락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어 사랑과 의무 중 의무를 택한 고결한 선택으로 재규정된다. 로지에는 이렇게 배신의 혐의를 벗은 에네아스가 트로이아 멸망의 원인을 메넬로스, 윌릭세스, 시논의 배신과 계약으로 대체함으로써 결정적인 결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Ibid.*, pp. 285-291.

42) *Ibid.*, pp. 291-300.

43) “Fiz Eneas, or sai et voi, / quant venuz estes ci a moi, / que pieté venqui paor.”(vv. 2839-2841) 원작에서 ‘pietas’가 극복한 대상은 험난한 길이었다. “그에 네가 왔구나. 네 아버지가 기대한 대로 네 경애심 pietas으로 여행의 험난한 길 iter durum을 극복해냈구나.”(6권 vv. 687-688) 험난한 길이 두려움으로 대체된 각색은

로지에는 에네아스에게서 탐욕과 비겁의 낙인을 벗겨내는 이 과정이 단순한 복권을 넘어 주인공의 영웅성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뒤메질 이 주장한 인도-유럽어족의 세 기능 도식을 사용한다. 흔히 이 도식은 기도하는 자(사제), 싸우는 자(전사), 일하는 자(생산자)로 표현되지만, 뒤메질에 따르면 이는 세 기능의 표현 양식 중 하나인 사회적인 구조만을 지칭할 따름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드러나는 세 기능 이데올로기는 보다 근본적으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현실을 탐색하는 방식, 사회에서 용인되는 관념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공해준다.

한편으로 신성한 것과 그 관계들이 있다. 그 관계는 인간과 신성한 것의 관계일 수도 있고(제례, 주술), 신들의 감시와 보증 아래 있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다.(법, 통치) 또한 신들의 의지나 호의에 따라 왕 혹은 대행자들이 수행하는 지배 권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보다 일반화하면 신성한 것들에 대한 명상 및 그 제어와 관련된 앎, 지혜가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힘과 그 힘의 행사가 있다. 그것은 주로 전사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인간, 동식물의 생식 능력과 동시에 양식, 부, 건강, 평화 - 평화가 가져다주는 기쁨 및 이점들과 함께 - 가 있고, 자주 쾌락과 아름다움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다량”이라는 중요한 관념이 있는데, 이는 재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풍요), 사회체를 구성하는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무리)⁴⁴⁾

d'une part le sacré et les rapports soit des hommes avec le sacré(culte, magie), soit des hommes entre eux sous le regard et la garantie des dieux(droit, administration), et aussi le pouvoir souverain exercé par le roi ou ses délégués en conformité avec la volonté ou la faveur des dieux, et enfin, plus généralement, la science et l'intelligence, alors inséparables de la méditation et de la manipulation des choses sacrées; d'autre part la

저승 방문을 통해 에네아스의 두려움이 극복되었음을 알리며, 이후로 에네아스가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천병희 역은 'pieats'를 '효성', 'iter durum'을 '온갖 어려움'으로 번역하였지만, 아이네아스가 저승에 방문한 것은 아버지가 전한 신들의 명령에 따른 행위이기도 하므로 신들에 대한 경건과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모두 뜻할 수 있는 경애심으로 바꾸었다. 험난한 길은 'iter durum'의 직역이다.

44) G. Dumézil, *Mythes et dieux des Indo-Européens*, éd. H. Coutau-Bégarie, Flammarion, 1992, pp. 95-96.

force physique, brutale, et les usages de la force, usages principalement mais non pas uniquement guerriers. [...] fécondité certes, humaine, animale et végétale, mais en même temps nourriture et richesse, et santé, et paix – avec les jouissances et les avantages de la paix – et souvent volupté, beauté, et aussi l'importante idée du "grand nombre", appliquée non seulement aux biens(abondance), mais aussi aux hommes qui composent le corps social(masse).

‘신성한 것과 그 관계들’이 1기능,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힘과 그 힘의 행사’가 2기능, 그 외의 ‘생식 능력, 양식, 부, 건강, 평화, 쾌락, 아름다움, 다량’ 등이 3기능에 해당한다. 로지에는 뒤메질의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여 에네아스가 1기능의 특권적 양태인 지혜를 갖춘 인물이고, 복권 과정을 통해 1기능의 약점이자 2기능의 결여인 비겁을 극복하고, 3기능의 약점인 탐욕을 3기능의 실현인 관대함으로 승화시킨다고 주장한다.⁴⁵⁾ 로지에는 이에 더해 에네아스가 원죄(파리스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부여 받는다는 증명을 덧붙인다. 그 결과 에네아스는 인도-유럽어족의 세 기능을 조화롭게 통합한 영웅이자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덧붙여진 신성한 왕권의 소유자로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건국 왕으로 재탄생한다.⁴⁶⁾

그리하여 번역자는 중대한 비난의 희생자인 에네아스를 복원하였고, 그 비난의 이유들을 에네아스가 미래에 갖게 될 자질의 씨앗으로 만들어, 에네아스에게 세 기능의 덕목들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에네아스는 기독교적 도식 아래에서 건국 왕이 되었고, 자신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 약점을 극복하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원(誓願)대로 구성원들에게 평화와 질서를, 다른 차원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⁴⁷⁾

45)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조르주 뒤메질은 우리에게 세 기능 이론을 통해 필수적인 도구들을 제공해준다. 브누아가 에네아스에게 부여하기를 거부하지 않은 자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현명함 *sagesse*임을 우리는 확인한바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현명함은 1기능의 특권적 양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2기능은 용맹 속에서 구현되고, 3기능은 관대함 속에서 실현된다.” Ph. Logié, *L'Énéas, une traduction...*, pp. 279-280.

46) 이러한 관점에서 로지에는 『에네아스』가 신화의 시간을 대속사라는 선형적 시간, 인류 역사의 시간, 신의 섭리가 구현되는 시간으로 탈바꿈하는 작품이며, 소설은 신화를 인간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문학적 언어라고 본다. *Ibid.*, pp. 211-218, 304-306.

C'est ainsi qu'il a réhabilité Énée, victime d'accusations gravissimes, et qu'il a fait de ces griefs le germe de ses qualités futures et attribué à Énée les vertus des trois fonctions. C'est ainsi que, grâce à l'utilisation des schèmes chrétiens, Énée est devenu un roi fondateur, capable de transcender ses faiblesses afin de guider son peuple et de fonder une civilisation qui, selon le vœu de saint Augustin, assure à ses membres la paix et l'ordre et, à un autre niveau, le salut éternel.

에네아스를 그리스도에 비견하는 로지에의 주장을 여기에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뒤메질의 세 기능 도식은 에네아스가 대표하는 군주의 면모를 설명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에네아스에게 부여된 비겁과 탐욕의 약점뿐만 아니라 이후 살펴볼 몽토방 성과 트로이아 막사, 더 크게는 전쟁과 사랑의 주제가 2기능과 3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지에의 주장처럼 에네아스의 현명함을 1기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뒤메질의 도식에서 1기능은 신과 제사, 신이 보장하는 권력을 의미하고, 앓과 지혜를 포함하더라도 그것은 신성함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된다. 세속적인 성격을 띠는 그의 현명함을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세가 고대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에네아스』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이교도 신들의 개입을 체계적으로 제거, 축소한다.⁴⁷⁾ 특히 신화적인 요소, 신탁과 계시들이 대부분 삭제되어 에네아스의 여정에 깃든 신적인 후광의 농도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고대의 1기능이 그대로 부여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에네아스의 현명함은 그가 2기능과 3기능을 실현하는 데 기반이 되는 덕목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에네아스의 복권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 로지에는 선물 증정의 에피소드를 분석하여 탐욕의 낙인을 관대함의 증표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디도를 만났을 때 에네아스의 처지는 자신에게 선물을 분배하며 도량을 과시하는 일반적인

47) *Ibid.*, pp. 299-300.

48) *Ibid.*, pp. 177-185.,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p. 83-90 참조. 『에네아스』에서는 베누스만이 유일하게 개별적인 인격신으로서 서사에 개입하지만, 이때 그녀는 여신이라기보다 어머니로서 에네아스를 돕는다. 신들의 개입이 축소된 부분은 본 논문의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군주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세느리가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도망자, 유배자, 방랑자 신분으로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그는, 동맹을 맺거나 전쟁을 감내해야 하는 양자택일을 끊임없이 강요받았다. 전쟁을 피하고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선물의 증정은 생존과 직결된 자구책에 가까웠던 것이다.⁴⁹⁾ 하지만 오랜 항해와 표류를 반복했던 그가 왕들에게 증정할 귀한 선물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선물들은 트로이아 왕가의 방계이자 거대한 영토를 상속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산에서 유래한다.⁵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보물과 재산을 챙기던 그의 행위는 관대함의 증표보다도, 미래를 내다보고 위기에 대비할 줄 알았던 해안과 냉철한 지성의 결과물로 다시 해석될 수 있다.

리뷔아의 해안에서 보여준 그의 연설도 이를 방증한다. 그는 인간사의 부침(浮沈)을 역설하며 무리를 격려한 후 바로 식량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꾼다. “우리의 수는 많고 식량은 얼마 없으니 자원을 찾아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곳이 참으로 황량한 곳이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그는 “여기에서 식량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조금도 머무르지 말고 바다로 나서 다른 고장을 찾자”고 제안한다. “식량과 민물, 고생하는 말들을 위한 건초와 귀리가 더 잘 발견되는 곳으로.”⁵¹⁾ 인간사의 부침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짧게 격려를 끝냈던 원작의 연설에(1권 vv. 198-207)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식량을 가리키는 다양한 단어의 반복과 강조는 에네아스가 자원의 점검, 탐색, 보급에 얼마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폭풍우를 뚫고 당도한 해안에서 충분히 쉬기도 전에 지침을 정하고 떠날 것을 상정하는 놀라운 판단력을 보이고 있다.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사슴을 사냥하여 무리에게 양식을 보급

49) Marie-Luce Chénier, “Le motif des présents dans le *roman d’Enéas*”, *Relire le “Roman d’Enéas”*, dir. J. Dufournet, Champion, coll. “Unichamp”, 1985, pp. 46-47.

50) 라티누스 왕에게 준 선물들에는 디도에게 받은 물건이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트로이아에서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디도에게 준 선물은 전부 트로이아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51) “Grant gent somes et si n’avons, / de vitaille se molt po non ; / il nos estuet garison querre, / mais molt voi ci estrange terre ; / [ne sai se onques i ot blé, / ne borc ne vile ne cité ;] / unques plus salvage ne vi. / Se del vivre ne trovons ci, / n’i a noiant del sejourner, / mais del metre nos an la mer, / et requeron autre contree. / o vitaille soit mialz torvee, / eve dolce, foin et aveine / as chevaux qui vivent a poine.”(vv. 343-356)

하였던 에네아스의 행동은 이로 인해 원작과는 또 다른 뉘앙스를 부여 받는다.

비슷한 장면을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슴 사냥 에피소드의 끝은 포사마이가 말한 것처럼 사슴 고기를 조각내 씹어지는 3770행이 아니다. 작품의 화자는 일종의 후일담을 덧붙인다. 그들은 고장의 전리품을 모았고 모든 것을 훔치고 약탈하였고, 밀을 천 마리의 짐바리 짐승에 실어 성으로 물러났다. 그 결과 그들은 “성 안에서 자리를 유지하고 거대한 포위 공격을 능히 버틸 수 있었다.”⁵²⁾ 에피소드의 결말은 놀랍다.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은 트로이아 진영의 탐욕이나 오만함, 신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에피소드가 아니다. 비록 아스카니우스가 의도한 바인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는 사슴을 획득한다는 상징적 행위를 공성전과 약탈까지 확장하여 구현하고, 명예도, 신앙의 수호도, 왕국도 아닌 양식을 문제 삼음으로써 에네아스가 로랑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기본 요소를 제공한다. 에네아스가 수배에 달하는 튀르누스의 군세에 맞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수성(守成)에 집중하여 시간을 벌고 적의 기세를 꺾는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에 숨겨져 있었다.

트로이아 멸망의 날 드러난 에네아스의 탐욕은 선물 증정, 리비아 해안의 연설,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과 맥을 같이하면서 전략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군주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동시에 저자가 『에네아스』에서 그려내는 전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서사시와 근본적으로 갈라서는 소설 속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 것일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계열을 이룬다. 그렇다면 에네아스의 또 다른 낙인, 도주도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에네아스의 도주는 저승 방문 에피소드에서 극적인 변신을 겪기 전에 주인공의 약점과 최초의 죄를 상징하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의 어머니 베누스가 전령이 되어 전달한 신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vv. 32-41), 중세 봉건제의 모델에 따라 묘사된 약식 가신회의에서 집단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서(vv. 61-77), 모종의 초월성을 담보하는 별의 인도가(vv.

52) "Quant exploitié ont lor afaire, / si se remistrent el repaire, / la proie acoillent del païs, / tot ont robé et tot ont pris, / mil somiers ont chargé de blé, / li escuier s'an vont trossé; / bien grant eschec ont le jor fait. / An lor chastel se sont retrait; / que d'un que d'el l'ont si garni / que plus d'un an tot aconpli / se poënt il dedanz tenir / et un grant siege maintenir."(vv. 3771-3782)

79-82) 결정적인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⁵³⁾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덧붙이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의 도망이 “그리스 인들이 곧 다가올 것이며 그들에 맞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임을 잘 알았”던⁵⁴⁾ 냉정한 판단의 결과라는 것이다.

저승에서 안취세스의 계시를 받고 두려움을 잊은 에네아스였다면 트로이아를 등지지 않았을까? 몰락하는 도시에서 끝까지 싸워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중세 시대 일반적인 기사 계급의 입장에서 에네아스의 도주가 경악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앞서 강조하였듯이 에네아스는 기사인 동시에 군주이며, 그것도 힘보다 지혜에 비중을 둔 군주이다. 저자는 디튀스와 다레스의 전통뿐만 아니라 베르길리우스의 전통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에네아스의 도주를 ‘군주의 냉정한 판단’으로 해석함으로써 비겁함의 낙인을 과감히 지우고자 시도한다. 로지에의 주장처럼 에네아스가 두려움을 느낀 것도, 저승 방문 이후에야 두려움을 극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겁에 질려 도주하였다는 작품 내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재화를 챙기고 3천 명이 넘는 가솔과 전사들을 무사히 대피시키는 침착함을 보여준다.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거리를 두며 바라보았던 에네아스의 태도는⁵⁵⁾ 도망 및 비겁과 결부되는 방관적 태도보다는⁵⁶⁾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관찰자의 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⁵⁷⁾

53) 포사마이는 로지에와 모라-르브링의 주장을 인용하며 해당 근거들을 하나씩 소개해준다. 이들에 따르면 도주는 에네아스가 아니라 집단의 결정이며, 『아이네이스』에서 보존된 드문 전조의 하나인 별이 이 결정의 합법성을 확인해준다. 이때 별은 마테오 복음의 동방박사의 별을 연상시키고 기독교의 신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신적인 힘이 주인공을 인도한다는 점, 에네아스가 비겁하다는 비난을 벗고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p. 73-74.

54) "bien set qu'il li aprismeroient, / ne se porroit vers als deffendre." (vv. 46-47)

55) "si regarda vers lo donjon / et vit la grant destrucion;" (vv. 29-30)

56) “에네아스가 무대에 들어설 때, 그는 순전한 방관자이다.”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108.

57) “에네아스는 트로이아에서 싸움의 한복판에 있고, 개인적인 숙고로 현 상황에 출구가 없다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이 도주라는 것을 확인한다.”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84. 포사마이는 D 수고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하며 A 수고의 에네아스가 싸움의 한복판에서 다소 떨어진 집에 머물러 있다고 비난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녀의 분석은 A 수고의 에네아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들려준 에네아스의 이야기 역시 도시를 떠나라는 베누스의 명령과 더불어 결국 “상황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의 판단이 도주의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⁵⁸⁾ 그의 도망은 전적으로 신들과 어머니의 명령에 순응하기 위해 행해진 행위도, 두려움에 질려 즉흥적으로 벌어진 행위도, 때문에 어떤 변신이나 면죄부가 반드시 요구되는 행위도 아니다. 그는 상황을 관찰하고 파악하여 깨달은 후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 후일을 도모하는 그의 도주는 그 자체로 훌륭한 전쟁의 수행 행위이다. 작품의 화자는 탐욕과 마찬가지로 그의 비겁에도 어떠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덧붙이지 않는다.⁵⁹⁾ 정당성은 이미 행위에 내재하며 그리하여 소설의 시작에서 묘사된 에네아스의 두 행동, 두 약점은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암시하고 이를 통해 두드러지는 주인공의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설 작가의 전쟁관이 서사시의 전쟁관과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3행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메넬로스)는 영토와 전 왕국을 폐허로 만들었다.”(v. 3) 1행과 4행이 22-24행에서 반복되어 파리스의 심판과 결합하고, 2행이 5행으로 이어져 디도에게 들려준 에네아스의 이야기로 풀이된다면, 3행은 6-21행으로 발전하고 이후 펼쳐질 모든 전쟁의 분위기를 정초함으로써 『에네아스』에 고유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한다.

메넬로스는 탑들과 주탑을, 모든 것을 파괴하였고, 나라를 불태웠으며 성벽을 허물었다. 그 안의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다. 그는 온 도시를 파괴하여 불과 화염에 내던졌다. 그리스 인들이 도시민들을 사로잡았고, 도시민들은 누구도 그들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러한들 치욕스럽게 죽을 뿐이었다. 그들은 대공도 제후도 봐주지 않았다. 혈통도, 대담함도, 가신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온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다.] 프리아미스 왕도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었다. 이제껏 그토록 큰 학살은 없었다.(vv. 6-21)

tot cravanta, tors et donjon, / arst le païs, destruint les murs, / nus ne estoit dedanz seürs ; / tote a la vile cravantee, / a feu, a flame l'a livree.

58) "Ge vi que altre ne poit estre ;"(v. 1190)

59) 로지애가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화자는 그의 두려움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변호하는 평가를 덧붙인다.(v. 31.)

/ Li Greu prenent les citeains, / nus n'eschapot d'entre lors mains / ne l'esteüst morir a honte; / n'esparnoient prince ne conte; / ne lor avoit mestier parage / ne hardemant ne vasalage, / [et nen estoit leus de deffendre. / Tote ert la vile mise en cendre.] / Ocis i fu li reis Prianz / o sa fame, o ses anfans: / unc ne fu mais tant grant ocise.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혹한 전쟁, 삭막하리만치 건조한 전쟁의 모습이 트로이아의 마지막과 소설의 시작을 장식하며 펼쳐진다. 속임수로 점령에 성공한 메넬로스는 순식간에 도시를 폐허와 잿더미로 만들고 파괴와 학살을 완성하였다. 이 모든 것이 15행 안에서 이루어졌고, 읊조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파괴의 극단적인 신속함. 입 밖으로 꺼내지자마자 파괴는 완성되었다.”⁶⁰⁾ 대공도 제후도 평등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혈통도, 대담함도, 가신들도 조금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봉건 시대에 가장 존중 받았을 가치들이 짧은 구절 속에 부정되어 무기력하게 물러난다. 『아이네이스』가 한 권을 전부 트로이아 멸망에 할애한 데 반해⁶¹⁾ 『에네아스』에는 위대한 도시의 안타까운 슬러짐도, 영웅들의 마지막 분투도, 어찌할 수 없는 살육과 화재의 현장도, 주인공의 분노와 슬픔, 눈물어린 헌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후의 왕 프리아무스 일가의 비참한 죽음은 간략히 처리된다.⁶²⁾

프티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이 싸움과 전쟁에 대한 저자의 몰취미를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⁶³⁾ 『에네아스』의 저자는 전쟁의 주제를 역동적인 싸움의 모습이나 특별한 수사술로 채워 넣지 않는다. 숭고함이나 용맹, 명예의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몰취미나 전쟁 주제의 축소, 기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이다. 저자는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을 적재적소에 그려낸다. 메넬로스와 율릭세스의 트로이아 전쟁은 에네아스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의 전쟁은 보물을 챙기고 도망치는 긴박함 속에서, 미지의 해안을 탐색하는 세심한 주의 속에서, 고장의 지배자와 연회를

60)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107.

61) 『아이네이스』 2권 총 805행.

62) 원작에서 프리아무스 왕과 일족의 죽음은 50행에 걸쳐 묘사되고, 비극성의 정점을 장식한다.(2권 vv. 506-558)

63) “저자 자신이 싸움의 묘사에 대한 몰취미를 강조한다.” M. Rousse, “Le Pouvoir, la prouesse...”, pp. 159-160. 『에네아스』의 저자가 전투의 묘사를 생략하며 전쟁의 주제를 축소한다고 분석한 프티의 주장은 앞서 본문 9-10쪽에서 언급하였다.

별이는 웃음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에네아스』의 전쟁은 도덕적 명분이 승리를 담보하는 곳이 아니며, 기사들이 혈통이나 용맹을 가리는 곳, 명예가 기록되고 축적되는 곳도 아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허무한 죽음이 쏟아질 수 있는 곳, 그래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이를 전쟁의 기술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전쟁의 기술은 그간 전쟁의 서술로 여겨지지 않았던 많은 장면들이 어떻게 탁월한 전쟁 수행의 장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트로이아 전쟁과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에서 암시된 소설적 전쟁의 면모는 로랑트 전쟁에 이르러 본격화될 것이며 에네아스가 펼치는 전쟁의 기술은 거대한 전장 속에서 꽃피어날 것이다.

1.3. 로랑트 전쟁

1.3.1. 몽토방

이탈리아에 도착한 에네아스는 리비아의 해안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vv. 357-364, 591-598) 고장을 파악한 후 사절을 파견하여 도시의 지배자와 화평을 맺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누가 고장의 주인인지를 묻고 자세히 조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라티누스 노왕(老王)”이라는 것과 “도시의 이름이 로랑트”이며 “여기에서 별로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아낸다.(vv. 3119-3126) 이에 그는 “30명의 기사를 사절로 선발하여 자신의 전갈을 맡기고, 라티누스 왕에게 평화와 화합과 우애를 구하고, 그의 땅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낸다.(vv. 3127-3132) 자신의 입장에 “힘을 주고 뒷받침하기 위해 귀한 선물을 보냈”음은 물론이다.(vv. 3133-3134)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 일련의 과정은 정보 수집과 외교 행위 등 에네아스가 군주로서 행하는 작지만 중요한 작업들에 해당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사절을 보낸 후의 행동으로, 항해 길에서 잃어버렸던 무리를 다시 만나 기뻐하던 리비아에서와 달리 그는 지형을 탐사하고 성을 축조하기 시작한다.

그의 처지에서 전쟁용 성채를 쌓는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행위이다. 실제

로 튀르누스는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과 함께 계속하여 이를 문제 삼아, 트로이아 인들이 허락도 없이 성채를 짓고는 이를 기반으로 로랑트의 성채를 탈취하였다며 전쟁의 책임을 트로이아 인들에게 돌린다.(vv. 3837-3842, 3885-3888, 4142-4144) 하지만 바로 떠날 생각도 있었던 리뷔아 해안에서와 달리 에네아스는 식탁을 먹는 사건을 통해 그가 약속의 땅에 도달하였음을 깨달았고,⁶⁴⁾ 더 이상의 항해는 없으며 이곳에 영구히 거주할 것임을 선언한바 있었다. 또한 그는 꿈과 저승에서 아버지 안퀴세스의 계시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 대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고(vv. 2177-2182, 2185, 2981-2984), “가슴 속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끼며, 트로이아 멸망의 고통을 잊고, 그가 땅을 얻기 전에 치르게 될 전투와 겪어야 할 고난에 골몰”한바 있었다.(vv. 2991-2996) 화평 시도와 동시에 진행된 몽토방 성의 축조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에네아스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최악의,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다. 몽토방 성이 전쟁을 앞당긴 것처럼 보이지만, 라빈과 영토를 다투는 경쟁자이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어떤 구실이라도 잡을 태세가 되어 있었던 튀르누스의 존재는(vv. 3495-3509), 안퀴세스의 계시처럼 전쟁을 필연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몽토방 성은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곳에는 에네아스가 로랑트 전쟁의 전반부에서 펼칠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축성 과정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면모를 드러낸다. 얇은 도랑과 병영 모양의 방벽, 둔덕으로 만족하였던 원작과 달리(7권 vv. 157-159) 중세 소설은 20행에 걸쳐 보다 상세한 축성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에네아스는 바닷가 절벽 쪽을 살펴보러 갔다. 그는 산꼭대기에 펼쳐진 드넓은 평원을 보았다. 샘이 한가운데에서 솟아나 개울 지어 바다로 흐르니, 그곳은 천혜의 요새였다. 그는 그곳으로 전 무리를 이끌고 가, 언덕 위에 바다를 면하는 성을 설계해보였다. 그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해자와 총안과 방책을, 그리고 도개교를 만들었다. 20일이 지나기 전에 그들은 성채를 세우고, 견고하고 높은 주탑을 지어 어떠한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였

64) 안퀴세스는 에네아스에게 식탁을 먹는 사건을 통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계시를 내렸다. 에네아스와 트로이아 인들은 로랑트 땅에 도착하였을 때 오랫동안 굶주린 나머지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였던 빵 껍질까지 먹어치운다. 아스카니우스가 이를 보고 자신들이 식탁까지 먹었다는 농담을 하였고, 에네아스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음을 깨닫는다.(vv. 3047-3086)

으니, 거대한 전투 없이는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었다.(vv. 3145-3163)

et Eneas ala garder / par les faloises de la mer, / se vit une molt large
plainne / qui ert en som une montainne; / une fontaine anmi sordoît /
dont li ruissiaus an mer coroît; / forz ert li leus naturalmant. / La amena
tote sa gent; / devers la mer sus el moncel, / la lor conpasse un chastel,
/ et nuit et jor ont tant ovré / a la tranchiee et al fossé, / as bretesches
et as paliz / et a faire ponz torneïz, / ainz que fussent vint jor passé /
orent il fait tel fermeté / et un donjon et fort et halt, / qu'il ne
creinstrent negun asalt: / n'erent mes pris sanz grant bataille.

에네아스는 먼저 지형을 탐색하여 수원이 확보되고 바다와 개울이 자연스럽게 방벽을 이루는 산 정상에 건설 장소로 선택한다. 그곳은 천혜의 요새였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트로이아 인들에게 성을 설계해보였고, 그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강력한 성채를 만들었다.⁶⁵⁾ 실제로 그 안에 갇힌 투르누스가 강으로 뛰어들어 간단히 벗어날 수 있었던 『아이네이스』의 방어 시설과 비교했을 때, (9권 vv. 815-817) 몽토방은 자연 조건을 이용하고 성채의 요소를 모두 갖춘 강력한 방어 요새였다.⁶⁶⁾

이곳을 거점으로 에네아스는 전쟁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는 “그곳으로 모든

65) 포사마이는 이러한 행위에서 에네아스가 “이미 왕이며”, “지도자이자 보호자”의 풍모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푸아리옹의 논의를 인용하여 이곳이 『에네아스』의 핵심에 다가서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에네아스를 앙글로-노르망 왕조의 선조로 만드는 동시에 ‘군주의 거울’로 만드는 것, 그것은 푸아리옹이 말한 것처럼, 솔즈베리의 존이 『폴리크라티쿠스』의 서문에서 고대인들의 모범을 따라 덕을 권유하는 것과 같다.”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82.

66) 이는 고대 로마와 12세기 중세 사이의 축성 기술의 변화가 반영된 탓이 크다. 하지만 『아이네이스』 작품 내에서도 한창 건설 중인 카르타고의 거대한 성벽과 성채의 묘사(1권 vv. 365, 420-425), 라티움의 성탑과 높은 지붕들에 대한 묘사가(7권 vv. 160-161, 170-173)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아이네아스가 지은 방어 시설이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에네아스』의 몽토방은 원작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다른 중세 작품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채 건설, 건설 지휘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에네아스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한다. “『아이네이스』에서 전거를 찾기 어려운 이 묘사는 프랑스 시인이 오롯이 고안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여기에서 당대 현실만을 참고했던 것 같다.” E. Hoepffner, “L'Énéas et Wace”, *Archivum Romanicum*, vol. 15, 1931, p. 265, 주석 1번 참고.

식량과 무구와 군사 장비 일체를 끌고 와”(vv. 3164-3165) 비축한 후 전쟁에 대비한다. 에네아스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소홀함을 보이지 않았다. 튀르누스와 그의 동맹군은 트로이아인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진군하여 기습을 꾀하지만 “에네아스는 튀르누스가 수하의 부하들을 모았다는 것을 잘 알았”고 이를 알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vv. 4244-4246)

그는 밤낮으로 일을 시켜 성을 확실하게 강화시켰다. 그는 도망칠 의향이 없었다. 충안을 충분히 방비하고 보루(堡壘)를 다시 세우고 충안을 낸 통로를 보강하게 하였으며 그 주위에는 방책 삼아 잘 버린 단창(短槍), 깃발, 창, 방패들을 세우게 하였고, 거대한 바위와 날카로운 말뚝을 두게 하였다. 큼직한 양날 도끼와, 날카로운 손도끼를 박아 넣고 위에는 보호 덧창을, 그 아래에는 노포(弩砲)를 만들게 하였다. 밖에는 커다란 전차들을 갖다 붙여 누군가 성을 공격하고 그 위로 오르려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씩 굴러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것에 맞은 자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주탑에 백 개의 기를, 가운데에 자신의 기류(旗旒)를 달았다. 가장자리에 금띠를 두른 자줏빛이었다. 그것은 헥토르가 트로이아에서 프로테슬로스를 죽였을 때 획득한 것으로, 그는 첫 번째로 기마 전투를 벌인 자였다. 그는 그의 군대와 함께 가장 먼저 와서 기마 전투를 하고는 가장 먼저 죽었다. 기류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 천여 개의 삼각기에 갖은 방식으로 금 자수가 놓여 삭풍에 펄럭였다. 성은 무척이나 가공할 만한 것으로 보였고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식량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잘 무장된 용맹한 사내들은 전쟁으로 단련되어 있었다. 성은 흰 땅 위에 지어져 트로이아 인들은 성을 몽토방이라 불렀다. 에네아스는 온 성채를 방비하고 정돈하는 것을 마친 다음 방어를 담당할 자들과 성에 머무를 자들을 지정하였다. 곳곳에 그는 노포의 사수와 병사와 궁수를 배치하였다. 그는 천 명의 기사를 무장시켰고, 그들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 밖에서 군대에 맞서 전투에 뛰어든 것이었다.(vv. 4247-4296)

et nuit et jor faisoit ovrer / et son chastel bien afermer ; / il n'avoit
talant de foïr. / Ses bretesches fist bien garnir / et adrecier les monteors
/ et afermer les aleors ; / tot anviron par les paliz / fist andrecier espiez
forbiz, / ansoignes, lances et escuz, / granz pierres metre et peus aguz ; /
enhaster fist granz besagües / et deleoires esmolües, / alvens fist faire de
desus / et les lancieres au pié jus ; / granz chars fist defors atachier, /
que, quant vanra lo depecier / et cil voldront amont monter, / que l'an lor

laist les chars aler : / qui conseüz an estera, / a grant poines an resordra.
 / Cent ansoignes mist el donjon / et en mileu son confanon, / qui fu de
 porpre o listes d'or ; / soz Troie le conquist Hector, / quant il Proteselaus
 ocist, / qui la premiere joste fist ; / premiers i vint o son esforz, /
 premiers josta, premiers fu morz. / Molt ert riches li confanons ; / mil que
 d'ensoignes de penons / d'or broudees de mainte guise / i venteloient a
 la bise. / Molt par senblot fiers li chastiaus / et a mervoille par ert biaux,
 / de viande ert bien raanpliz / et de bons homes bien garniz, / qui furent
 molt bien duit de guerre. / Li chastiaus sist an blanche terre ; / por ce
 distrent li Troïan / que il avroit nom Montauban. / Quant Eneas ot
 apresté / et son chastel tot ordené, / çaus a loëz qui deffandroient / et
 çals qui el chastel seroient ; / partot ot mis arbelestiers / et ses serjanz et
 ses archiers ; / mil chevaliers aparolla, / que, des que li besoinz sera, /
 qui tendront lo tornoïement / fors del chastel contre la gent.

원작에 없는 이 가필은 『에네아스』의 전쟁이 전투 이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역동사 ‘faire’의 반복으로 작가는 성 곳곳을 누비며 재정비 작업을 지휘하는 에네아스를 느끼게 하며, 축성 과정 이상으로 꼼꼼하게 보강된 성채는 가공할 위용을 뽐낸다. 식량 비축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되고,⁶⁷⁾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각각 담당해야 할 일을 나누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군주의 면모가 강조된다. 그리하여 몽토방 성은 원거리와 근접거리 양면을 포괄하고 수성전과 야전 등 모든 전투 상황에 대비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거듭난다. 에네아스는 여기에 더해 화려하게 수놓아진 금빛 깃발들을 수없이 꽂아 기세를 높이고, 트로이아의 영광을 간직한 헥토르의 전리품 기류를 한 가운데에 달아 이곳 몽토방에서부터 트로이아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과거의 영광이 여기에서 재현될 것임을 선언한다. 첫 번째로 군대를 끌고 와 전사한 프로테슬로스의 에피소드는 튀르누스에 맞서는 에네아스의 의지를 드러내며, ‘Montauban’과 ‘Troïan’의 각운은 성의 상징적 중요성을 뒷받침한다.⁶⁸⁾

67) 식량에 대한 언급은 베누스와 뵐캉의 대화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진바 있다. “그렇지만 에네아스는 1년을 능히 버틸 수 있어요. 식량이 잘 비축되어 있기 때문이죠.”(vv. 4324-4325) 이 언급은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68) 몽토방의 상징적 중요성은 『아이네이스』의 알바 도시와 비견할 만하다. 하신 티베리누스는 아이네아스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계시에 대한 근거로 아이네아스가 잠에서 깨면 강가의 참나무 밑에서 하얀 암돼지와 하얀 돼지새끼들을 발견하게 될

베누스가 보낸 뿔강의 무구를 받을 때까지도 에네아스는 대비를 계속 이어 나간다. 그는 “포위에 대비하고 보다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성채를 맡을 사람에 대해 준비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vv. 4551-4554) 그러나 베누스가 무구와 함께 팔랑테의 외양테르 왕에게 원군을 요청하라는 권고를 전하자 에네아스는 작전을 변경한다. 그는 지체 없이 떠나면서(vv. 4601-4602) “그들에게 결코 혼란에 빠지지 말고 싸우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문 밖으로 단 한 명도 나오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도록 간곡하게 부탁한다.”(vv. 4603-4608) 에네아스가 안배한 몽토방의 철저한 방비와 집요한 수성 전략은 튀르누스와 여섯 차례의 전투 전반에 걸쳐 빛을 발한다. 트로이아 인들은 튀르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무구를 장비하러 달려가고, 방어할 태세를 갖추며, 통로와 충안과 탑들로 올랐”고, “도개교를 올리고 성문을 걸어 잠그”는 등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인다.(vv. 4839-4844) 겁쟁이라 욕하는 튀르누스의 도발에도 곳곳하게 제자리를 지켜 튀르누스는 첫 공격에서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한다. 니쉬스와 외리알이 죽은 후 시작된 2차 공격에서도 트로이아 인들은 도발을 무시하고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vv. 5286-5288), 튀르누스는 어쩔 수 없이 총공격을 감행하지만 성의 축조와 방비에 언급된 방어 시설들이 싸움 묘사 곳곳에 등장하며 로랑트 군을 막는다.(vv. 5331-5340) 이후 계속된 두 번의 공격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튀르누스는 물로도 끌 수 없는 그리스화약을 동원하나 트로이아 인들은 식초로 불을 꺼뜨림으로써 이마저도 막아낸다.(vv. 5343-5354) 튀르누스는 결국 후퇴를 명하고, 로랑트 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vv. 5355-5362)⁶⁹⁾

이는 같은 수성 전략을 맞닥뜨렸음에도 피해가 강조되기보다 방패, 화살, 불과 연기, 사다리 등을 활용하며 대등한 선전을 보여준 원작의 로랑트 군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9권 vv. 503-524) 또한 원작의 화자는 무사 여신에게 청하며 “내 이제 그때 그곳에서 투르누스가 칼로 어떤 파괴와, 어떤 살육을 자행했고, 전사들이 저마다 누구를 오르쿠스로 보냈는지 노래하려 하오니, 나와 더불어 전쟁의 거대한 두루마리를 펼쳐주소서!”라고 말함으로써(9권 vv.

것이며, 바로 그곳이 아스카니우스가 세울 알바 도시의 터라고 알려준다.(8권 vv. 42-48) 알바는 로마의 전신이 되는 도시이며 몽토방과 마찬가지로 ‘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에네아스』에서 알바는 그 중요성이 몽토방에 흡수되어 이름만 언급될 뿐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다.

69) 수고 A, B에서 생략된 5359-5360행에 따르면 튀르누스 군은 3천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525-529) 전쟁의 초점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분명히 한다. 『에네아스』와 달리 『아이네이스』는 몽토방 수성보다 투르누스의 공성을 강조하며, 그가 어떤 전사들을 죽였는지,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그의 무훈을 드높인다.

맨 먼저 투르누스가 불타는 횃불을 던져 탑의 옆구리에 불을 붙였다. [...] 한편 달리기에도 훨씬 능한 퀴쿠스는 적군과 무기 사이로 요리조리 용케 피하며 방벽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손으로 흉벽과 전우들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를 투르누스가 추격해와서 창을 던지고는 의기양양해하며 이렇게 꾸짖었다. “이 얼빠진 자여, 네가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줄 알았더냐?” 이렇게 말하자마자 투르누스는 매달려 있는 그를 붙잡아 낚아챘다. 그러자 방벽의 상당 부분이 그와 함께 떨어져 나왔다. 그 모습은 마치 유피테르의 무기를 날라주는 새가 토끼나 눈처럼 흰 백조를 구부정한 발톱으로 낚아채어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나, 또는 마르스의 늑대가 우리에서 새끼 양한 마리를 낚아채어 가자 어미가 애처로이 울어 대며 그것을 찾을 때와도 같았다. 사방에서 함성이 일며 적군이 몰려와 해자들을 흠으로 메웠고, 다른 자들은 불타는 횃불들을 방벽의 꼭대기로 던져 댔다. 일리오네우스는 문에 불을 놓으려고 다가오던 루케티우스를 산에서 뜯어낸 거대한 덩어리 같은 바윗돌로 쳤다. 에마티온은 리게르가 치고, 코뤼나이우스는 아실라스가 땅에 뉘었는데, 리게르가 창에 능하다면 아실라스는 멀리서 몰래 맞히는 활에 능했다. 오르튀기우스는 카이네우스가, 승리자 카이네우스는 투르누스가 죽였다. 투르누스는 또 이튀스와 클로니우스와 디옥십푸스와 프로몰루스와 사가리스와 성탑들의 꼭대기에 서 있던 이다스를 죽였다.(9권 vv. 535-575)⁷⁰⁾

물론 『에네아스』도 4차 공격부터는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튀르누스는 성밖 언덕에 위치한 화살탑을 불태우는 데 성공한 후 계속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⁷¹⁾ 4차 공격을 재개하고, 이때부터 튀르누스의 용맹이 부각되어 트로이아 진영에 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차이가 감지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스카니우스와 일리오네스의 존재이다. 아스카니우스와 일리오네스는 위급한 국면마다 연설로 트로이아 인들을 고무함으로써 사태를 반전시킨

70) 이 대목은 서사시의 전형적인 전투 장면의 하나로서, 원작과 중세 소설 간의 전쟁 묘사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71) 공격을 재개하자마자 튀르누스 군의 전사자는 만 명에 이르게 된다.(vv. 5448-5449)

다. 성문이 뚫릴 뻔한 것을 막아낸 아스카니위스의 선동은 원작에 없는 가필이며,⁷²⁾ 달아나는 트로이아 인들을 다시 싸우게 한 일리오네스의 연설은⁷³⁾ 원작의 브네스테우스의 그것을 대체한 것이다.(9권 vv. 778-788) 둘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아스카니위스는 에네아스의 아들이고 일리오네스는 디도와 라티위스 모두에게 에네아스의 사절 역할을 해왔다.(vv. 561-598, 3175-3222) 이들은 에네아스의 대리인이며, 특히 에네아스의 말을 대신한다.

미세하지만 중요한 이 두 변화는 싸움의 시작에서부터 여러 번 강조된 변화와 결합한다. “치욕과 분노가 그들에게 어우러져 싸우라고 재촉해도 완전무장한 채 문에 빗장을 지르고 지시대로 탑 안쪽에서 적군을 기다”린 원작의 트로이아 인들은(9권 vv. 44-46) 중세 소설에서 적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겁쟁이들로 변모한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지도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⁷⁴⁾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갈팡질팡은 계속해서 등장한다. 첫 공격을 넘긴 후 아스카니위스와 가신들은 잠들지 못하고 긴밀히 회합을 연다.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에 두렵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⁷⁵⁾ 니쉬스는 에네아스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며 보다 분명하게 이를 표현한다.

에네아스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더 무서워 할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잘 압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경외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훌륭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명하는 것을 행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군이라 하더라도, 지도자가 없다면, 금세 흩어져 패하고 괴멸하지 않을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에네아스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면, 우리는 보다 대답해줄 것이고,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를 따를 것이며, 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vv. 4995-5010)

72) “[...] petit s’en falt / que cil defors n’i sont antré, / ne fust que cuer lor a doné / Ascanius, qui s’escria / et qui forment les rehaita, / dont i fierent de maintenant.”(vv. 5436-5441)

73) “Ilionés i est venuz, / qui del donjon ert descenduz ; / as Troïens a escrié : / ‘Que fetes vos, coart prové, / seroiz vos donc si plenement / conquis ne mort par tant de gent? / Que fetes vos? Tornez ariere, / nes esparnez ; / chascuns i fiere.’ / Il a ‘Troie’ crié, s’enseigne, / cel d’aus n’i a qui puis s’i foigne / qui n’i fiere demenois tant, / qu’il vont ariere reculant ;”(vv. 5561-5572)

74) “ne avoc aus n’ont lor seignor ;”(v. 4849)

75) “an esfroi sont et en error / de ce que il n’ont lor seignor ;”(vv. 4981-4982)

Se Eneas fust o nos ci, / quel seüssent nostre enemí, / nos an fusiens
 molt plus doté, / et si sai bien de verité / que molt nos porrion deffandre,
 / se avions a cui antandre, / qui fust sor nos, que cremisson; / qu'il
 comandast nos feïsson; / ja ne verroiz si grant conpaigne, / se ele n'a
 son chevetaigne, / ne soit molt tost esparpaillie, / desconfite, tote plaissiee.
 / Se Eneas fust ci o nos, / nos an fusson plus corajos, / del tot
 antandisiens a lui, / si an fusson plus fort, ce cui.

『에네아스』에서 5차 공격 이후 일어난 상황의 역전은 튀르누스의 용맹, 병력의 수적 차이 이외에도 지도자의 부재가 야기한 두려움의 축적, 지휘력 부족이라는 또 다른 원인으로 설명된다. 트로이아인들의 도망은 개작된 작품의 맥락 속에서 에네아스가 방비한 몽토방 요새가 더 이상 튀르누스를 가로막지 못하고, 에네아스가 당부한 수성 전략이 판다뤘스와 비티아스 형제에 의해 어겨졌을 때(vv. 5498-5503) 발생하였다. 지도자의 부재에 더해 지도자의 유산들이 모두 철폐된 결과인 셈이다. 아스카니우스와 일리오네스가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의 역할을 대신하여⁷⁶⁾ 가까스로 방어에 성공하지만 그 다음날의 6차 공격부터는 버티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한다.(vv. 5599-5601) 때마침 에네아스가 원군과 함께 도착하여 튀르누스의 배후를 노리는 포위 전술을 펼치지 않았다면 몽토방은 큰 타격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네 배가 넘는 적에 맞서 열다섯 배의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한 수성전은(vv. 6565-6568) 에네아스의 힘이 그 자신의 무력이나 용맹한 기사들의 숫자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에네아스의 2기능은 정보 수집, 지형 탐색, 축성술, 자원 비축, 용병술, 전략과 전술, 그의 대리인이 펼친 선동과 격려, 지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이는 한마디로 전쟁의 기술이라 요약할 수 있다. 루스는 저자의 전쟁에 대한 몰취미를 강조하면서 의도치 않게 새로운 전쟁의 모습에 도움을 줄 분석을 남긴다. “무훈과 ‘기사도’에 대한 비판은 이 부분에서 다른 예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무훈의 관점에서 전투에 임하는 에네아스와 튀르누스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관심은 홀

76) 작품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에네아스가 “포위에 대비하고 보다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성채를 맡을 사람에 대해 준비하”였던 것을 생각하면(vv. 4550-4554), 에네아스가 임명한 책임자는 아스카니우스와 일리오네스일 가능성이 높다.

를한 일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더 잘 지휘하고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된다.”⁷⁷⁾

물론 에네아스가 원군과 함께 도착한 이후의 싸움은 서사시적 전투로 흘러가고 그곳에서 에네아스는 용맹을 뽐낸다. 전쟁의 기술이 개인의 무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에네아스가 용맹함과 무위를 갖춘 전사라는 점은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프티가 지적한 것처럼 주요 인물 이외의 전투들이 삭제된다는 점, 야전에서 드러나는 에네아스의 무훈이 빌랑의 무구에 대한 특별한 강조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vv. 5647-5656, 5867-5869, 5887-5900) 『에네아스』가 어떤 전쟁의 모습을, 주인공의 어떤 면모를 강조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세 작품은 몽토방 성을 통해 전쟁의 기술을 압축적으로 전개하면서 원작은 물론 다른 중세 작품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쟁 묘사를 펼치고, 힘보다 기술을 활용하는 에네아스의 새로운 면모를 돋보이게 만든다.

1.3.2. 트로이아 막사

몽토방 전투의 승리가 가져온 여파는 결코 작지 않았다. 너무나도 큰 피해에 로랑트의 여론이 돌아선다. 도시의 유력자들과 가신들이 모두 튀르누스를 지지하여(vv. 3783-3896) 그 불손한 언행에도 분노를 표하지 못했던 왕은 이제 “대단한 어리석음과 무용함”, “커다란 오만함에 의해” 전쟁이 벌어졌음을 선언하고 반전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다.(vv. 6540, 6552) 또한 가신들은 라티누스의 화평책에 동의하며 트로이아인들의 봉사가 가져올 이익을 논하는 등 그들의 저력을 흡수하려는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고,(vv. 6627-6632) 드랑세스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튀르누스를 비난하면서 전쟁의 의미를 로랑트 대 트로이아가 아니라 튀르누스 대 에네아스의 대결로 한정한다. 드랑세스의 논리 속에서, 트로이아인들이 허가 없이 성을 짓고 영토를 침범, 약탈하였다는 튀르누스의 명분은 사라지고, 그는 약혼녀와 상속 영지의 획득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관계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선동자가 된다.(vv. 6633-6706, 6753-6804, 6871-6904)

이제 고립되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튀르누스이다. 그는 에네아스의 거짓 정

77) M. Rousse, "Le Pouvoir, la prouesse...", p. 162.

보에 속아 잘못된 곳으로 병력을 나눔으로써(vv. 6947-6978) 마지막 전우라고 할(vv. 6938-6946) 카밀마저 죽음에 빠뜨린다.⁷⁸⁾ “그들은 강력한 원군을 잃었고, 그들의 진영은 악화되었다.”(vv. 7249-7250) 카밀의 죽음이 도시에 큰 충격을 주고 에네아스가 로랑트 앞에 당도하자 고장의 기사들, 상민들, 배신(陪臣)과 가신들은 동맹을 맺으러 그를 찾아온다. 튀르누스가 이겼을 때 그들에게 행사할 지배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⁷⁹⁾ 이는 도시의 여론이 트로이아 인들과의 화평으로 확고하게 돌아섰으며, 전사로서의 역량은 차치하더라도 군주로서 튀르누스의 역량이 에네아스에게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기세를 몰아 결정타를 가하려는 듯 에네아스는 로랑트까지 진군하여 “도시를 점령하는 데 전념할 것이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다.⁸⁰⁾ 하지만 로랑트 시민들이 휴전을 요청하자 그는 이를 받아들이고 막사를 짓는다.

그는 수하의 트로이아 인들을 불러 로랑트에서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막사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달빛 아래 밤새도록 일하였다. 도랑 주위에 에네아스가 가지고 있던 막사를 펼쳤다. [...] 멀리서 그것은 성처럼 보였고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것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위한 것이었다. 주위에는 말뚝과 줄과 들보가 늘어져 있었다. 그들은 무척이나 빨리 자신들의 성을 세웠다. [...] 에네아스는 그 한가운데에 자신의 천막을 세우게 하였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 인에게서 획득한 것이었다. 그는 트로이아 근처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천막과 무구를 빼앗았다. [...] 다른 모든 천막보다 위로 돌출하여 그것은 주탑처럼 보였다. 그만큼 거대했다. 에네아스가 그 꼭대기에 황금 독수리를 놓아 전 고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밤새 일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천막들이 거리에 놓이고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도랑 위쪽 주위로 잘 정돈된 성이 생겨났다. 그 성은 매우 빠르게 지어졌다. 그것은 강력하지 않았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웠다.(vv. 7290-7330)

78) 원작에서 아이네아스는 튀르누스가 정보원을 통해 알아낸 대로 가파르고 외딴 산 등성이를 지나지만,(11권 vv. 511-514, 901-905), 에네아스는 “다른 길”을 통해 숲을 벗어남으로써 튀르누스가 알아낸 정보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떠나는 튀르누스와 마주보며 헤어진다.(vv. 7232-7235)

79) “Li chevalier de la contree, / li païsant, li vavasor / et li baron tuit li plusor / venu li sont de bot aidier, / car molt cremoient lo dongier / que Turnus lor voldroit mener, / s’il an pooit desus aler ; / toz li païs o lui s’alie, / prometent li molt grant aïe.”(vv. 7262-7270)

80) “et dit que il metra s’antante / a ce que la citez soit prise : / n’en tornera an nule guise, / desi que sa guerre ait finee.”(vv. 7258-7261)

Il apela ses Troïans, / iluec rova fichier sa tente, / que l'an la voie de Laurente. / A la lune ont la nuit ovré; / portendu ont tot lo fossé / d'une tente c'ot Eneas, / [...] / De loing sanbloit ce fust chastiaus, / et a mervolle par ert biaux: / n'iert noiant fet por forterece, / mes por biauté et por richece. / Tot anviron fu portenduz / o peus, o cordes et o fuz. / Lor chastel ont molt tost drecié; / [...] / Eneas fist tendre el mileu / son tré que il conquist d'un Greu: / bien pres de Troie l'en ocist, / lo tref et les armes an prist. / [...] / desus toz les autres paroit, / donjon sanbloit, car grant estoit; / une aigle d'or ot an son mis / que l'an veoit par lo païs. / Tote la nuit ont tant ovré / que il orent tot apresté / et lor tantes asis par rues / et lor cordes totes tendues / et lo chastel bien ordené / tot anviron sor lo fossé. / Asez fu tost fez li chastiaus; / ne fu pas forz, mes molt fu biaux.

막사 묘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크루아지-나케는 이 에피소드에 관한 유의미한 분석 지점들을 제공한다. 먼저 그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⁸¹⁾ 첫 번째는 『에네아스』의 막사 묘사가 원작의 간결한 구절에 긴 여담을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도시 앞에 진을 치고 방어벽을 구축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난 『아이네이스』 11권에 중세 저자는 50행에 이르는 묘사를 이어 붙인다. 두 번째로는 저자가 고대 소재 소설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천막 모티프를 끌고 왔다는 점이다. 천막은 『테바이』, 『트로이아』, 『알렉상드르』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모티프로써 이미 정형화된 묘사 기법이 구비되어 있었고, 흔히 청중을 일상에서 유리시키고 매혹하는 경이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장식과 묘사로 천막에 다른 이미지와 기능을 부여한다.⁸²⁾ 필립 아몽과 에메 프티의 논의를 인용하여 크루아지-나케는 여타 고대 소재 소설의 막사 묘사가 특정 인물, 전령, 사절단의 도착이라는 표지와 맞물려 서사와 조화를 이루는 반면, 『에네아스』의 묘사는 서사 한가운데

81) 이하 C. Croizy-Naquet,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pp. 73-79 참조.

82) 물론 『에네아스』는 『트로이아』, 『알렉상드르』에 앞서 쓰여졌으므로 엄밀히 말해 『에네아스』가 각색을 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테바이』의 천막뿐이다. 하지만 『트로이아』, 『알렉상드르』가 『테바이』의 천막 묘사와 상통하는 면모를 보이는 반면 『에네아스』만은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에네아스』의 천막 묘사가 보여주는 변용의 특이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아무런 징조 없이 출현함을 확인한다. 또한 다른 소설들 속 막사가 천 조직과 장식, 부조 묘사를 중심으로 'estre' 동사가 되풀이되는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면, 『에네아스』의 막사는 역동적인 행위 동사들을 사용하여 건설의 리듬과 묘사의 리듬을 일치시킨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듣는 이에게 도시를 세워 올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크루아지-나케에 따르면 그 도시는 에네아스가 미래에 건설할 도시, 새로운 문명의 이상이 담겨있는 도시를 예고한다.⁸³⁾ 기존의 천막 모티프가 보여준 경이는 에네아스의 도시에서 눈속임과 거짓된 모방의 경이로 대체된다. 위대한 전략가이자 속임수의 조직자로서 에네아스는 막사가 성채 도시처럼 보이도록 꾸며 로랑트 인들을 속인다.

그 규모 때문에 그들(로랑트 인들)은 탑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였다. 트로이아인들이 열심히 작업해서 하룻밤에 성을 세웠다는 말이 도시 전역에서 들렸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이 달려가 성벽 위에서 그것을 보았다. [...] 로랑트 인들은 트로이아 인들에 맞서 싸우는 것은 큰 잘못이며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트로이아 인들은 노고를 잘 견뎌 쉽게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도시민들은 커다란 두려움에 빠져 겁에 질렸고, 왕이 트로이아 인들과 화평을 맺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왕을 비난하였다.(vv. 7336-7356)

del grant quident ce soit donjons. / Tuit ont oï par la cité / que Troïen ont molt ovré, / que la nuit ont un chastel fet. / Chascuns qui l'ot corant i vet, / d'en som lo mur lo vont veoir; / [...] / molt fet vers als mal guerrier, / a conquerre ne sont legier, / car molt sont duit de mal sofrir; / ne font pas sanblant de foïr. / Peor ont grant an la cité, / formant par sont tuit esfreé, / le roi blasment, n'en poënt mes, / que as Troïens ne fet pais.

그들은 겁먹어 무조건적인 화평을 주장하고, 평화를 구하지 않는 왕을 비난한다. 크루아지-나케는 언뜻 반(反)영웅적으로 보이는 이 계략이 단순히 기만적이고 교활한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 *richesse*의 화려함으로 힘 *force*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지혜 *sagesse*라는 제3

83) 이하 C. Croizy-Naquet,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pp. 79-89 참조.

의 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계략의 모습이든 통찰력의 모습이든 에네아스는 “지혜를 상징하는 영웅”으로서, “세 기능의 통합을 통해”⁸⁴⁾ 힘의 특성으로만 환기되는 로랑트도, 부가 제어되지 못하는 카르타고도 아닌,⁸⁵⁾ “강하고 부유한 동시에 정제된 문명”을 추구한다.⁸⁶⁾ 흔적만을 간직한 성터에 진영을 세우는 것은 황폐화된 트로이아와 미래의 로마를 잇는 상징적 행위이며, 그것이 눈속임과 계략을 통해 성취된다는 점에서 에네아스는 윌릭세스의 분신이지만, 윌릭세스가 아름다운 도시를 파괴한 반면 에네아스는 건설한다는 점에서 “도치된 분신”이라 할만하다. 트로이아 막사는 에네아스 개인의 진화, 그리고 이상적 문명을 추구하는 트로이아 민족의 진화를 보여주는 건축물이 된다.

포괄적이면서도 섬세한 크루아지-나케의 주장은 트로이아 막사에 관한 결정적인 의미 부여를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총론의 차원에서 그녀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각론에서 몇 가지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에네아스』의 저자는 원작에 막사 묘사만을 덧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도시를 포위한 에네아스에게 도시 유력자들이 동맹과 휴전을 요청하는 에피소드를 함께 배치한다. 에네아스는 다른 어떠한 요구 없이 이를 승낙하였다.(v. 7280) 크루아지-나케는 막사 묘사가 서사의 갑작스러운 단절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휴전의 승낙은 막사의 건설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휴전을 받아들인 이상, 트로이아 군대는 휴전 기간 동안 머무를 곳을 마련해야 했다.

그렇다면 에네아스가 휴전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휴전은 튀르누스의 부제와 팔라스의 죽음으로 성립할 수 있었다. 에네아스와 최전선에

84)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현명함을 1기능으로 간주하여 에네아스가 인도-유럽어족의 세 기능을 통합한다고 주장한 크루아지-나케 역시 앞서 로지에에게 제기하였던 것과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 뒤메질이 이야기한 1기능은 종교적인 현명함이다.

85) 카르타고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디도가 사랑에 빠져 도시의 건설을 방임한 데에서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기 전 디도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현명함과 강력함을 모두 갖춘 군주로 묘사되고 도시 건설을 훌륭하게 지휘한다는 점에서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단이다. 디도와 카르타고에 대해서는 2.2장에서 재론한다.

86) C. Croizy-Naquet,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pp. 79-89. 크루아지-나케는 에네아스가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사상이 폴랑이 대표하는 전사적 기사상을 대체하고 “고도로 정치적이고 교양 있는, 나아가 학식을 갖춘 궁정 생활”에 부응한다고 주장한다.

서 대립하였고 그럴 만한 명분을 지닌 튀르누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고 양측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와 각자의 진영을 추슬러야 했다. 무엇보다 팔라스의 죽음을 슬퍼하던 에네아스는 그를 애도하고 장례식을 치를 여유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에네아스는 이미 볼스크 족과의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보살피는 것보다 도시로 진출하는 것을 우선시하였고, 튀르누스는 버젓이 로랑트 안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카밀의 죽음에 도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튀르누스에 반기를 든 도시 유력자들의 협조까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모든 호기에도 불구하고 에네아스가 휴전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게 로랑트를 공격할 생각이 있기는 했던 것일까? 사실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로랑트의 병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수성전도 아닌 공성전을 벌이는 것은 에네아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첫 번째 휴전에서 사절단이 이야기하였듯이 전쟁의 구도가 에네아스와 튀르누스의 싸움으로 축소된 이상, 별칸의 무구로 무장한 에네아스로서는 전면전을 피하고 일대일 결투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네아스가 “도시를 점령하는 데 전념할 것이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것은 처음부터 다른 의미를 갖는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에네아스의 선언은 소설의 시작에서 서술된 메넬로스의 묘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메넬로스가 트로이아를 포위하였을 때, 그는 도시를 점령할 때까지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vv. 1-2) 우리는 앞서 이 구절이 10년에 걸친 포위 공격의 지난함과 트로이아 목마라는 속임수를 동시에 환기함으로써 5행 및 디도에게 들려준 에네아스의 트로이아 이야기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바 있다. 에네아스는 로랑트 도시 앞에 진영을 세우고 메넬로스를 상기시키는 이 표현을 반복한다. 만약 이것이 작가의 의도적인 배치라면, 언뜻 보기에 자신감에 차 금방이라도 도시를 공격할 것처럼 보였던 그의 선언은 또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는 그 자신 스스로 트로이아 성벽을 마주한 메넬로스, 제2의 율릭세스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크루아지-나케가 에네아스를 율릭세스에 빗댄 것은 이 점에서도 적절한 표현이 된다. 하루아침 사이에 천막들이 사라지고 트로이아 목마가 출현하였듯이(vv. 889-902, 914-925) 트로이아 막사는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 목마와도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대군을 매복시키는 일도 없이, 단지 휴전 기간 머무를 막사를 세운 것만으로 에네아스는 도시 성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

뜨리고 투쟁 의지를 좌절시킨다. 쉽게 속는 로랑트 인은 순진하게 목마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트로이아 인들과 비교되고,⁸⁷⁾ 속이는 위치가 된 에네아스는 월릭세스를 닮아간다. 그러나 그 속임수가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화평을 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휴전 중에 평화롭게 행해진 새로운 개념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그는 월릭세스를 넘어선다.

트로이아 막사의 묘사는 서사와 독립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에네아스가 점령 선언을 철회하고 휴전을 선택한 결과 막사가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막사 건설을 염두에 두고 점령 선언을 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휴전은 로랑트 유력자들과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인 동시에 막사 건설을 위한 훌륭한 구실이 된다. 에네아스는 휴전 기간에 머무른다는 명목하에, 휴전이 보장할 안전을 이용하여, 별다른 방어 능력도 없는 막사를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어 도시를 압박한다. 크루아지-나케가 아무런 도입 표지 없이 묘사가 끼워졌다고 주장한 것은, 그녀가 다른 고대 소재 소설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 내적인 각색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네아스』의 막사는 원작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고대 소재 소설의 모티프를 접목하고, 트로이아 목마라는 작품 내 또 다른 건축물의 모티프를 투영하는 삼중의 변용 과정을 거친다.

원작의 ‘방어벽’, 고대 소재 소설의 ‘천막’, 『에네아스』의 ‘트로이아 목마’, 그 복잡한 상호작용은 막사가 변용하는 작품 내 모티프가 트로이아 목마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층 심화된다. 막사 건설의 과정은 몽토방의 축조 과정과 겹쳐진다. 지형 묘사가 간략하게 이루어진 후 에네아스는 적절한 장소를 탐색하여 트로이아 인들을 불러 모으고 작업을 지시한다. 트로이아 인들은 밤낮으로 일하여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한다. 건축물의 한가운데에는 트로이아에서 승리를 통해 얻어낸 전리품을 위치시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 몽토방과 마찬가지로 막사는 트로이아의 재건을 선언하는 상징적 건축물이 된다.(vv. 7281-7330) 하지만 몽토방이 로랑트 전쟁의 전반부를 대표한다면 막사는 후반부를 대표한다.⁸⁸⁾ 막사가 몽토방의 이미지를 품은 채 그와 정반대되는 기능을

87) 해닝은 막사 에피소드의 몇몇 특징을 나열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the guillibility of the Laurentians", W. Hanning, "Engin in Twelfth-Century Romance: an examination of the *Roman d'Enéas* and Hue de Roteland's *Ipomedon*", in *Yale French Studies*, n. 51, 1974, p. 91.

88) 크루아지-나케는 "에네아스가 지었던 첫 번째 요새화된 진영은 힘의 우위를 확립하지만, 그것이 로랑트 인들에게 어떠한 인상도 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동시에 그

수행한다는 점에서 변용이 일어난다. 수성에 집중한 몽토방이 트로이아의 반복이라면 로랑트 공략에 활용된 막사는 그리스의 반복이다. 몽토방이 전쟁의 실제적 수행에 관한 기술이 집약된 장소라면 막사는 계략과 속임수의 주제를 부활시키는 장소이다. 몽토방이 명실상부 난공불락의 요새라면 막사는 “강력하지 않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운”, 그것도 “경이로울 만치 아름다워 보이는” 성이다.(vv. 7302, 7330)

몽토방과 대비되는 막사의 특성이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⁸⁹⁾ 아름다움은 에네아스의 주요 덕목 중 하나이며 넓게 보아 작품의 큰 줄기에 속하는 주제를 이룬다.⁹⁰⁾ 에네아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았고 그 이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았다. 디도를 처음 만나러 갈 때에도 그는 스스로를 꾸미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 “그는 좋은 옷으로 차려 입고 의장마에 올랐다.”(vv. 700-701)⁹¹⁾ 그와 트로이아인들이 도시에 들어서자 “부르주 아들, 부인들, 기사들은 놀라워하며 길거리로, 건물들 위로 그들을 보러 나왔다. 일행의 수장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누구라 말하는 것을 듣지 않

것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반면, 새로운 개념의 공격을 도입한 막사는 “에네아스가 건설할 임무를 지닌 미래 도시를 미리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둘의 위계관계를 설정한다. C. Croizy-Naquet,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p. 86.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몽토방도 에네아스의 전략적, 전술적 앞배 기반하고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몽토방과 막사는 상호보완적인 쌍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89) 크루아지-나케는 분석을 행하면서 계략이나 힘과 대립되는 항을 부유함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트로이아 막사를 카르타고와 연결시키고, 부의 활용 능력을 두고 디도와 에네아스를 비교한다. 이는 막사에서 부를 강조할 때의 이점이며 막사 묘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막사 묘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부를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름다움과 부 모두 3기능에 속하는 것이지만, 화려한 보석이나 장식 없이 “천의 다양한 빛깔”과 “수많은 양식들”, 성벽을 연상시키는 줄무늬, 체크무늬, 직사각형의 배치들을 강조하는 막사 묘사는 부유함보다 아름다움으로 수식된다. 부의 화려함은 한 번 언급된 반면 아름다움은 세 번에 걸쳐 반복되고, “a mervaille par” 같은 강세 표현을 동반하거나 “forz”와 대구를 이룬다.

90) 저승에서 안취세스가 에네아스를 빼닮은 실비우스 에네아스를 소개할 때에도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름에 있어서, 그리고 탁월한 경건함, 용맹함, 아름다움에 있어서 너를 무척이나 닮은 그 아이는 실비우스 에네아스라고 한단다.”(vv. 2944-2947) 아름다움은 경건함, 용맹함과 함께 에네아스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덕목이다.

91) 저자는 그가 의장마에 올라탔음을 적시한다. 이외에 작품에서 ‘palefroi’가 언급되는 경우는 두 번밖에 없다.(vv. 4047, 6607)

고도 모두가 왕을 알아보았다. 각자 손가락을 들어 서로에게 그를 가리켜보었다. 그는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매력적이었다. 건장하고 우람한 기사였고,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⁹²⁾ 그의 아름다움은 놀라움을 자아내고,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에 앞서 그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며 매료된다.

로랑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에네아스는 휴전이 성사되자 일행들을 이끌고 막사를 나와 로랑트로 향한다.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트로이아 인들을 보기 위해 성벽 총안에 올랐다. 하늘 아래 더 아름다운 민족은 없다는 데 모두가 입을 모았다. 그들은 잘 차려 입고 꾸미었지만, 에네아스, 그들의 수장이었던 에네아스는 아름다움에 있어 그들 모두를 능가하였다. 모두가 그를 보며 칭송하였다. 그들은 그가 무척이나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총안을 통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⁹³⁾ 휴전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전시에, 그것도 적으로서 수차례 전투를 벌였고 사상자를 내었으며 현재는 포위 중인 도시 바로 앞에서, 에네아스는 일행들과 함께 한껏 치장한 채 자신을 드러낸다. 그의 모습은 막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저자는 그가 “전혀 무장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v. 8033) 방어 능력은 없으나 겉모습은 웅장한 막사처럼, 그는 무장을 하지 않은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v. 8033)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두려움에 질렸던 도시민들은 이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은 없다며 감탄하고 그중에서도 단연 빼어난 에네아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급급하다. 막사의 전시는 트로이아 일행의 전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토대로 기능하며, 둘은 두려움과 감탄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이끌어내면서 도시를 뒤흔든다.

에네아스가 의도치 않게 거둔 최대의 수확은 라빈의 사랑이다.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며 아마타 왕비와 격하게 다툰(vv. 7857-8024) 라빈은 창가를 내려다보다가 에네아스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가 무척이나 아름답고 고귀해보였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이들이

92) "borjois, dames et chevaliers / et an rues et an soliers / les vont a mervolle esgarder. / N'estovoit mie demander / qui de la compaignie ert sire: / sanz ce que nus d'als l'oïst dire, / conoissoient trestuit lo roi. / Chascun lo mostre a l'autre al doi; / molt estoit bials et avenanz / et chevaliers forniz et granz; / a toz an sanble lo plus bel."(vv. 709-719)

93) "Cil de la vile li plusor / vont as creniaus del mur monter / por les Troïens esgarder; / ce diënt tuit comunalement / que soz ciel n'a plus bele gent; / bien sont vestu et conréé, / mais toz les passe de bialté / Eneas, qui lor sire estoit. / Molt lo loë chascuns quel voit; / diënt que molt est genz et biaux, / grant los an font par les creniaus."(vv. 8036-8046)

그의 용맹과 아름다움을 얼마나 칭송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그를 잘 새겨두었다.”⁹⁴⁾ 이때 “아모르가 그녀에게 화살을 쏘아 맞힌다.”(v. 8057) 그녀는 얼굴색을 쉽 없이 바꾸어가며 오한을 느끼고 몸을 떨었다가 오열하고 흐느끼고 한숨 쉬고 소리 지르고 신음한다.(vv. 8073-8081) 그녀는 아모르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눈에 화살을 쏘아 심장까지 흘려보냈음을 깨닫는다.(vv. 8159-8162) 에네아스의 아름다움은 성벽을 뚫고 먼 거리를 가볍게 뛰어넘어 사랑의 포로를 만들어낸다.

트로이아 막사 에피소드는 이처럼 다층적인 의미작용의 그물코로 기능한다. 『에네아스』는 원작에 고대 소재 소설의 모티프를 끌고 오면서 각색을 더하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막사와 트로이아 목마를 연결시킨다. 또한 막사는 몽토방과 중첩되면서 로랑트 전쟁의 후반부를 대표하는 구조적 위상을 갖게 되며, 2기능을 강조한 몽토방에 비해 아름다움이라는 3기능을 내세워 아름다움을 활용하는 에네아스의 지속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매김한다. 몽토방에 집약된 전쟁의 기술이 보다 직접적으로 전투의 승리에 기여한다면, 막사는 보다 간접적으로, 때로는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전쟁의 흐름에 개입한다. 휴전 승낙, 막사 건설, 평화로운 행렬이 모순적이게도 탁월한 공격 행위가 되는 재치 어린 전략은 에네아스가 보여준 전쟁의 기술의 백미라 할 수 있다.

1.3.3. 연설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에네아스가 자신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하였다고 감히 평가할 전쟁의 기술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현명함이 토대로 작용하며 몽토방의 힘, 막사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면, 에네아스의 연설은 말이라는 요소를 통해 현명함을 직접적으로 구현한다. 작품에는 로랑트 전쟁을 규정짓는 여러 해석 틀이 등장한다. 다양한 해석 틀들은 서로 경합하며 부딪치고 때로

94) "forment l'a esgardé sor toz. / Molt li sanbla et bel et gent, / bien a oi comfaiement / lo loënt tuit par la cité / et de proëce et de bialté ; / bien lo nota an son corage"(vv. 8050-8055) 위세는 이 장면을 이렇게 평한다. “『에네아스』의 저자는 라빈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가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에네아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인다. 그를 둘러싼 트로이아 행렬이 만인의 찬사를 받는 화려함으로 그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높인다.”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 162.

는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의 성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로랑트는 에네아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그 끝에서 그는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명분의 소유자이자, 모든 가신들의 자발적 복종을 끌어낸 약속된 군주로서 전쟁을 마무리한다. 그것은 전투의 승패와 상호작용하면서 승리를 가능하게 했고 또 승리에 힘입어 가능했던 말의 기술, 정당성을 획득하고 강화하는 말의 확산에 힘입은 결과였다. 에네아스는 무력으로 도시를 점령한 메넬로스와 계략으로 성문을 연 율릭세스를 보완하여, 말로써 힘과 계략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에네아스의 연설은 세 가지이다. 로랑트에 도착하여 라티누스 왕에게 한 연설,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외양데르 왕에게 한 연설, 튀르누스와의 일대일 결투를 앞두고 한 연설이 그것이다. 엄밀하게 말해 첫 연설은 에네아스가 아니라 사절로 간 일리오네스가 한 것이지만, 『에네아스』에서 일리오네스는 “매우 현명한”이라는 수식어와 함께(vv. 562, 3176) 에네아스의 역할을 대신한다. 더욱이 에네아스는 일리오네스를 라티누스 왕에게 보낼 때 “자신의 말을 맡겼다”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조금의 혼동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다.(v. 3129) 세 연설은 전쟁 이전, 초반부, 마지막이라는 서로 다른 국면 속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동시에 동일한 모티프를 점층적으로 발전시킨다. 각 연설의 특수성과 연속성, 때와 장소에 따른 조정과 동일한 모티프의 변용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리오네스의 연설 목적은 분명하다. 그는 트로이아 인들을 받아들여 줄 것을 왕에게 간청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왕의 권력과 영토에 결코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 오히려 든든한 우방이 되어 왕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vv. 3207-3215, 3221-3222) 하지만 그의 역설(力說)에도 불구하고, 연설에서나 작품의 흐름에서나 그의 주장이 무게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않는다. 몽토방 축조와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이 보여주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트로이아 인들은 무력 충돌과 약탈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일리오네스의 연설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지엽적인 데 있다. 그가 연설을 시작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보자. 그는 왕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말문을 열고(vv. 3172-3174) 먼저 자신들을 소개한다. 그 내용은 일리오네스가 디도 앞에서 했던 연설, 그리고 에네아스가 디도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대동소이하다.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를 점령하고 파괴하여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탑과 성벽을 무너뜨리고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죽였음을 왕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⁹⁵⁾ 그는 그리스가 잔인한 민족이며, 트로이아가

부당한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이 공인된 사실인 양 운을 띄운다. 이어서 그는 에네아스를 도망자가 아니라 무자비한 폭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들의 지도자로 포장하고, 이를 “신들의 명령에 따른” 행위로 정당화한다.(vv. 3185-3186) 디도에게 연설할 때와 마찬가지로(vv. 1192-1196) 그는 오랜 세월 바다를 떠돌며 겪은 끔찍한 고통을 강조하고 감정에 호소함으로써,(vv. 3187-3192) 연설의 한 꼭지를 마무리한다.

밀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연설의 서두는 트로이아 멸망과 이후의 행보에 관해 에네아스가 발표한 일종의 공식 입장이다. 그는 트로이아가 부당하게 멸망하였고 그리스가 야만적인 폭력을 저질렀으며, 본인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신들의 명령에 따라 생존자를 인도하였음을, 바다에서의 시련과 노고를 견뎌내고 평화를 구하러 왔음을 다시 한 번 공언한다. 이 확인은 여러 번 반복된 만큼 군더더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에네아스와 트로이아인들의 평판이 실제 좋지 않고 그것이 로랑트 전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품의 저자는 트로이아 멸망을 묘사할 때부터 에네아스의 약점을 부각하였다. 파리스의 심판 에피소드를 삽입하고 메넬로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파리스와 엘루엔의 불륜 관계가 강조되었고, 그리스 군과의 야간 전투를 다룬 『아이네이스』 2권이 삭제되고 화자의 서문과 디도에게 들려준 에네아스의 이야기가 충돌함으로써 에네아스의 도망에 부정적인 혐의가 짙어졌다. 물론 우리는 이를 에네아스를 다시 쓰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하였지만, 로랑트 인들에게는 어떠한 것인가? 에네아스의 복권 과제는 아직 완수되지 못했다. 로랑트에서 에네아스는 여전히 배신자에 도망자라는 최악의 평판에 시달린다.

『아이네이스』와 비교해보자. 원작의 일리오네우스는 중세의 일리오네스와 달리 시종일관 당당하다. 일리오네우스는 주신 유피테르로부터 기원한 트로이아 민족의 고귀한 혈통을 내세우고, 트로이아 전쟁을 에우로파와 아시아 두 세계의 거대한 충돌로 해석하며, 많은 부족들이 동맹 맺기를 원했던 자신들의 힘을 강조한다.(7권 vv. 212-248) 일리오네스와 같은 공손한 인사,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 과거에 대한 변호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서사시의 영웅과 소설적 인물의 차이, 고대와 중세의 심성 차이로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작

95) "Bien as oï que li Grezois / ont Troie prise et cravantee / et la cité tote gastee; / et torz et murs ont abatuz / ocis les granz et les menuz."(vv. 3178-3182)

품 내적으로는 작가의 의도적인 각색으로 이해된다. 트로이아 재건을 유일하고도 일차적인 사명으로 떠맡은 아이네아스와 달리, 중세의 에네아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재건해야 했다. 자신의 능력과 정당성을 입증하여 도망자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일 없이 트로이아 재건은 요원한 일이었고, 이 때문에 그는 신중하고 전략적이며 또한 강박적일 수밖에 없었다.

아마타 왕비와 튀르누스의 반응은 두 작품의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에네아스』에서 아마타는 라티누스 왕에게 에네아스를 조롱한다. “당신이 원하시니, 그에게 주도록 하세요. 그는 라빈에게 참으로 대단한 과부산(寡婦産)을 남겨주겠죠. 그가 자기 나라를 등진 이후 고랑을 파왔던 온 바다를 말이에요. 그는 다른 어떤 땅도 봉토도 지니지 못했으니까요. 그리스 인들이 그의 나라에 다녀갔을 때 그에게서는 어떤 것도 빼앗지 못했고, 어떤 것도 남겨주지 않았죠.”⁹⁶⁾ 독백에서 그녀의 비난은 한층 신랄해진다. “이방의 땅에서 온 자, 전쟁으로 패망한 자, 도시가 점령당하자 겁에 질려 도망친 자, 이 자와 함께 겁쟁이들이 모여들더니, 어딘가로 빠져나와 이 일개 봉신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 어디의 왕이란 말인가? 알 수가 없다, 몇 척의 배를 제외한다면 말이다.”⁹⁷⁾ 아마타에게 왕의 결정은 황당할 뿐이다. 그녀의 눈에 트로이아 인들은 전쟁에 패한데다가 도망치기까지 한 겁쟁이들, 변변한 땅도 재산도 없이 일개 봉신을 왕이라 우기며 공주를 받아가려 하는 뻔뻔한 자들이다. 튀르누스도 동일한 관점을 공유한다. 왕비의 전령에게 그는 말한다. “패배하고 싸울 힘도 없는 이들이 다시 또 싸움을 하겠다고 찾아오다니 무척이나 놀랍구려. 한번 졌다면 그만 쉬는 게 마땅하지.”⁹⁸⁾

96) "Bien li done, quant tu vels faire; / il li donra molt grant doaire: / tote la mer qu'il a siglee / puis qu'il torna de sa contree; / n'a autre terre n'autre feu; / par son païs passerent Greu, / ne nule rien ne li tolirent, / ne nule rien ne li guerpirent;"(vv. 3319-3326) 이중 3325행은 해석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비록 사실은 아니지만 에네아스를 처음부터 무일푼으로 간주하고 빼앗길 것도 없었음을 돌려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에네아스가 도망쳤기 때문에 빼앗지 못했다고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다.

97) "a un homme d'estrangle terre, / qui toz est essilliez par guerre, / qui s'en enbla par coardise / de la cité, quant al fu prise; / o lui s'an vindrent li coart, / tuit se traistrent a une part, / de cel vasal firent lor roi. / Dont est il rois? Ne sai de coi, / fors de ne sai quantes nacelles."(vv. 3363-3371)

98) "Molt me mervolle de tel gent, / qui sont veincu et recreant, / que bataille vont mes querant; / puis que conquis sont une foiz, / si se reposent, ce est droiz."(vv. 3468-3472)

모두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다. 『아이네이스』에서 아마타는 디도를 버린 아이네아스의 신의 없음과 왕이 투르누스에게 한 약속, 투르누스도 신들이 말한 이방인에 속할 수 있다는 주장만을 내세운다.(7권 vv. 358-372) 투르누스는 노파로 변한 알렉토의 경고를 비웃으며 공연히 야단법석을 떨지 말라고 충고하다가, 분노한 알렉토의 광기에 물들어 전쟁을 쫓는다.(7권 vv. 406-474) 아이네아스와 트로이아 민족에 대한 경멸어린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고, 전쟁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하게 발발한다. 즉, 저자는 에네아스와 트로이아 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퍼뜨리면서 로랑트 전쟁을 이중적으로 만들고 있다. 에네아스의 적은 튀르누스만이 아니다. 패잔병, 도망자, 겁쟁이, “왕인지 아닌지도 모를”(v. 4146) 영토 없는 이방인, 에네아스는 로랑트 전쟁에서 이러한 꼬리표들과도 싸워야 했다. 이 꼬리표들은 에네아스와 트로이아 민족을 바라보는 선입관의 기본 요소들이며, 로랑트 인들이 이들에 반대하고 전쟁을 불사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배경을 형성한다. 에네아스에게 로랑트 전쟁은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과 더불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둘러싼 부정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정당한 왕으로 거듭나는 과정,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아마타와 튀르누스는 이러한 평판 위에서 로랑트 전쟁을 유도하고, 전쟁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해석 틀을 발전시킨다. 일리오네스를 통한 에네아스의 자기규정은 라티누스 왕의 승인을 얻어⁹⁹⁾ 상속권을 약속 받는 쾌거를 이루지만 곧바로 아마타, 튀르누스로 이어지는 반대 주장에 부딪쳤다. 일리오네스와 라티누스의 접견이 끝나자마자 아마타 왕비는 왕을 찾아가 에네아스와 트로이아인들을 비난한다. 그녀에 따르면 트로이아 인들은 신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며, 어떠한 법도 존중하지 않는다. 트로이아 멸망은 전적으로 파리스가 메넬로스의 아내를 납치하여 벌인 불륜의 결과일 뿐이다. 여기에 에네아스의 죄가 더해진다. 에네아스는 디도와 더불어 쾌락을 누렸음에도, 디도가 어느 정도 그를 머물게 해주자 배를 타고 떠나버렸고, 그녀는 커다란 고통에 자살을 했다. 왕비가 보기에는 라빈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에네아스는 오랫동안 바다를 향해하며 노고를 겪어 휴식이 필요하므로 라빈을 취할 것이지만, 선선한 바람만 불면 그녀의 치욕에는 무심한 채 그녀를 버릴 것이다.(vv. 3285-3330) 아마타는 파리스와 에네아스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99) 라티누스 왕은 에네아스의 고귀한 혈통을 인정하며 그에게서 어떠한 결격 사유도 보지 못한다.(vv. 3239-3242)

공통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내들이다.

왕비는 라티누스 왕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재빨리 전령을 보내 튀르누스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전쟁을 부추긴다.¹⁰⁰⁾ 왕이 에네아스에게 한 약조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은폐되었음을 알게 된(vv. 3458-3462) 튀르누스는 분노하며 전쟁의 기회를 노린다. 그의 명분은 왕비의 것을 계승하되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왕비의 전령, 라티누스 왕, 가신과 동맹들에게 여러 차례 역설한 그의 명분의 핵심은 왕이 이미 라빈과 영토를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신의 없음이라는 큰 틀에서 공통점을 찾은 왕비와 달리, 그는 이를 통해 에네아스를 파리스와 보다 직접적으로 동일시한다. 에네아스는 타인의 약혼녀를 빼앗으려 하는 또 하나의 파리스이다. 튀르누스는 스스로 메넬로스가 되어 그를 징벌할 정당성을 획득하고, 트로이아 멸망을 초래한 파리스보다 에네아스가 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임을 단언한다.(vv. 4177-4181)

아마타와 튀르누스를 거쳐 전쟁의 조건들이 마련되고, 그 시작에서부터 에네아스가 넘어서야 할 해석 틀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튀르누스는 패잔병, 겁쟁이, 영토 없는 떠돌이라는 기존의 평판에 더해 그를 남의 여자를 탐하는 신의 없는 자로 규정짓는다. 물론 튀르누스와 라빈이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나름의 설득력이 없지 않다. 원작에서 라티누스 왕은 투르누스를 라비니아의 정식 약혼자로 공언한 바가 없었다. 투르누스는 술한 구혼자들 중 하나였고 왕비가 그를 적극 지지했을 뿐 왕은 신들의 신탁에 따라 이방인 사윗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은 “자네(투르누스)에 대한 사랑에, 내 아내의 혈연과 슬픔의 눈물에 젖어 모든 의리를 저버리고 사위에게서 약속된 신부를 빼앗음으로써 (내가) 불경한 무기를 손에 들었”다고 말해(12권 vv. 29-31) 오히려 정당한 사위를 에네아스로, 약혼녀를 빼앗으려는 이를 투르누스로 그리기까지 한다. 반면 중세 소설에서 튀르누스는 왕의 확실한 약조를 받았고(v. 3233) 이에 대한 대가로 “왕에게 커다란 봉사를 바쳤다.”(v. 3477) 튀르누스가 왕의 약조로 라빈과 영토에 대한 권리를 지녔음은(vv. 3868, 4118, 4164) 온 가신과 동맹들에게 인정받은 내용이었다.(vv. 4185-4186) 한편 트로이아 민족은 원죄처럼 따라다니는 파리스의 이미지를 쫓

100) “왕비께서는 당신에게 [...] 동맹들을 통해 군세를 일으키라 명하십니다. 병사를 소집하고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 트로이아 인이 당신에게 땅을 넘길 때까지, 당신이 그를 이기거나 포로로 사로잡을 때까지, 아니면 그가 달아나 바다로 다시 떠날 때까지 전쟁으로 몰아붙이십시오.”(vv. 3427-3436)

지 못했고, 에네아스 자신도 환대해준 디도를 버렸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 애매한 상황에서 파리스와의 동일시는 절묘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에네아스는 파리스라는 낙인에 찍혀 부정을 저지른 자로 탈바꿈되고, 로랑트 전쟁은 그 유명한 트로이아 전쟁의 후광 속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 거듭난다. 트로이아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과거가 로랑트 전쟁의 확정적인 미래로 제시된다. 왕과 튀르누스가 갈라선 상황에서 가신과 동맹들이 튀르누스를 지지하였다는 것은 그가 제시한 명분이 성공적이었음을 방증한다.¹⁰¹⁾ 튀르누스는 파리스의 반복이라는 해석 틀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세력을 규합하며 사기를 드높일 수 있었다.

트로이아는 비겁한 민족인가, 아닌가? 트로이아 전쟁은 정당했는가, 부당했는가? 에네아스는 신의 없는 배신자인가, 책임감 있는 지도자인가? 로랑트 전쟁은 트로이아의 민족성, 파리스의 과오, 트로이아 전쟁의 해석, 에네아스에 대한 가치 평가 모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이제 공은 에네아스에게 넘어온다. 에네아스는 튀르누스에 맞서 어떤 무기를 꺼내드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외양데르 왕에게 한 연설에서 찾아보겠지만,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리오네스의 연설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네아스는 그들과 배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그를 허용하고 당신의 땅에 그를 받아들이도록, 그는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영원히 친구가 될 것입니다. 트로이아와 그 성탑을 세운 우리의 조상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이 다르다뤘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신들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혈통이 기원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땅에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해를 입혔다고 불평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vv. 3195-3209)

Eneas est avoc remés / por garantir als et lor nes ; / ça nos an a toi tramis, / quel consentes en ton país / et que l'acoilles en ta terre. / Ne te sordra ja par nos guerre, / ainz te serons toz tens ami. / Nostre ancestre fu nez de ci, / qui funda Troie et lo donjon ; / bien sai que Dardanus ot nom ; / par les deus somes revertu / ça dont nostre linnages fu. / An ta

101) 여기에 기득권을 빼앗을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과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 및 약탈에 대한 분노가 더해진다.(vv. 4187-4200, 4215-4236)

terre volons remaindre, / ne te porras ja de nos plaindre / que te
forçons de noiant ;

위 인용문은 에네아스와 트로이아 인들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 바로 이어지는 구절로서, 앞서 말한 일리오네스 연설의 핵심 논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연설 사이에는 다소 특이한 논점이 하나 끼어있다. 트로이아의 조상 다르다뉘스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자신들이 신들의 명령에 따라 돌아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왜 일리오네스는 갑자기 다르다뉘스를 언급하는 것일까? 앞뒤 맥락을 따져보았을 때, 이 주장은 트로이아 민족과 로랑트 민족의 가까움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왕의 경계심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그들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로랑트 출신이고, 어떤 악의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출신지로, 그것도 신의 뜻에 따라 돌아왔을 뿐이다. 맥락을 넓힌다면 이 주장은 말머리의 자기소개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 일리오네스는 트로이아 인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신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 인들 사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주장했는데(v. 3185-3186),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서 설명된다. 신들은 그들에게 조상의 땅에 돌아가라 명령하였고, 도망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방점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에 찍힌다. 트로이아 인들은 이방인, 도망자, 떠돌이가 아닌, 신들의 명령을 위해 오랜 노고를 견디고 기원에 당도한 귀환자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바로 그 귀환, 자신들이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조상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품는다. 『아이네이스』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신들께서 정해주신 운명은 우리를 떠밀어 그대들의 땅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다르다누스가 태어났습니다. 이곳으로 아폴로께서 우리를 도로 부르시며, 튀르레니아의 튀브리스 강과 누미쿠스 샘의 신성한 물로 향하라고 지엄하신 명령으로 재촉하십니다.”(7권 vv. 239-242) 아폴로가 ‘우리를 도로 불렀다 repetit’는 표현이 신들의 명에 따라 ‘우리는 돌아왔다 revertu’는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아직 두 표현은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이 미묘하지만 분명한 각색이 연설을 거듭하며 점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repetit’와 달리 귀환의 테마는 이후 연설들의 핵심 논지로 발전하며 그 성격을 달리 하고, 땅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촉발하기 때문이다.

외양테르 왕에게 한 연설 역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에네아스는 튀

르누스 동맹군의 수적 우위에 맞서기 위해 팔랑테 도시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원작에서 아이네아스는 세 가지 논리를 주장한다. 트로이아의 시조 다르다누스의 조부가 아틀라스이고 외안테르 왕의 조부 역시 아틀라스이므로 두 집안은 한 핏줄이라는 친족 관계, 같은 부족이 우리를 괴롭히므로 함께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 트로이아 족의 용맹과 사기가 실전에서 검증되었으므로 상대에게도 이득이라는 효용성이다.(8권 vv. 134-151) 아이네아스는 라티누스 왕을 접견한 일리오네우스와 마찬가지로 당당함을 잃지 않으며 대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제안한다. 하지만 저자의 개작은 어김없이 에네아스의 입장을 뒤바꾸어 놓는다. 신화적 친족 관계나 트로이아 족의 자신감이 삭제되고, 에네아스는 “매우 공손하게”(v. 4703) 인사하며 다가간다. 그는 철저히 도움을 호소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신화의 도움이나 트로이아 전사의 힘을 내세우는 일 없이 에네아스는 어떤 근거들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의 연설의 핵심은 정당성이다. 일리오네스의 연설에서 말문을 여는 데 그쳤던 자기변호가 연설의 주된 논지가 되고, 이제 그는 트로이아를 멸망시켰던 그리스에 대한 비난을, 동일한 폭력을 자행하는 튀르누스에게로 옮긴다. 트로이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당한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파괴했을 때 신들은 제게 명령하였습니다. 제 모든 일행과 함께 롱바르디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조상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르다누스라 불리었고, 도시 트로이아를 세웠던 인물이지요. 신들이 명령한 곳으로 우리는 어렵사리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튀르누스는 우리에게 그 땅을 금지하였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였고, 우리와 맞서 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신들을 향해 이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땅 전부를 주었던 신들에게 말입니다.(vv. 4711-4726)

Quant la cité destruisirent Gré, / si me comanderent li dé / que o tote
ma compaignie / m'an revenisse an Lonbardie, / la dont nostre ancestre
fu nez, / qui Dardanus fu apelez, / qui funda Troie la cité. / Ça ou li deu
ont comandé, / somes venu a quelque poine; / un chastel avons an
demoine; / Turnus nos vie le país, / de guerrier s'est vers nos pris, / il
velt nostre chastel abatre / et contre nos se velt combatre. / Vers les

deus a pris ceste guerre, / qui nos otroient tuit la terre ;

에네아스는 앞선 귀환의 테마를 반복하되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 신들이 그 땅 전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로랑트 전쟁에서 그가 명분의 우위를 주장한다면, 그는 그것을 땅의 소유권에서 찾고 땅의 소유권은 귀환의 테마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논리에 따르면 튀르누스의 개전(開戰)은 약혼녀를 노리는 자를 징벌하거나 무력시위를 벌인 이방인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땅의 소유자를 힘으로 꺾박하는 행위가 된다. 튀르누스가 로랑트 전쟁을 트로이아 전쟁의 되풀이, 불륜이라는 도덕적 범죄에 대한 복수로 규정한다면, 이에 맞서는 에네아스 역시 로랑트 전쟁을 트로이아 전쟁의 되풀이, 정당한 땅의 소유자를 꺾박하는 부당한 무력행사로 규정한다. 로랑트 전쟁에 다시 한 번 트로이아의 이미지가 포개어지고, 두 전쟁을 바라보는 두 해석 틀이 팽팽하게 맞선다. 그의 주장에 한 가지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다면, 트로이아 전쟁이 신들의 뜻이었던 반면 (v. 35), 로랑트 전쟁은 신들에 맞서는 행위라는 것이다.(vv. 4725-4726)

물론 신들에 의존하는 그의 주장은 근거에 있어서도, 원군을 요청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도 미흡하다. 하지만 에네아스의 연설의 특징은 정당성이 단순한 명분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응용된다는 데 있다. 그는 말을 잇는다.

우리는 이 고장에서 들었습니다. 그(튀르누스)가 당신을 계속하여 공격하였고 오랫동안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신에게로 왔습니다. 용맹함으로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약간의 도움을 주시어 당신의 사람들을 다소 보내주신다면, 저는 당신과 우리의 복수를 할 것이며, 얼마 안 있어 우리는 구원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 덕분에 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제 적을 사로잡거나 이긴다면, 제 모든 영지를 당신에게서 받을 것이며, 그에 대한 영주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vv. 4729-4742)

En la contree avons oï / que il vos ra molt acoilli / et guerroié molt
longuement. / Por force et por maintenant / somes ici a vos venu, /
que nos secres par vertu ; / se tu me vels un po aidier / et de ta gent
auques baillier, / ge vengerai et toi et nos, / a brief terme serons rescos.
/ Se par toi puis vaintre ma guerre, / mon enemî panre ou conquerre, /

tote m'enor tenrai de toi, / la seignorie t'an otroi.

저자는 원작에서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우자는 주장을 남기되 이를 복수라는 표현으로 되살린다. 이때 '복수하다'는 'toi'와 'nos'를 함께 목적으로 취함으로써 팔랑테와 트로이아의 처지를 동일한 것으로 상정한다. 에네아스의 소유권 주장은 팔랑테와 트로이아가 영토 침략의 피해자로서 보다 확실하게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푸아리옹은 에르퀼레스(헤르쿨레스)의 여담이 중세 소설에서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건국 영웅의 신화가 에네아스에게서 다시 한 번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였지만,¹⁰²⁾ 에르퀼레스의 괴물 퇴치는 도시 건설과 거리가 멀다. 팔랑테는 에르퀼레스와 무관하게 존재하였고, 에르퀼레스가 카퀴스를 물리친 것은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카퀴스가 자신에게 저지른 죄 때문”이었다.(v. 4641)¹⁰³⁾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복수가 곧 도시 전체의 복수가 되었고, 제사로 기려지는 그 “경이로운 복수”(v. 4630)는 에르퀼레스와 도시의 복수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는 날 당도한 에네아스가 에르퀼레스와 겹쳐진다면, 그것은 에네아스가 건국 영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중적 의미의 복수자로서, 자신의 복수를 통해 팔랑테의 복수까지 얻어낸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있다. 에네아스는 만약 외앙테르 왕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의 모든 영지를 왕에게서 받을 것이며, 그에 대한 영주권을 왕에게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는 사실상 외앙테르 왕의 가신이 되겠다는 약속으로서, 그를 주군으로 인정하는 대신 원군을 통해 어려운 전세를 극복하고, 로랑트 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실리적인 태도를 보여준다.¹⁰⁴⁾ 물론 이 과감한 발언 또한 에네아스의 소유권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마치 전쟁의 승리가 자연스럽게 토지의 소유권으로 이어질 것처럼 가정하며 로랑트 전쟁을 영토 수복 전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모든 영지를 바탕으로 왕과 협상을 벌인다. 외앙테르 왕은 라티누스 왕과 마찬가지로 에네아스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그의

102)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p. 216.

103) 『에네아스』에서는 언급에 그치지만 『아이네이스』에는 카퀴스와 헤르쿨레스의 신화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카퀴스는 헤르쿨레스의 소들을 빼돌렸고 이에 그의 분노를 사게 된다.(8권 vv. 185-279)

104) 하지만 팔라스의 죽음으로 유일한 후계자를 잃은 팔랑테는 오히려 로랑트에 흡수되고, 로마의 터가 된다.(vv. 4805-4808)

배어난 혈통과 트로이아의 명예를 인정하는 말로 대답을 같음하며 사실상 그의 제안에 동의한다.¹⁰⁵⁾

원작에서 외양테르 왕과 함께 도시로 향할 때 “경탄하며 사방을 둘러보았고, 주위의 경치에 매료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옛 사람들의 유물에 관해 일일이 물어보며 경청했”던 아이네아스와 달리(8권 vv.306-312) 에네아스는 도시로 가는 길 내내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고,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으며, 튀르누스가 어떻게 전쟁을 선포하였는지, 자신이 어떻게 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되풀이해서 설명한다.(vv. 4795-4802) 에네아스는 자신의 관점에서 로랑트 전쟁을 재해석하여, 장기적으로는 정당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원군 확보라는 절박한 과제를 완수한다. 두 번째 연설을 통해 얻어낸 2만 명의 병력, 백척의 배, 13개월 치의 식량은 에네아스가 몽토방의 위기를 타파하고 로랑트를 포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 로랑트 여론의 반전, 튀르누스와의 일대일 결투의 확정, 에네아스의 마지막 연설은 이 위에서 가능하였다.

그들 중 누군가가 무장을 하고 서약하기 전에, 에네아스는 자신의 명분을 표명하였다. 왕과 가신들은 모두 정숙을 지켰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권리를 당신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오만한 자, 무력으로 타인의 영토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로 여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vv. 9343-9350)

Ançois que nus d'aus s'i armast, / ne que sairemant i jurast, / mostre Eneas sa raison; / tolt soi li rois et li baron: / "Seignor, mon droit mostrer vos voil / que nel m'atornoiz a orgoil / que par force voille conquerre / autrui enor ne autrui terre. / [...]"

마지막 연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에네아스는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고, 도시 유력자들과 동맹을 맺었으며, 힘과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도시의 여론을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 영토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첫 번째 연설이나 원군을 요청하는 두 번째 연설과 달리, 마지막 연설은 그 자체로 자신의 명분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는 자칫 자신이 무력으로 타인의 영토를

105) 왕의 첫마디는 다음과 같다. “자네는 무척이나 훌륭한 혈통의 인물이지.”(v. 4746)

차지하는 오만한 자로 보일 것을 우려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뿐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곳에서 저희의 조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르다뉘스라 불리었습니다. [...] 제 아버지는 그의 혈통에 속하였습니다. [...] 신들이 그곳으로부터 저를 빼내어, 이 나라로 보내었습니다. 조상이 태어난 이곳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전 이탈리아를 저에게 주었고, 이탈리아는 제 조상과 선대에 속한 땅이었습니다.(vv. 9351-9366)

De ci fu mis ancestres nez, / qui Dardanus fu apelez; / [...] / mes peres fu de son linage. / [...] / Li damedeu d'iluec me pristrent, / ça m'envoierent el país / dunt mes ancestres fu naïs; / otroiee m'ont tote Itaire, / qui fu mon aire et mon besaire.

그 근거는 물론 귀환의 테마이다. 귀환의 테마는 마지막 연설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다. 신들이 이곳을 가리키며 이 땅 전부를 주었고, 이 땅은 조상들이 태어난 기원의 땅일 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조상과 선대가 소유했던 땅이었다. 그는 아버지 안퀴세스가 다르다뉘스의 혈통이라는 말까지 덧붙인다. 에네아스는 자신의 직계 조상인 다르다뉘스가 태어났고 소유했던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가 이 땅을 요구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경쟁자 튀르뉘스를 꺾어서가 아니라, 신적 질서와 세속의 질서 모두에서 그가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제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땅에 저를 허락하도록 청하였습니다. 저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게 호의를 전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잘 기억한다면, 그는 제게 땅을 허락하였고, 자신의 딸과 함께 땅을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곳에 왔고 이를 다룰 준비가 되었습니다.(vv. 9367-9376)

Quant arivai an cest país, / mes mesages al roi tramis, / que me consantist an sa terre: / ne li sordroit ja par moi guerre. / Il me manda soe merci / que bien saüsse ce de fi / que la terre m'otroieroit, / o sa fille la me donroit. / Isi la claim, venuz sui ci / toz prez de desraisnier issi.

연설의 흐름과 내용은 마치 에네아스의 권리 주장이 왕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이다. 그는 이 땅이 신과 조상에 의해 자신에게 속함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사절을 보냈고 왕의 허락을 구했다. 왕은 호의로 답하여 라빈과 함께 영토를 주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전혀 없었고 왕의 후계자가 되어 평화적으로 땅을 계승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벌어진 전쟁은 “폭력으로 내게서 이 땅을 빼앗으려 하는”(v. 9386) 튀르누스의 탓이 된다.

이로써 에네아스의 연설은 마무리된다. 에네아스가 로랑트에서 보여준 세 연설은 각각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쟁의 승리와 영토 계승을 정당한 것으로 만든다. 전쟁의 시작에서 파리스의 과오, 트로이아 전쟁과 멸망이라는 무거운 과거를 떠안게 된 에네아스는, 로랑트 전쟁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과거까지 구제하였고, 트로이아 재건의 진정한 기반을 성취하는 업적을 달성한다. 영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로랑트 전쟁을, 나아가서는 트로이아 전쟁을 폭력과 오만함에 의한 권리 침탈로 보는 에네아스의 해석 틀은 사실로 보기 애매한 것들이 많고, 전투의 승리와 유리한 전세에 힘입어 비로소 통용될 수 있었지만,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는 전쟁의 각 국면에 맞는 강도와 어조를 사용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어냈고, 원하는 바를 이루되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에네아스를 아이네아스가 아니라 에네아스답게 만들어주는 것, 말 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 그의 해석 틀은 단계적으로 퍼져나가 라티누스 왕, 외앙테르 왕, 도시의 부르주아, 유력자, 가신들을 차례차례 제 편으로 흡수해나갔다. 에네아스와 튀르누스의 일대일 결투는 다시금 많은 피가 흐른 후에야 치러질 수 있었지만, 튀르누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투가 만들어낸 완전한 평화와 결합은 이 정당성 안에서 가능하였다. 과거의 회복과 도시들의 결합, 그것은 멸망한 도시 트로이아가 미래의 도시 로마로 재건되기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기반이었다.

2. 사랑의 기술

2.1. 저승 방문과 사랑의 주제

에네아스의 저승 방문은 원작이 가장 충실하게 번역된 에피소드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¹⁰⁶⁾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그러한 사실에 당황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저승에서 안퀴세스가 기독교에 의해 배척된 고대의 윤회관을 유보 없이 설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¹⁰⁷⁾ 적어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에네아스의 변신에 그만큼 무게를 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윤회의 세계관을 보존하여 에네아스의 변신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시실 섬에서 무리를 가다듬고 고통과 노고를 감내할 이들만을 추려내야 했던 것처럼,¹⁰⁸⁾ 에네아스는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시련에 대비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다. 저승에 내려갔다가 지상으로 돌아오는 에네아스의 여정은 마치 윤회처럼, 기존의 삶에 단절을 고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푸아리옹이 이 변신의 의미를 사랑에서 찾았다는 점은 이미 이야기하였다. “저승하강은 분명 두 번째 부분을 준비하지만, 죽음의 해방적 정화 체험을 통해 특히 디도의 에피소드를 끌어낸다. 에네아스는 변화되고 입문하여 저승을 나온다.”¹⁰⁹⁾ 저승에 보다 구조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면 푸아리옹을 비판하고 디도, 저승, 라빈의 3부 구성을 주장한 위세의 시각도 근본적으로는 크게

106) “『아이네이스』 6권은 『에네아스』에서 가장 충실하게 번역된 권 중 하나이다.(대략적으로 헥사메타 900행이 8음절 시구 800행으로 번역되었다.)”, R. J. Cormier, *One Heart One Mind...*, p.178.

107) 코르미에와 모라-르브렁은 고대 윤회관과 기독교 정통 교리의 충돌을 지적하며, 나름의 설명을 모색한다. *Ibid.*, pp.178-187., F. Mora-Lebrun, *L'“Énéide” médiévale...*, pp.212-216.

108) “cil ne sont gaires qu'il an moine, / mais mal poënt sofrir et poine.”(vv. 2249-2250)

109) D. Poirion, “De l'Énéide à l'Enéas...”, pp.226-227.

다르지 않다.¹¹⁰⁾ 위세는 저승을 지옥과 상젤리제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디도와 사랑이야기가 지옥에서 회고적으로 반영되며, 라빈과의 사랑이야기가 상젤리제에서 전망적으로 예고된다고 보았다. 이들에게 저승은 디도에서 라빈으로 넘어가는 문턱이자, 에네아스의 사랑이 극적으로 변모하는 전환점이다.

하지만 전쟁의 주제를 재고한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안취세스가 로마를 건국하고 세계를 지배할 에네아스의 후손들을 일일이 읊은 후 알려준 것은 결국 그가 벌여야 할 전투들과 감내해야 할 노고들이었다.¹¹¹⁾ 그는 후손들을 가르쳐주기 전에도 “그들의 이름을 네게 알려준 후에 나는 네가 겪어야 할 싸움과 고통을 알려주겠다”고 말해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¹²⁾ 에네아스와 후손들이 세계의 지배권을 얻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쟁의 승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원작과 달리 저자는 안취세스의 계시를 들은 에네아스의 열띤 반응을 덧붙여 그의 변신 과정을 상세하게 풀이해준다.

에네아스 경은 그곳에서 알게 된 것에 무척이나 고양되었고, 그의 후손이 그토록 현양되어 세계가 이들에게 고개 숙인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나도 기뻐했다. 그는 영원히, 끝없이 통치할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커다란 기쁨을 느끼며, 트로이아의 고통을 잊었다. 대신 그는 그가 땅을 얻기 전 치러야 할 싸움들과 겪어야 할 고통들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vv. 2985-2996)

Molt est danz Eneas espris / de ce qu'il a iluec apris, / molt se fait liez de sa ligniee, / qu'il voit qui tant ert esçauciee / que li monz ert vers lui acilin; / il regnera toz tens senz fin. / Anz an son cuer an a grant joie, / oblié a le duel de Troie, / et nequedan pansis estoit / des batailles que il avroit, / des maus que li estuet sofrir / ainz que viegne a terre tenir.

에네아스의 변화에서 사랑의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트로이아 멸망 후 고생만을 거듭해온 그가 여기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낀 것은 그의 후손들이 세계

110)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p. 111-113.

111) "Tot li a mostré Anchisés / et puis li a noncié anprés / les batailles que il fera / et les travailz qu'il soferra."(vv. 2981-2984)

112) "en après les te nomerai / et les batailles te dirai, / les mals qu'il t'estovra sofrir,"(vv. 2929-2931)

를 지배할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영원히, 끝없이 통치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사는 영원한 통치권이고, 그 수단은 전쟁이다. 지금까지 의무로 부과되었던 것들이 욕망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들에 골몰한다.

저승에서 사랑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에네아스와 디도의 후일담을 우회할 필요가 있다. 디도가 원작과 달리 남편 시세우스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그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¹¹³⁾ 이 각색은 파리스와 엘루엔의 불륜을 환기하면서, 디도의 사랑이 가진 부정적 성격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디도 이상으로 원작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에네아스의 태도이다. 중세 소설은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디도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고, 그녀를 달래려 애쓰고, 그녀의 부당한 운명에 충격 받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아이네아스의 모습을 삭제한다.(6권 vv. 450-476)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추가한다. “제가 그대 죽음의 원인이 되었지만 저는 그 죽음에서 잘못도 죄도 없습니다.”¹¹⁴⁾ 소설에서 에네아스는 신들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해명을 넘어 자신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인한다. 또 다른 각색이 이를 보조한다. “제가 그대를 떠날 때, 그대가 죽음보다 더 나은 위안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¹¹⁵⁾ 그는 카르타고에서 출항을 고민하면서 그녀가 자살할까, 그의 출항이 그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적이 있었다.¹¹⁶⁾ 에네아스는 자신이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디도에게 돌린다.

이러한 각색은 무엇을 의미할까? 중세 저자는 훗날 아마타 왕비가 비난할 신의 없는 사내의 모습을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것일까? 해석의 단초를 얻기 위해 에네아스가 떠나가는 방식에 주목해보자. 화가 난 디도가 숲으로 떠나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아이네아스와 달리 에네아스는 별다른 반응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v. 2663) 전사자들의 평원에서도 그는 데이페뷔스를 비롯한

113) “베르길리우스와 다르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다. 디도는 원작에서의 태도와 반대로, 저승에서 남편을 향해 차마 얼굴을 돌리지 못한다.”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p. 227.

114) “ge vos fui acheison de mort, / mais ge n’i oi colpes ne tort.”(vv. 2633-2634)

115) “quant ge de vos me departi, / ne cuidai pas qu’il fust ansi / ne trovesiez aucun confort / qui vos pleüst mielz que la mort.”(vv. 2647-2650)

116) “et molt dote la departie / de la dame, qu’el ne s’ocie ; / crient que li tort a grant contraire,”(vv. 1635-1637)

트로이아 영웅들에게서 몸을 숨기고 달아남으로써 재회를 끝낸다. 원작의 데이포부스가 감동스러운 인사말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빌어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6권 vv. 545-546)¹¹⁷⁾ 에네아스가 저승까지 내려와 자신이 버려두고 떠난 이들과 다시 만나야 했던 것은 어떤 반성이나 사과,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뒤로한 채 망각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을 버린 에네아스의 행위가 저승에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안취세스는 에네아스가 트로이아에서 도망치고 디도를 버린 것이 어떤 위대한 사명과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제시해보였다. 영광된 미래를 얻기 위해서 그는 그들을 버려야 했고, 그 사실을 확인 받자 에네아스는 커다란 기쁨을 느끼며 “트로이아의 고통을 잊었다 oblié.”(v. 2992) 『에네아스』의 저승이 망각의 주제를 강조한다는 점은 여러 번 지적되었다. 원작에서 레테는 환생을 할 때 저승의 일을 잊게 만드는 물로 소개되지만(6권 vv. 748-751), 소설은 레테를 스틱스 강가에 위치시켜 이승의 삶을 잊기 위해 마시는 물로 바꾸어놓았다.(vv. 2496-2504)¹¹⁸⁾ 이로써 『에네아스』에서는 죽음이 삶의 망각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생겨나고, 죽음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저승 여행은 과거를 하나씩 떠나보내는 망각의 여정이 된다. 에네아스는 그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죄책감과 부담감을 떨쳐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상젤리제에서 일어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한다.

안취세스의 제시, 에네아스의 반응, 디도 및 트로이아 영웅들과의 결별까지

117) “아이네아스의 과거청산은 데이포부스의 망령을 만남으로써 마지막 귀결이 마련된다. [...] 즉 그(데이포부스)는 멸망한 트로이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니까 마치 트로이아의 한이 형상화된 것 같은 존재와 만나고 헤어짐으로써 아이네아스는 드디어 트로이아 멸망의 악몽을 최종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 데이포부스가 헤어지면서 아이네아스에게 건네는 말이 곧 과거를 완전히 털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이태수, 『『아이네이스』 6권에 나타난 로마인의 가치관 - 아이네아스의 변신과 pietas』, 『서양고전학연구』, 7, 1993, p. 208.

118) 저자의 이러한 각색은 디도를 비롯하여 그리스, 트로이아 장수들이 모두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을 일으킨다. 저자가 어떤 전거를 가지고 각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그리스 신화에 보다 가까운 설정으로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레테 강은 저승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5개의 강물 중의 하나로 여겨지지만, 이승의 삶을 모두 기억하는 저승의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에네아스』는 『아이네이스』가 레테 강으로 소개한, 환생을 할 때 저승의 일을 잊게 해주는 망각의 물도 남겨놓되, 이 물에 레테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vv. 2911-2920) 레테의 각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F. Mora-Lebrun, *L'“Énéide” médiévale...*, pp. 211-216 참조.

저승에서 펼쳐지는 모든 에피소드들은 에네아스의 변신이 오로지 통치권 획득을 위한 것이며, 여기에서 사랑은 필요가 없거나 망각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드러낸다. 과거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잊혔고, 미래의 사랑은 전쟁에 밀려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과도한 정욕과 진정한 사랑의 대립 이전의 문제로서, 『에네아스』에서 사랑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 채 정치에 종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퀴세스가 에네아스를 맞이하며 건넨 말도 이를 보충한다. 원작에서 그는 디도가 아이네아스를 해칠 것을 걱정했지만,(6권 vv. 693-694)¹¹⁹⁾ 중세 소설에서 그는 카르타고에서의 체류가 에네아스의 임무를 망쳐버릴 것을 두려워했다.¹²⁰⁾ 안퀴세스에게 중요한 것은 디도와의 사랑이 정욕의 추구였는지, 부정합 결합이었는지가 아니라 에네아스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는가, 그것뿐이다. 에네아스의 후손들을 나열할 때에도 그는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 그에게 라빈은 통치권 확장에 기여할 후손을 낳아주는 매개체였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나갈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에네아스』가 사랑의 주제를 쫓피우며 소설의 세계를 열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디도와 방탕함에 빠졌던 에네아스가 저승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라빈과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이다. 모라-르브렁은 보에티우스가 『철학의 위안』에서 찬양한, 갈등을 종식시키는 사랑의 원리가 작품에 도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에네아스』의 사랑은 정치를 구원한다기보다 방해하고 갈등하면서, 화해하기 어려운 길항 관계를 유지한다. 디도와 라빈의 대립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디도와의 사랑이 과오이고 라빈과의 사랑이 교정이라면, 그것의 기준은 사랑의 욕망이 통치권 획득의 사명과 어떻게 조화되는가에서 결정된다. 에네아스는 디도와의 사랑에서 트로이아 재건의 여정을 포기하는 과오를 저질렀지만, 저승에서 계시를 받고 전쟁에 집중하면서 통치와 사랑의 조화를 꾀하는 사랑의 기술을 선보인다. 그 조화는 결혼과 대관식에서 정점에 이르고, 에네아스는 이를 통해 영토 상속과 왕권의 획득을 이룩해낸다. 디도와 라빈의 에피소드는 사랑과 통치의 갈등이라는 저자의 사랑관을 구현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된다.

119) 원작에서 유피테르는 디도와 튀리아 인들이 아이네아스 일행을 해칠 것을 염려하여 메르쿠리우스를 미리 보내 환대의 마음을 불어넣었다.(1권 vv. 297-304)

120) "molt me dotai de cel ostage / que vos eüstes an Cartage, / n'an perdissiez tot vostre afaire"(vv. 2853-2855)

2.2. 디도

의무와 사랑의 대립이라는 주제는 『아이네이스』의 디도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사의 흐름은 두 작품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디도와 사랑에 빠진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아 재건의 사명을 잊었고, 메르큐리우스가 전달한 유피테르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디도에게 결별을 고하고 다시 항해 길에 오른다. 하지만 『에네아스』가 원작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의무와 사랑의 대립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의 하나로 강조된다는 점이다. 뒤로는 라빈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앞으로는 디도 에피소드의 각색을 통해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이 경고된다. 원작과 달리 소설에서 이 대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에네아스가 아니라 디도이기 때문이다.

에네아스가 고장의 탐색을 맡긴 기사들은 계곡과 산, 숲과 들판을 넘어 마침내 대로에 접어들고 그 끝에서 카르타고를 발견한다. 화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카르타고를 보았다. 디도가 성채를 다스리던 그 도시를. 디도 부인이 이 고장을 다스리고 있었다. 어떤 백작이나 후작도 더 잘 다스릴 수 없을 것이었다. 일찍이 한 여성에 의해 봉토나 왕국이 이보다 훌륭히 유지된 적이 없었다.(vv. 375-380)

Cartage virent, la cité, / dont Dido tint la fermeté. / Dame Dido tint le país; / miaus nel tenist quens ne marchis; / unc ne fu mais par une feme / mienz maintenu enor ne regne.

카르타고의 첫인상은 디도의 통치권에 대한 강조로 특징지어진다. 그녀는 카르타고의 지배자였고, 누구보다 훌륭히 도시를 다스렸다. 마르켈로-니지아는 작품 전체에서 여성이 땅의 환유처럼 여겨진다고 주장하면서, 자주 발견되는 'feme/regne'의 각운을 하나의 근거로 인용하였지만 카르타고에서 이 각운은

디도가 곧 통치권자임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vv. 379-380, 553-554)¹²¹⁾ 뒤이은 묘사들도 디도의 군주로서의 면모를 강화한다. 디도는 소의 가죽을 얇게 자르는 책략을 구사하여 땅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고,(vv. 392-402) “부유함과 영리함, 용맹함으로 수없이 정복하여 고장 전체를 얻고, 제후들을 굴복시켰다.”¹²²⁾ 디도의 묘사는 여느 여성 인물과 같지 않다. 외관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는 일절 배제된 채¹²³⁾ 그녀는 오로지 탁월한 군주로서 묘사되고, 변창하는 카르타고의 건설을 몸소 지휘하는 인물로 등장한다.¹²⁴⁾ 그녀는 에네아스에 앞서, 그리고 에네아스와 마찬가지로 책략과 전쟁을 통해 도시 건설에 성공한 선배 격의 군주였다.

디도의 뛰어난 통치는 길게 펼쳐진 카르타고의 묘사에서 정점에 이른다. 천혜의 자연 조건과 경이로운 성벽으로 방비한 카르타고는 “벼락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vv. 408-444, 466-470, 497-505) 성벽과 내벽에 새겨진 부조, 갖은 색상의 대리석, 궁전을 장식한 수없이 많은 보석들이 부와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커다란 시장과 온갖 문물로 도시민들은 풍요로웠다.(vv. 421-465) 디도는 궁전의 근처에 신들의 여왕 쥐노(유노) 여신을 기리는 신전을 지었고, 쥐노는 카르타고가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누리기를 바랐다.(vv. 515-523) 디도가 카르타고에 부여하려던 지배권을 로마가 받아갈 때까지(vv. 542-544) 카르타고는 에네아스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였다.

물론 디도의 통치권과 부강한 카르타고의 모습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울프는 소가죽의 넓이만큼 땅을 사겠다고 속여 넓은 땅을 얻어낸 카르

121) 마르켈로-니지아의 주장은 해당 각운을 해석하는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실제로 첫 네 행 중 3-4행의 ‘regne/fenne’ 각운도 여성이 왕국 멸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할 뿐, 여성을 왕국과 동일시하는 함축을 갖지는 않는다. 여성과 왕국 혹은 여성과 땅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묶일 수 있고, 마르켈로-니지아가 주장한 동일시가 전형적으로 부각되는 곳은 라빈의 에피소드이다. C. Marchello-Nizia, “De l’*Énéide* à l’*Eneas...*”, pp. 251-266, 2장(“Femme=Règne”) 참조.

122) “puis conquist tant par sa richece, / par son angin, par sa proëce, / que ele avoit tot le païs / et les barons a soi sozmis.”(vv. 403-406)

123) 원작에서 디도는 아름답다는 뜻의 형용사 ‘pulcher’의 최상급을 동반하며 등장한다. “forma pulcherrima Dido”(1권 v. 496)

124) “Encor idonc ne par ert mie / cele cité tote fornie, / encor faisoit Dido overr / as murs entor por miauz fremer.”(vv. 545-548) 이 장면에서 디도는 작중 등장인물(트로이아 기사들)의 눈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타고가 교활한 술책과 배신 위에 세워졌고,¹²⁵⁾ 전사들을 끌어들이며 무장을 벗겨내는 도시의 자석 성벽이 디도의 성적 유혹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면서,¹²⁶⁾ 카르타고가 그럴듯한 외관으로 위험을 숨긴 거짓된 신기루라고 진단하였다. 위세도 비슷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그가 보기에 카르타고의 화려함은 여성이 통치한다는 비정상적 상황의 불길한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사랑에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 본연의 유약함 *mollitia*이 곧 드러날 것이고, 사랑이 솟아오르면 권력은 추락할 것이다. 위세는 카르타고가 융성한 도시였던 만큼, 여성 통치자와 그녀의 사랑이 가져온 비극적 결말이 보다 분명하게 부각된다고 주장한다.¹²⁷⁾

하지만 이들의 지적은 텍스트 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 가능하다. 땅을 얻어내기 위한 디도의 책략을 배신이라 규정한 것은 울프이지 화자가 아니다. 울프와 모라-르브링은 'engin'이 파리스와 월릭세스, 디도에게서 자주 등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중세 저자가 'engin'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¹²⁸⁾ 단어 'engin'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모

125) “하지만 그 신기루는 거짓이다. [...] 가장 분명한 지표는 도시의 과거로, 도시 건설의 에피소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 이렇게 본다면 『에네아스』는 이 튀리아 여인이 뿜어내는 요정의 분위기보다는, 280-285행에 명백하게 인용된 그녀의 계략을 더 부각한다. 카르타고의 건설은 다소간 배신의 결과물이다.” M. Possamai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113. A 수고에서는 392-402행이 이에 해당한다.

126) “도시를 명백하게 유혹의 힘을 부여받는다. 자석으로 된 방벽은 다가오는 전사들의 무장을 해제시킨다. 바꾸어 말해, 탁월하게 여성화된 도시 카르타고의 성벽은 도시를 지배하는 여왕의 성적인 자성(磁性)을 상징한다.” *Ibid.*, pp. 113-114. 이 주장은 모라-르브링에게서 연유한다. 그녀는 클로디아누스의 시에서 자석이 베누스, 마르스의 관계와 결부되어 “성적 유혹의 이미지이자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모라-르브링은 클로디아누스의 시들이 『에네아스』의 중요한 전거의 하나라고 추정한다. F. Mora-Lebrun, “Source de l'Énéas : la tradition exégétique et le modèle épique latin”, *Relire le “Roman d'Énéas”*, dir. J. Dufournet, Champion, coll. “Unichamp”, 1985, pp. 99-100.

127)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만 디도의 권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일반적인 봉건제의 관습과 반대로 여성에게 ‘왕국’을 맡긴 비정상이 어떤 규모로 불길한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것을 더 잘 부각하기 위해서 말이다.” 위세는 『에네아스』가 디도가 일으키는 성역할의 일탈, 그로 인해 생겨나는 혼란을 강조하고 또 이 일탈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소설은 남성 모델과의 동일시를 허물도록, 여성이 남성 아래에 나타나도록, 디도를 자신의 성별에 할당하도록, 중세 시대 여성의 본성과 분리 불가능한 연약함을 드러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p. 114-118.

128) F. Mora-Lebrun, *L'“Énéide” médiévale...*, pp. 197-199.

두 들어 있으며,¹²⁹⁾ 화자는 파리스와 윌릭세스, 디도의 'engin'에 어떠한 부정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engin'은 디도의 통치권과 카르타고의 강력함을 묘사하는 가운데 등장하였고, 도시를 건설하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시 전체가 성적 유혹의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석으로 만들어진 성벽에서 성적 유혹을 읽어내는 것은 가능한 해석이지만, 성벽의 경이는 무장 세력의 출입을 막는 방어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묘사되었다. 여기에서 유혹의 암시를 읽기 위해서는 디도가 실제 유혹자로 등장한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에 빠진 그녀의 행위는 서투르고 어색하여 노련한 유혹자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고,¹³⁰⁾ 애초에 디도는 에네아스를 유혹하기 전에 에네아스에게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디도에게서만 유혹자의 이미지를 읽어내는 것은 다소 부당한 해석이다.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기에 디도가 보여주는 군주로서의 면모들, 발전하는 카르타고의 모습들은 그 묘사가 일관적이고 분명하다. 현명함과 용맹함, 부유함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에서 치명적인 유혹의 그림자를 읽기는 쉽지 않고, 쥐노의 가호, 강력한 요새, 문물의 풍요로움을 모두 갖춘 카르타고를 한낱 신기루로 보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디도와 카르타고의 이상적인 모습은 위세가 말한 것처럼 몰락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고안된 장식물인 것일까? 우리는 위세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한 가지 수정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디도와 카르타고의 몰락은 여성이 통치한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상적인 군주마저도 무너뜨리는 사랑의 파괴적 힘을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그녀는 땅을 잘 다스렸고 전쟁을 훌륭히 치르고는 하였으나, 이제 의욕을 잃고 현명치 못하게도 모든 것을 망각해버렸다.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땅을 다

129) 해닝은 고드프루아를 인용하면서 'engin'이 솜씨, 기술, 기법 등의 긍정적인 뜻과 속임수, 사기, 계략 등의 부정적인 뜻을 모두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만 그는 파리스와 디도의 'engin'에 양가적인 뜻이 모두 담겨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해석과 차이를 보인다. W. Hanning, *op. cit.*, pp. 83, 89-90.

130) 디도는 에네아스의 손을 잡아끌어 융성한 도시를 구경시키고 그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것들을 묻는 등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만,(vv. 1393-1400) 에네아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였다.”(v. 1394)

스리고 유지하는 방법을 잊게 만들었다. 적이 그녀의 땅을 짓밟는데도, 그녀는 전쟁도 평화도 중시하지 않았다. 그녀를 괴롭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면 이제 그녀에게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온 백성들은 그녀에게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힘도 도움도 얻지 못했고, 이제 벽도 탑도 쌓지 않았으며 작업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벽의 건설은 중단된 채, 어느 쪽은 높고 어느 쪽은 낮았다. 그녀는 에네아스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았다.(vv. 1409-1426)

molt soloit bien terre tenir / et bien soloit guerre baillir, / or a tot mis an nonchaloir / et an obli par non savoir. / Amors li a fait oblïer / terre a tenir et a garder. / Si enemi gastent sa terre, / el ne prise plus pais que guerre, / de nule rien mes ne li chalt, / ne mes d'amor qui molt l'asalt, / et molt a mes tote sa gent / par li malvés maintenant; / de li n'ont force ne secors, / ne montent mes es murs n'es tors, / de l'ovrer n'est conte tenu, / pandent li mur antrerompu, / an un leu halt, an autre bas : / tot a perdu por Eneas.

저자는 도시의 건설이 중지되었음을 알리던 원작의 구절에 살을 덧붙인다.(4권 vv. 86-89) 디도는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잊었고, 전쟁하는 법을 잊었으며, 백성들을 보살피고 지휘하는 법을 잊었다. 한 마디로 디도는 통치의 끈을 놓았고, 그 결과는 훨씬 처참하였다. 도시의 발전이 멈추었을 뿐 위기에 빠지지 않는 않았던 원작의 카르타고와 달리 『에네아스』에서 도시는 적들에 짓밟혀 황폐화되는 데 이른다.

통치를 파괴하는 사랑의 모습은 디도의 사랑이 실현된 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원작에서 디도가 도시 건설에 손을 놓았던 것은 짝사랑에 고통 받았을 때뿐이었다. 아이네아스와 디도가 방탕함에 빠져 나라를 잊었다는 이야기는 소문의 여신이 퍼뜨린 거짓말이었고, 신들의 전령 메르큐리우스는 디도 대신 카르타고의 건설을 지휘하는 아이네아스의 모습에 조롱의 말을 퍼붓기도 하였다.(4권 vv. 259-267)¹³¹⁾ 하지만 중세 소설은 이를 가필하여, 화자가 소문의 여신이 퍼뜨린 말을 이어 받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해준다.

이 소문이 리비아 전역에 부인의 변절을 알렸다. 소문이 말하기를, 트로이아

131) 『아이네이스 I』, 김남우 역, p. 182, 191-194행 주석과 p. 187, 260행 주석 참고.

에서 한 사내가 왔는데, 디도가 카르타고에서 그를 자신에게 붙들어두었고, 이제는 그 사내가 그녀를 방탕함 속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둘은 겨울 내내 정욕에 빠져 지냈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인은 자신의 일을 방기하였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도 자신의 여정을 방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만 매달렸다.(vv. 1567-1578)

Par Libe nonce ceste fame / la felenie de la dame; / dit que de Troie estoit venu / uns hom, Dido l'a retenu / ansamble soi anz an Cartage; / or la maintient cil an putage. / An luxure andui se demeinent / lo tens d'iver, d'el ne se pointent; / la dame an laisse son afaire, / nule autre rien ne panse gaire, / et cil en a guerpi sa voie, / et l'un et l'autre s'i foloie.

변절, 방탕, 정욕 등의 단어들이 주의를 끌지만 방점은 여전히 결과에 찍혀 있다. 연인들은 사랑에 빠져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해야 할 일들에서 손을 놓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쳤다. 사랑의 열병에 고통 받을 때에도, 사랑의 쾌락을 즐길 때에도 디도는 사랑에 마비되어 도시를 돌보지 않는다. 저자가 원작과 달리 카르타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던 것은 사랑의 벼락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도시의 비극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세가 말한 것처럼 여성이 통치한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결과, 사랑에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의 유약함의 결과로 볼 수 있을까? 여성이 통치한다는 것은 당시 봉건제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이었을지 모르나 고대 소재를 다룬 이 작품이 그러한 당대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 문제이다. 위세는 그 근거로 디도의 구혼자들과 안나의 말을 인용한다.¹³²⁾ 하지만 디도의 구혼자들은 그녀가 남편에게 한 맹세를 어기고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비난했을 뿐 여성의 통치 가능성을 문제 삼지 않았고,(vv. 1589-1604) 여자에게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안나의 충고는 디도의 사랑을 부추기기 위한 것으로서, 화자는 이로써 그녀가 잘못 위로하였다고 평한다.(v. 1387) 디도가 전쟁을 훌륭히 치러왔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되었고, 작품에는 전쟁과 통치를 완벽하게 수행한 여성, 카밀이라는 반례가 존재한다. 사랑을 자제하지 못하는 여성 본성의 유약함도 마찬가지이다. 신들의 경고를 받기 전 에네아스는 디도와 동일한 과오를 저질렀고, 그에 앞서서는 파리스가 있었

132)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 115.

다. 작품에서 사랑의 광기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카르타고의 파멸은 디도의 여성정보보다도 그녀가 에네아스의 분신이라는 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디도는 에네아스의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녀는 고국에서 쫓겨나 무리를 이끌고 도망쳤고, 바다를 향해해 리비아에 왔다. 그녀는 이방인 출신으로 도시를 세우며 많은 고난과 불행을 겪었다. 디도는 일리오네스에게 답변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에네아스와 비슷했음을 언급한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훨씬 힘든 처지였습니다. 저는 이곳 출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고,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을 보면 연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¹³³⁾ 또한 책략을 활용한 도시 건설과(vv. 392-402) 전쟁 수행(vv. 403-406) 등 원작과 달리 책략을 사용한다는 점도 그녀를 에네아스에 가깝게 만든다.¹³⁴⁾ 에네아스와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해 도시를 세웠고, 미래의 패권을 노리고 있는 디도는 라빈과 대비되는 동시에 에네아스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에네아스이다.¹³⁵⁾

과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에네아스는 사랑에 빠져 트로이아 인들을 보살피기를 그만두었고, 자신에게 부여된 도시 건설의 사명을 포기하였다. 신들의 도움으로 그는 잘못에서 벗어나지만, 그의 과오가 초래했을 결과는 디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땅과 그 여성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에네아스는¹³⁶⁾ 디도가 일리오네스에게 답하며 처음 이야기했던 제안, 원한다면 “나의 민족과 그의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제안을 실현하려 한다.¹³⁷⁾ 아무리 디도가 “튀리아 인을 트로이아 인보다 더 아끼지 않을 것”이라 약속한다 해도, 디도의 제안은 카르타고가 트로이아를 흡수하고, 에네아스를 자신의 가신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었다.¹³⁸⁾ 디도에게 에네아스의 사명은 버려야 할 분별

133) “Ge refui ja plus egaree, / quant ge ving an ceste contree, / car ne sui pas de cest païs ; / par moi lo sai, bien l’ai apris, / que ge doi bien avoir pitié / d’ome, sel voi desonsoillié.”(vv. 615-620) 울프는 수고 D를 분석한 프티를 인용하며 말한다. “두 유배자의 수렴점을 확고히 하는 Tiriaine와 troiaine의 각운.”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112.

134) 원작에서 디도와 그녀의 민족은 아마존에 비견되는 여전사의 면모로 특징지어진다.(1권 vv. 336-339, 490-502)

135) 울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디도의 현재는 에네아스의 미래이다.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113.

136) “toz est livrez a male voe, / et terre et fame tient por soe.”(vv. 1613-1614)

137) “ma gent et la soe soit une ;”(v. 633)

138) “디도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 또한 땅을 소유하였다.

없는 생각이었고,(vv. 629-630) 그녀는 에네아스와 통치권을 나눌 생각이 없었다.¹³⁹⁾ 트로이아 유민들의 반응도 이를 방증한다. 모험을 다시 떠나게 된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출항 준비에 나섰다. “카르타고에서의 체류가 그들에게는 괴로웠기 때문이다. 모두는 무척이나 떠나고 싶어 했고, 편히 지냈던 에네아스가 아니라면 이 체류가 마음에 들었던 이는 아무도 없었다.”¹⁴⁰⁾ 트로이아 유민들은 방치된 채 카르타고에 녹아들지 못했다.

중세 저자가 디도의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행한 섬세한 각색들은 이 점에서 일관된 의미를 획득한다. 디도와 도시의 이상적인 묘사는 군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시를 무너뜨리는 사랑의 파괴적 힘을 강조하며, 디도는 에네아스의 분신으로서 그가 다다랐을지 모를 과오의 끝을 대신 보여준다. 세계를 지배할 로마와 로마에 비견되는 카르타고조차 사랑의 힘에 위기를 겪었고, 디도와 에네아스가 대표하는 현명함은 사랑 앞에서 무력하였다. “디도는 너무나도 분별 없이 사랑하였고, 현명함은 그녀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¹⁴¹⁾ 신들의 경고를 받은 에네아스는 사랑을 포기함으로써 과오에서 벗어나지만, 디도는 끝내 파멸하였고 황폐화된 도시는 군주를 태우는 불길 속에서 비탄에 빠진다.

마치 주인공이 뒤바뀐 것처럼 에네아스의 존재감이 흐려지고 디도가 전면에 내세워진 것도 이 점에서 설명된다. 디도는 에네아스의 잘못된 미래를 보여주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라빈과 반대로, 권력을 쥐고 있던 것은 디도였다. 중세 소설에서 디도는 분명하게 에네아스의 호적수이자 그와 대등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 역시 동일한 모험을 겪었고 도시를 건설하였다. 시구의 동일한 구조를 통해 『에네아스』의 저자는 이 평행관계를 표시한다.

A une part de la cité tint Eneas une erité (v. 25-26),

A une part de la cité assist Dido sa fermeté (v. 497-8)

무엇보다도 디도가 에네아스에게 제공했던 것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거주였다.(v. 622) 에네아스는 진정한 건설자가 될 수 없을 것이었다.” C. Marchello-Nizia. “De l’Énéide à l’Eneas...”, p. 265.

139) 원작에서는 디도가 통치권을 나누었음을 짐작하게 할 만한 구절들이 등장한다. “신의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해요. 해변에 내던져진 거지였던 그를 나는 받아들이려 바보처럼 내 왕권에 참여하게 했지요.”(4권 vv. 373-374), “불행한 디도여, 네 비행들이 이제야 가슴에 사무치는가? 네가 네 왕홀을 내주었을 때 그랬어야지.”(4권 vv. 596-597)

140) “car cel se jors lor enuiot ; / chascuns l’aler molt desirrot, / n’an i a nul cui l’ester pleise, / fors sol a lui qu’ert a son ese ;”(vv. 1651-1654)

141) “mais ele ama trop folemant, / savoir ne li valut noiant.”(vv. 2143-2144)

고, 사랑과 통치의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 관계를 구현하는 인물이다. 『에네아스』에서 극대화된 디도의 비극성은 여기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아이네이스』와 『에네아스』 모두에서 디도는 사랑의 치명적인 광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원작에서 디도가 주인공의 소명에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버림받은, 그러면서도 영원한 복수를 선포하며 저주를 퍼붓는 전투적인 여성이라면, 중세 소설의 디도는 남성에게 버림받은 여성을 넘어, 사랑과 통치의 근본적인 대립 사이에서 찢겨나간 군주를 형상화한다.

이 옷가지 위에서 그리고 내가 모욕당한 이 침대 위에서 나는 내 삶을 끝내고자 한다. 이제 나는 내 봉토와 가신들을 남겨두고, 후계자 없이 카르타고를 떠나며, 내 명성과 모든 영광을 잃는다. 하지만 적어도 트로이아 인들이 영원토록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기억 없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내게 이런 걱정을 불어넣기 전에 나는 무척이나 용맹하였고, 지혜로웠다. 나를 배신하였고, 그에 대한 사랑에 내가 목숨까지 잃은 그 트로이아 인이 내 나라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그가 부당하게 나를 죽였지만, 이제 나는 이 죽음을 용서한다.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나는 그의 침대에서 그가 남긴 옷가지들에 입 맞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에네아스여.(vv. 2049-2067)

Sor ces dras voil fenir ma vie / et sor lo lit ou fui honie; / ci lais
m'enor et mon barnage, / et deguerpis sanz oir Cartage, / ci perc mon
nom, tote ma glorié, / mais ne morrai si sanz memore / qu'en ne parolt
de moi toz tens, / vials non antre les Troïens. / Molt fui ançois et pros
et sage, / que me donast amor tel rage, / et molt fusse buone eüree, / se
ne venist an ma contree / li Troïens qui m'a traïe, / par cui amor ge
perc la vie. / Il m'a ocise a molt grant tort; / ge li pardoins ici ma mort
; / par nom d'accordement, de pais, / ses garnemenz an son lit bais. /
Gel vos pardoins, sire Eneas.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에 속할 이 독백은 원작의 독백과 전혀 다른 감정선을 그려낸다. 원작에서 옷과 침대는 즐거웠던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등장하지만,¹⁴²⁾ 위 인용문에서는 통치권을 상실한 회한의 장소

142) “그리고 그곳에서 일리움의 옷들과 잘 알고 있는 침대를 보게 되자 잠시 눈물을

로 변모한다. 디도는 사랑을 상징하는 옷과 침대 위에서 자신이 봉토와 자신과 나라를, 명성과 모든 영광을 상실하였음을 고향된 어조로 표현하고, 자신의 두 덕목, 용맹함과 현명함까지 잃었음을 부연한다. 그리하여 옷과 침대는 사랑과 통치의 배타적 관계를 보다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소품이 된다. 이렇게 강조된 통치권의 상실은, 원작의 디도가 침대에 누워 자신이 이룬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던 것과도 대비를 이룬다. “이름난 도시를 세우고 내 자신의 성벽들을 보았으며, 남편의 원수를 갚고 내 적이었던 오라비를 응징”한(4권 vv. 655-658) 그녀는 사랑을 하면서도 자신의 통치권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에게 모든 불행의 원인은 아이네아스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뿐이었다.

디도가 에네아스를 용서한다는 충격적인 각색은 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이네아스만이 문제라고 생각한 원작의 디도가 그를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4권 vv. 658-663) 그녀는 보잘 것 없던 그를 환대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치욕과 배신감을 느끼며 그를 저주하고, 복수를 맹세한다.(4권 vv. 590-629) 하지만 중세 소설에서 디도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파멸을 맞이하였고, 위 독백은 그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언해준다. 옷과 침대 위에서 모든 것을 떠나보낸 그녀는 그 상실의 원인을 에네아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는 그녀의 부당한 죽음의 원인일 수는 있어도 그녀의 통치권 상실의 원인은 아니었다. 사랑과 통치가 대립하는 『에네아스』의 세계관에서 사랑을 선택한 것은 디도 자신이었고,¹⁴³⁾ 상실과 회한의 장

홀리며 회상에 잠겼다가 침대 위에 누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4권 vv. 648-650)

143) 보통 디도의 사랑은 베누스의 계략에 의해 탄생하였다고 여겨지지만, 저자는 베누스의 권능 이전에 이미 디도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수많은 지표들을 배치해두었다. 우선 디도와 에네아스의 첫 만남은(vv. 700-722) 라빈의 사랑이 탄생하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vv. 8036-8046)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에네아스, 도시 사람들의 찬탄, 어수선함이 귀를 어지럽히는 가운데 피어난 아름다움에 대한 매혹, 그것에 도장을 찍듯 작용한 신의 권능. 카르타고에서 베누스는 아스카니우스를 통해 사랑의 입맞춤을 전달하고, 로랑트에서 아모르는 아름다움을 바라본 두 눈에 사랑의 화살을 쏜다. 또한 디도는 첫 만남에서 에네아스가 인사하자마자 “오른손을 잡아끌었고”(v. 723), 성의 “창문 아래 자리잡았다.”(v. 724) 전자의 모습은 사랑의 열병에 시달리던 디도가 에네아스를 손으로 잡아끌며 도시를 구경시켜주던 모습과 상응하고(v. 1393), 창문의 자리는 라빈의 사랑이 싹트고 심화되었던 장소를 연상시킨다.(vv. 8070-8071, 8120-8121, 8666-8667)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에네아스가 귀중한 선물들을 증정하였을 때에도 디도는 이미 “선물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선물을

소가 된 옷과 침대에 마지막 입맞춤을 건넌으로써 그녀는 다시 한 번 그 사랑을 긍정한다. 동일한 양자택일 앞에서 에네아스는 통치권을, 디도는 사랑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실 모호할 뿐더러 오해를 만들어내기 쉬운 개념이지만, 만약 『에네아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디도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에네아스』에서 디도는 사랑의 비극을 받아들이며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사랑을 체현하는 유일한 군주이다.

디도를 대하는 화자의 양가적 태도도 이 점에서 이해 가능하다. 화자는 통치를 포기하는 그녀의 과도한 사랑에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그녀의 파멸에 안타까워하고, 파멸의 끝을 아름답게 묘사해낸다. 디도는 죽음과 불길의 이중의 추적을 받으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에네아스의 이름과 함께 마지막 숨을 내뿜는다. 타오르는 불길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사르고, 그녀는 검은 재가 되어 한 순간에 허물어진다.(vv. 2113-2124) 디도의 죽음에 주변의 영애들과 가신들은 깊은 고통을 표한다.(vv. 2125-2128) 묘비명이 그들의 마음을 이어받는다.

여기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디도가 누워있다. 그녀가 고독한 사랑을 품지만 앓았더라면, 이보다 훌륭한 이교도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분별없이 사랑하였고, 현명함은 그녀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vv. 2139-2144)

Iluec gist / Dido qui por amor s'ocist; / onques ne fu meilleur paiene, / s'ele n'eüst amor soltaine, / mais ele ama trop folemant, / savoir ne li valut noiant.

화자의 평가를 대신하는 묘비명은 디도를 단죄하지 않는다. 자살은 중세 기독교의 관점에서 큰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¹⁴⁴⁾ 화자는 그녀의 사랑과 죽음을

준 그 사람 때문에 선물을 높이 평가하였다.”(vv. 787-788) 하나가 성 세 채보다 값진 선물들에 대한 묘사,(vv. 739-760) 선물을 바라본 이들의 호들갑스러운 반응 사이에서(790-800) 그녀는 홀로 에네아스에 반응한다. 이 세부사항들이 원작에 없는 섬세한 각색들임은 물론이다.

144) “디도의 자살은 그러한 죄악을 단죄하는 중세의 의식에서 볼 때 그 자체로 큰 사건이다. 카토, 클레오파트라, 루크레티우스를 인용하면서 『폴리크라티쿠스』는 그들에게서 어떠한 변명도 찾지 않고, 절망한 자들의 이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살은 일말의 화해의 가능성도 없이 기독교 문화와 이교도 문화를 충돌시키

그저 안타까워한다. 교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를 바치면서, 그는 현명함조차 어찌하지 못한 사랑의 광기를 탄식한다.

이로써 디도의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디도는 죽었고 저승에서의 재회 이후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과거를 털고 앞으로 나아간 에네아스는 다시 한번 통치권 획득의 여정에 투신하고, 이제 그에게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막중한 사명을 어깨에 인 군주로서 그는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2.3. 라빈

2.3.1. 사랑의 전쟁

로랑트에서 에네아스의 사랑은 편지와 함께 탄생한다. 라빈은 도시 앞을 행렬하는 에네아스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하였고, 이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화살에 묶어 에네아스에게 날려 보낸다. 휴전 기간에 쏘아진 화살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었지만, 편지를 읽은 에네아스는 라빈의 마음을 깨닫고 똑같은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된다. 하지만 에네아스의 반응은 라빈의 예상과 같지 않았다. 라빈은 그가 남색가가 아니라면¹⁴⁵⁾ 자신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리라고 생각했고(vv. 8763-8765) 실제 에네아스는 “크게 기뻐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잘 숨겼다. 그는 그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한 명이라도 눈치 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¹⁴⁶⁾ 이는 사랑에 빠지자마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카르타고에서와 사뭇 다른 반응이다. 그는 디도와 사냥을 떠났을 때 동굴에 둘만 남게 되자 “그녀를 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너무 큰 강요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녀가 피하지 않았고 그의 의

는 문제가 된다. 하지만 『에네아스』는 명백히 이 행위를 단죄하지 않고 디도의 유죄를 입증하지 않는다.”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p. 227.

145) 아마타 왕비는 라빈에게 에네아스가 남색가라는 의심을 제기하였다.(vv. 8567-8621) 라빈은 이를 믿지 않았으나 확신하지는 못하던 상황이었다.

146) “molt s’en fist liez, bien lo cela : / ne volt que sa gent lo saüst / ne que nus d’aus l’aperceüst.”(vv. 8872-8874)

지에 따랐기 때문이다.”¹⁴⁷⁾ 폭력의 암시에서 그의 행동의 성격이 드러난다. 자체력을 잃은 채 숨김없이 정사를 벌이던 그의 행동은 소문의 여신에 의해 전도시에 회자되었고, 그는 결국 사명을 망각하였다. “그는 공공연하게 디도를 소유하였고, 자신의 사명을 잊은 채 모든 여정을 방기하였다.”¹⁴⁸⁾ 로랑트에서 그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다. 연서를 숨기는 행위는 그가 이성애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편지에 마음을 빼앗기고 탑에서 라빈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한다.

문제는 그의 마음이 라빈에게까지 숨겨진다는 데 있다. 라빈은 손으로 입맞춤을 전달하였지만 “그것이 어떤 맛인지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¹⁴⁹⁾ 그녀는 계속해서 백 번도 넘게 입맞춤을 보내지만 “그는 결코 그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입맞춤이 그에게까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⁵⁰⁾ 멀리서 보낸 입맞춤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첨언된 화자의 평가, 이를 통해 강조되는 단절과 거리감은 에네아스가 라빈의 고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그는 그녀를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의 사람들 때문에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¹⁵¹⁾ 위험한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먼저 고백하였고, 입맞춤을 보내며 감정을 피력하였던 라빈으로서는 그의 반응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그가 오만하고, 자신을 사랑할 만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¹⁵²⁾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어그러지는 것일까? 통치와 사랑의 대립에서 에네아스는 단호히 사랑을 포기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일까? 이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라빈의 고백 행위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라빈의 편지는 앞

147) “il fait de li ce que lui sanble, / ne li fait mie trop grant force, / ne la raïne ne s’estorce, / tot li consent sa volenté;”(vv. 1522-1525)

148) “Or la tient cil a descovert, / son afaire a mis an obli / et tot son oirre deguerpi;”(vv. 1608-1610)

149) “mes nel senti, ne il nel sot, / de quel savor ert li baisiers;”(vv. 8880-8881)

150) “unques ne sot que il savoient, / que dusque lui ne parvenoient.”(vv. 8885-8886)

151) “Il l’esgardot molt dolcement, / s’il ne s’atarjast por la gent; / ne regardot pas de droit oil;”(vv. 8887-8889)

152) “cele cuidot que fust orgoil / et qu’il ne la deignast amer.”(vv. 8890-8891)

으로 펼쳐질 모든 사랑이야기의 출발점이자 그 사랑이야기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에피소드로서, 사랑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이를 통해 예고된다.

라빈이 고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자. 그녀는 두 차례에 걸쳐 고백을 고민한다. 첫 번째는 사랑에 빠진 창가에 앉아 그녀가 “새롭게 찾아온 사랑을 생각하는 데 몰두하느라 에네아스가 돌아가버린” 후였다.(vv. 8335-8337) 그가 떠나자 그녀는 죽을 듯이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지고, 그 감정은 에네아스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었다.¹⁵³⁾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곧 반전된다. “무슨 소용인가요?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확신하지 못하는데.”¹⁵⁴⁾ 그래서 그녀는 에네아스에게 확신을 줄 방도를 궁리한다. 그녀는 전령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알릴지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한다.(vv. 8362-8366)

두 번째는 왕비와 논쟁을 마친 후이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에네아스의 천막을 바라보았다. 에네아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진 그녀는 아모르와 에네아스를 비난하기 시작한다.¹⁵⁵⁾ 이는 물론 부당한 비난이다. 에네아스는 탑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vv. 9031-9034) 자신이 “사랑에 있어 무지렁이”였기 때문이다.¹⁵⁶⁾ 하지만 라빈의 생각은 달랐다. 아모르와 에네아스를 비난한 후 그녀는 이어서 말한다. “내가 그의 생각의 무엇을 알겠어? 그는 내게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는 그가 보여주는 것과 같을 수도, 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에네아스는 현명한 사내이지. 그는 때와 장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¹⁵⁷⁾ 놀랍게도 그녀

153) “사랑하는 이여, 돌아오지 않으시나요? 당신의 연인은 당신에게 아무 것도 아니군요. 저는 당신에게 달콤한 신호, 따뜻한 시선 하나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 목숨은 온통 당신의 손에 달렸는데.”(vv. 8355-8359)

154) “Cui chaut, quant vos n’iestes certains / que ge vos ain de bon corage?”(vv. 8360-8361)

155) “아모르는 내 고통을 완화해주고, 나를 큰 비탄에 빠뜨린 그 오만한 자를 쓰러뜨려주어야 했어. 아모르는 내게 공정하지 않아. 나는 신음하는데 에네아스는 이를 비웃어. 나는 죽어가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vv. 8695-8700)

156) “des idonc m’an aperceüsse, / se ge d’amer vileins ne fusse;”(vv. 9035-9036)

157) “Mais que sai ge de son pensé? / Se il nel m’a si tost mostré, / se l’an puet il estre autretant, / ou plus, que il ne fet sanblant; / sages hom est, si atandra / desi que tens et leus vendra. / Et ge quel la ferai, [...]?”(vv. 8701-8707)

는 에네아스가 신중한 사내이며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출해낸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자신의 고백이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 에네아스에게 때와 장소를 마련해주기로 결심한다.

두 차례에 걸친 라빈의 고민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준다. 먼저 그녀의 고백은 단지 자신의 사랑을 알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의 발로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에네아스와 그러한 사랑을 획책한 아모르의 부당함에 불만을 가졌고, 이는 라빈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부터 지속해온 불평이었다.¹⁵⁸⁾ 고백은 이 불평등한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이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알림으로써 에네아스가 혹시 남색가이지는 않은지, 자신을 사랑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랑에 대해 보답 받고자 했다.¹⁵⁹⁾ 마음의 토로는 상대에게도 사랑의 상처를 입혀, 자신이 일방적으로 고통 받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수단이었다.

라빈의 고민이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고백을 결심하고도 그 방법을 고민한다는 데에서 드러난다. 첫 번째 고민에서 그녀는 전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자신의 사랑이 추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에네아스는 도시를 포위한 적군의 수장이었고, 그녀가 에네아스와 튀르누스 중 누구와 맺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타 왕비는 라빈에게 튀르누스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만약 에네아스를 사랑한다면 “두 손으로 너를 죽여야 한다”는 살벌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v. 7949) 이 때문에 두 번째 고민에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에네아스를 찾아갈 생각을 한다.¹⁶⁰⁾ 그러자 그녀의 또 다른 자아가 소리친다.

조용히 해, 자신을 알리고 바치기 위해 낮은 사내에게 말을 하러 가다니, 너

158) “나는 나 혼자만이 상처를 입었다고, 때문에 아모르가 나를 잘못 대하였다고 생각해. 그 트로이아 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에게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이쪽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 아모르는 증오를 일으키는 남 화살로 그를 찔러 버린 것 같아. 그러니 나는 고통으로 죽어야 하겠지. 불행하구나, 사랑의 상대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길 원하고, 그는 사랑하지 않으니, 나는 실성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짝은 둘이 되어야 하고 각자는 서로에게 따르면서, 서로가 바라는 바를 해주어야 하는 법인데.”(vv. 8163-8177)

159) “생각하건대 나는 알아야겠어.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할 것인지. 나는 편지에 전부 쓰겠어. 내 모든 감정을, 내 모든 마음을 편지로 그에게 알릴 거야.”(vv. 8767-8771)

160) “나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찾지 못했어.”(v. 8715)

같은 혈통의 여성에게 그것은 수치스러운 짓이야. 그런 상스러운 말은 꺼내
지도 마.(vv. 8720-8724)

Tol, ne dire tel vilenie, / que ja femme de ton parage / anpraigne a faire
tel viltage / qu'a home estrange aille parler / por soi ofrir ne presenter.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 같은 혈통’이라는 표현이다. 그녀는 비록 공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주로서 자신의 신분과 처지, 의무를 망각하지 않았다. 그녀
는 계속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vv. 8753-8755) 결국 편지
를 쓰기로 결심하고, 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지, 누구를 통해 그에게 보낼
수 있을지를 숙고한다.(vv. 8795-8797)

그녀가 선택한 해결책은 놀랍다.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그녀는 창문을
통해 때마침 에네아스가 오는 것을 보고, 화살에 편지를 묶어 총안을 지키는
궁수에게 가져간다. 그녀는 편지가 보이지 않도록 “글자를 안쪽으로 말았고,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¹⁶¹⁾ 그리고는 궁수에게 화살을 건네며 트로이아 인들
이 염탐하러 온 것이 틀림없으니 활을 쏘라고 종용한다. 궁수가 휴전 기간에
는 어떠한 공격 행위도 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자는 처형된다고 난색을 표하
자, 그녀는 계속해서 설득한다.¹⁶²⁾ 이에 궁수는 화살을 쏘았고, 휴전이 깨졌다
고 생각한 에네아스는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물로 삼기 위해 화살을 가져
오라고 명령한다.(vv. 8853-8860) 그는 화살에 묶여 있는 편지를 발견하였고
라빈은 무사히 자신의 편지를 전달한다.

라빈이 고백의 방식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장면은 상세하게 기
술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고백이 단순히 사랑의 광기
에 휩싸여 벌인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화살로 쏘아진 편지는 그
녀가 공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추문을 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
달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택한 계산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그
것은 궁수를 속이고, 에네아스가 화살을 살펴볼 수밖에 없도록 휴전 기간에
활을 쏘는 등 상황을 조정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일종의 책략이었다.
훗날 에네아스가 독백에서 라빈의 편지가 책략을 통해 자신에게 도달하였다고

161) "la letre an a dedanz tornee, / o un fil estroit lo lia."(vv. 8810-8811)

162) “그대는 쏘아도 돼요. 나는 그대에게 저들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들이 떠나게 만들기 위해 쏘라는 것이죠. 그들이 화살을 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쏘세요.”(vv. 8827-8831)

평하는 것도 이 점에서 이해 가능하다.(v. 9020)

상대의 오만함을 부수고 사랑의 상처를 입히려는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지키려는 태도,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궁리와 책략 등 라빈의 고백은 앞으로 펼쳐질 사랑의 주요 주제들을 시사한다. 카르타고에서와 달리 에네아스와 라빈의 사랑은 일종의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라빈이 쏘아올린 화살은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상처를 입히기 위해 노력하며 의무와 배치되지 않는 계략들을 준비한다. 사랑의 전쟁이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얻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마음을 빼앗겨 사랑에 끌려 다녔던 디도가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사랑의 전쟁에서 에네아스는 전략적으로 사랑에 임하고, 튀르누스와 전쟁에 집중한다.

이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에네아스는 라빈의 화살을 두고 휴전을 어긴 공격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는 앞에 있던 그들에게, 화살을 쏘아 평화를 깬 점에 대해 항의하고 규탄해야 했다.”¹⁶³⁾ 왜냐하면 “그 화살은 나의 죽음을 함께 가져왔고, 나를 고통스럽게 상처 입혔”기 때문이다.¹⁶⁴⁾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에네아스는 죽음을 가져왔다는 화살에 맞고도 이를 숨긴다. 그는 그를 향한 시선, 입맞춤, 사랑의 신호들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라빈은 이를 보고 깨지지 않는 그의 오만함에 분노를 표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거부가 아니었다. 에네아스의 사랑의 기술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그녀를 보고 싶을 때, 다른 쪽으로 고개를 틀었다가 계속해서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곳이 나올 때까지. 그 지점에 그는 시선을 두었고, 할 수 있는 한 고정시켰으며, 지나치듯 그녀를 보았다.(vv. 8892-8898)

Quant il la voloit esgarder, / si se tornot de l'altre part, / puis si conduioit son esgart / desi que androit lui venoit; / an icel point ses ielz tenoit, / tant com pooit li afichot, / an trespasant la regardot.

그가 택한 사랑의 방식은 거창하지 않지만 섬세하다. 그는 라빈을 똑바로

163) “ja me devoie ge clamer / et çaus dela de ce reter / qu’il avoient la pais anfraite / par la saiete qui fu traite.”(vv. 8957-8960)

164) “- Ele aportot ma mort o soi, / angoisosemant me navra.”(vv. 8968-8969)

쳐다보지 않고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 다른 쪽을 보는 척 고개를 돌리고, 우연한 발견인 양 시선을 고정하며, 지나치듯 그녀를 본다. 당장 라빈에게 달려갈 수도, 고백을 무시하며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사선(斜線)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숨기면서 드러내는 그의 사선적 시선은 그가 로랑트에서 보여줄 모든 사랑의 방식의 비유가 된다. 에네아스의 오만함을 비난하던 라빈은 곧 그의 시선에 반응한다. 그들은 수없이 사랑의 신호들을 주고받았고, 해가 지고 나서야 몸을 돌렸다.(vv. 8899-8901)

이러한 사랑의 양상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라빈의 고백을 받은 다음 날, 에네아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백을 받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라빈에게 사랑의 거절과 다름없었다. 아침 일찍부터 창가에 나와 그를 기다리던 라빈은 깊은 고통을 느끼며 에네아스의 남색을 확신하고 이를 신랄하게 비난한다.(vv. 9130-9170) 그녀는 전날의 태도들까지 끄집어내 그것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오만이었다며 부정적인 해석을 가한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알자 그는 이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는 내가 감정을 알린 창문에서 나를 보자, 어떻게 해서든 거기 멈추려 하지 않았어. 그는 나를 보면 마음에 고통을 느껴.”¹⁶⁵⁾ 고백을 하던 때의 마음이 되살아난다. “나는 결코 그에게 관심 갖지 않겠어.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한에서만, 나는 그를 사랑할 거야.”¹⁶⁶⁾

이때 에네아스는 디도와 라빈이 거쳤던 사랑의 열병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말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고통 받고 있었다.(v. 9109) 하지만 몸 상태와 상관없이 그의 부재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것은 밤을 지새우며 깨우쳐가던 사랑의 교의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서는 안 된다. 사랑의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녀에게 다소 무뚝뚝하게 대해야 한다. 만약 여성이 지배권을 잡고 위에 선다면, 남자는 눈물 흘릴 것이다. 여자가 의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는지를 전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그녀는 더 사랑할 것이다.(vv. 9079-9088)

165) “unc puis que sot quel vols amer, / ne deigna ceste part garder ; / puis qu’il me vit a la fenestre, / que li ai fait savoir mon estre, / n’i esteüst il a nul fuer : / de moi veor ot mal al cuer.”(vv. 9149-9154)

166) “ge n’i metrai ja mes m’entente ; / itant come ge quiderai / que il aint moi, tant l’amerai.”(vv. 9186-9188)

ne doit pas tot son cuer mostrer / a feme, qui la velt amer ; / un po se
face vers li fier, / que de l'amor ait lo dongier, / car se la famme lo
faisoit, / qu'el fust desor, il s'en plaindroit. / L'an doit fame faire doter, /
ne li doit an pas tot mostrer / come l'an est por li grevez ; / de tant
aime ele plus asez.

프티는 고백을 하지 않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에네아스를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지만,¹⁶⁷⁾ 그것은 연출된 수동성에 가깝다. 에네아스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상대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는지를 숨기려 한다. 그만큼 상대는 의심할 것이고, 더 사랑할 것이다. 에네아스는 라빈에게서 사랑의 지배권을 얻기 위한 싸움을 벌인다.

에네아스의 부재도 그 일환이다. 전날 주고받았던 시선과 신호로 에네아스의 사랑을 확신하였던 라빈은 그의 부재에 의심을 품고 쓰라린 배신을 느꼈다. 에네아스는 그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말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태연하게 말에 오르고(v. 9198) 탑 아래에 선다. “그가 사랑을 받아들였던 곳으로.”(v. 9204) 그가 자신을 거절하였다고 생각했던 라빈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의 선부른 비난을 후회하고,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며 열의를 더해간다. “당신의 막사까지 맨발로 가겠어요. 그것이 제게는 기쁨이요 달콤함이 될 것이며, 저는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당신을 비방하였던 것은 어리석었고, 당신을 비난했던 것은 더없이 커다란 잘못이었어요. 사랑하는 이여, 저는 죽어 마땅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 목숨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또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치유될 거예요.”¹⁶⁸⁾ 그의 노림수는 성공하였고 그녀의 의심은 더 큰 사랑이 되었다.

이를 두고 크루아지-나케는 놀라워하며 말한다. “라빈에 대한 에네아스의

167) “그는 라빈의 사랑이 밝혀진 후에도 무척이나 수동적인 태도로 남아 있다. 고백의 문제를 스스로에게 제기하면서 - 그녀의 사랑을 알게 된 이상, 여주인공보다는 그에게 훨씬 쉬운 일일 텐데도 - 그는 이성의 충고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A. Petit, “Le thème de l'amour dans le *Roman d'Enéas*”, *Énée et Didon : Naissance, fonctionnement et survie d'un couple mythique*, CNRS, 1990, p. 64.

168) “nus piez iroie a vostre tref ; / molt me seroit bon et soëf, / se traitroie mal ne dolor ; / ge mesparlai par grant folor, / ge l'ai blasmé a molt grant tort. / Amis, bien ai deservi mort ; / se vos volez n'est proz ma vie, / et se vos plaist si sui guarie.”(vv. 9221-9228)

태도는 그야말로 수수께끼이다.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랑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그는 여러 차례 계락을 사용하지 않는가?”¹⁶⁹⁾ 에네아스는 능수능란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정도만을 드러내면서 온전한 소통을 끊임없이 유보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의심에 빠지며 분열하고, 결국에는 더 큰 사랑을 고백하고 상대에게 종속된다. 계락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 전쟁의 주제가 되살아난다. 사랑의 기술은 계락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작품에서 사랑을 주재하는 신들, 베누스와 아모르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신화적으로 형상화한다. 먼저, 아모르를 전쟁과 연결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푸아리옹 이래 여러 연구자들은 아모르에게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사랑의 신의 모습을 보았다. 활과 화살로 무장한 그는 상대를 굴복시켜 정복하는 전사의 모습, 남성적 욕망의 화신처럼 그려졌고 그것은 베누스가 표상하는 여성적인 관능성과 대비되었다. “베누스에 대립하는 여신을 연상시키는 팔라스의 이야기도 카밀의 이야기를 보장한다. 이 둘은 공격적이고 소유욕 강한 남성적 욕망의 신에 바쳐진 희생물들이다. 어머니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에네아스는 라빈이라는 인물을 통해 쿠피도에게 봉사하게 된다. 라빈 또한 이 신에 의해 이미 정복되었다.”¹⁷⁰⁾ 라빈이 에네아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모르의 화살에 맞았던 것처럼, (vv. 8160-8161) 에네아스는 라빈의 편지로 인해 아모르의 화살에 맞았다. (v. 8953-8955) 이들은 서로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이상으로 서로에게 더 큰 욕망을 불어넣기 위해 분투한다.¹⁷¹⁾

169) C. Croizy-Naquet,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p. 82.

170)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p. 229.

171) 이 점에서 모라-르브렁의 아모르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녀는 푸아리옹이 말한 아모르의 남성적 욕망을 남성의 욕망으로 치환하고, 아모르가 남성의 욕망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차례로 굴복시켜나간다고 주장한다. 디안느(디아나)를 상기시키는 디도, 실비아, 카밀이 그러하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라빈 또한 사랑을 거부하였지만 결국 아모르의 지배를 받아들임으로써 목숨을 부지하였다. “쿠피도는 남성적 욕망을 구현한다. [...] 라빈은 살아남을 것이지만, 남성의 법에 굴복한다는 조건에서, 자신의 첫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신 에로스를 받아들인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러할 수 있었다.” F. Mora-Lebrun, *L’ombre mythique de Diane dans le Roman d’Énéas, Bien dire et bien apprendre, Fées, dieux et déesses au Moyen Âge*, 12, 1994^b, pp. 187-188.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모르는 공격적인 욕망의 상징이고, 이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라빈이 쏜 화살이 아모르의 화살과 동일시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위세는 푸아리옹처럼 아모르를 남성적 욕망의 신으로 보면서, 이 신에 지배당하는 이들이 여성화된다는

베누스에게서도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푸아리옹은 베누스를 아모르와 대립시키면서 1부에서 디도와 사랑의 이끌었던 베누스가 2부에서 아모르로 대체된다고 주장하지만,¹⁷²⁾ 그것은 다소 지나친 일반화이다. 1부에서도 아모르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에네아스가 디도에게 트로이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디도는 아모르의 존재를 느낀다. “디도는 그(에네아스)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모르가 그녀를 떠미는 것 같았다. 아모르가 그녀를 찌르고 몰아대었다. 그녀는 자주 한숨 쉬었고 낮빛을 바꾸었다.”¹⁷³⁾ 연회가 과하고 방에 홀로 남았을 때에도 화자는 말한다. “디도 부인은 에네아스를 잊지 않았다. 사랑의 신이 그를 위해 그녀를 커다란 혼란 속에 빠뜨린 채였다.”¹⁷⁴⁾ 남성형으로 표현된 사랑의 신이 아모르를 지시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모르는 베누스가 디도의 마음에 독을 들이붓는 동안 그녀를 찌르고 몰아대며 어머니의 계락을 도왔고, 디도를 엄습하였다.

베누스도 2부에서 마르스와 빌칸의 에피소드를 통해 재등장한다. 마르스와

주장을 펼친다. 그는 이 점을 중시하는데, 그에게 사랑이란 여성의 일이고, 그것은 곧 자기 Soi가 박탈당하고 타자 Autre와 타자의 언어가 승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에게서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온다. “아모르는 오비디우스의 작품보다 『에네아스』에서 더욱 호전적인 신이 되었다. 그는 무장하였고, 육신과 영혼들을 자신의 권능 아래 둔다. 그는 자신의 용맹함 *virtus*으로 여성들을 지배하는 남성적 신이고 후에는 에네아스를 굴복시켰다. 에네아스는 이렇게 여성화된다. ‘지배’의 이미지는 사랑을 특징짓는 박탈의 과정에 가까워진다. 그것은 타자와 타자의 언어의 승리를 보장한다. 타자 속에서 자기는 사라지고, 타자에게 되며, 자기가 받아들인 타자의 언어가 그가 존재하도록 이끌어준다.”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p. 159-160. 본 논문이 사랑을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파악한다면, 위세는 지배당한 자가 겪는 타자성의 체험으로 파악한다. 두 관점은 대립적이지만 둘 모두 『에네아스』에서 다루어지는 사랑의 주요한 모습들로서, 전자는 사랑에 빠진 자가 행하는 외적 행동에, 후자는 사랑에 빠진 자가 겪는 내적 변모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전자가 에네아스에게서, 후자가 라빈에게서 보다 집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 후자가 사랑의 깊이를 탐색한다면 전자는 정치와의 조화를 꾀한다는 점,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작품이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는 주제는 사랑보다 정치라는 점에서, 우리는 위세와 달리 지배의 욕망에 주목한다.

172) “『에네아스』의 구조에 새겨진 신화의 수정은, 파리스가 굴복했고 앞서 아들 에네아스의 삶을 인도하였던 여신 베누스의 법을 에로스-쿠피도의 법으로 대체하는 데 있다.” D. Poirion, “De l’*Enéide* à l’*Enéas*...”, p. 229.

173) “El lo regardoit par dolçor / si com la destreingnot Amor ; / Amor la point, Amor l’argüe, / sovant sospire et color mue.”(vv. 1201-1204)

174) “dame Dido pas ne oblie / celui por cui li deus d’amor / l’avoit ja mise an grant freor ;”(vv. 1220-1222)

불륜을 저지르고 뿔강과 성을 거래하는 이 에피소드에서 많은 비평가들은 관능과 유혹, 부정한 욕망의 상징이 된 여신을 읽어냈지만, 이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¹⁷⁵⁾ 그 열쇠는 전쟁이다. 베누스와 간통한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며 베누스는 자신의 성을 무기 삼아 뿔강을 함락시켰다. 또한 뿔강은 대장장이와 불의 신으로서 싸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실제로 베누스는 뿔강에게서 에네아스의 무구를 얻어주었다. 그녀는 뿔강이 만든 에네아스의 “창에 깃발을 단단히 매어주었”는데, “그것은 마르스가 오랫동안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베누스가 처음 자신의 애인이 되었을 때 사랑의 표시로 준 것이었다.”¹⁷⁶⁾ 그 깃발은 또한 자신에게 도전한 아란느(아라크네)를 이기기 위해 전쟁의 여신 팔라스가 경연에서 만든 것이기도 했다.¹⁷⁷⁾ 이처럼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베누스의 불륜을 비난한다기보다, 전쟁의 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뿔강의 기술로 무구를 만들며, 팔라스와 마르스를 상징하는 징표를 더해 아들의 전쟁을 준비하는 여신의 모습을 강조한다.¹⁷⁸⁾

175) 베누스가 부정적인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은 파리스에게 엘루엔을 주어 불륜을 부추기고 트로이아의 멸망을 초래하였다는 점, 디도의 사랑을 이끌어 에네아스를 방탕함에 빠뜨리고 사명을 잊게 만들었다는 점, 그녀 자신이 마르스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 이 세 가지 이유로 귀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에네아스가 디도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로랑트에서 행한 연설들을 분석하면서, 그가 트로이아 멸망의 원인을 메넬로스와 율릭세스로 한정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에네아스는 파리스에게 부여된 불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무화하였고, 적어도 도시의 멸망과 분리하였으며, 자신의 관점을 관철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또한 우리는 디도가 베누스의 계략과 무관하게 사랑에 빠졌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주석 143번) 이는 에네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베누스의 권능에 노출되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v. 1394) 아름다운 사냥꾼 복장을 입은 디도를 보고 나서야 사랑에 빠진다.(vv. 1484-1488) 『에네아스』에서 베누스의 권능은 무력화되며 그녀는 둘의 사랑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의 수준으로 격하된다. 세 번째 이유인 마르스와의 불륜에 대해서는 본문에 언급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에네아스』가 불륜에 반대하는 결혼 소설이라고 단정 짓는 것에, 그리고 불륜을 이유로 베누스를 단죄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176) "Venus i ferma une ansoigne; / longuement l'ot Mars en domaine, / il li dona par drüerie, / quant el devint primes s'amie;"(vv. 4523-4526)

177) "Par anvie l'ot fet Pallas: / ele l'ovra par grant mestrie, / quant Arannes l'ot aatie; / els ovrerent a entençon, / dont fist Pallas cest confanon."(vv. 4530-4534)

178) 우리는 앞서 몽토방 수성전 이후의 야전에서 뿔강의 무구가 특별히 강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뿔강의 무구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곳은 튀르누스와

베누스와 전쟁의 밀접한 관련은 파리스의 심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팔라스가 떠나자 베누스가 다시 왔다. 그녀는 사랑의 싸움을 주재하는 귀부인이자 여신이였다.”¹⁷⁹⁾ 저자는 다른 여신들과 구분되는 베누스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싸움을 덧붙인다.¹⁸⁰⁾ 그는 적어도 사랑이 싸움의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랑은 싸움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 구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작품에서 베누스는 마르스, 빌캉, 팔라스에 이은 또 한 명의 전쟁신이 되고, 그녀가 지배하는 사랑은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된다. 베누스는 사랑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여신으로 변모한다.

다각도에서 이루어지는 베누스와 전쟁의 결합은 베누스와 아모르의 관계를 대립과 대체가 아닌 연합 관계로 재고하게 만든다. 그녀는 아모르와 협력하면서 그를 보충하는데, 여신은 사랑을 전쟁터로 만들지만 그 전쟁에 계략의 주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¹⁸¹⁾ 아스카니우스를 통해 디도를 사랑에 빠뜨리려 하고, 전쟁 무구를 얻어내기 위해 빌캉을 함락시킨 것처럼, 그녀는 계략을 통해 상대를 사랑에 빠뜨리고 상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다. 아모르가 상대를 정복하려는 강한 욕망을 상징한다면, 그녀는 이를 위해 사용할 무

의 일대일 결투에서이다. 튀르누스의 모든 공격은 에네아스의 갑옷과(vv. 9701-9705) 방패에(vv. 9712-9716) 막히고, 에네아스의 투구에 검이 반으로 쪼개지기까지 하지만,(vv. 9731-9735) 에네아스의 검은 튀르누스의 투구와 방패를 손쉽게 잘라낸다.(vv. 9717-9721)

179) "Pallas s'an va, Venus revient, / qui la bataille d'amor tient / et dame an estoit et deesse." (vv. 155-157)

180) 이 대목을 지적한 것은 위세이다. 그는 'dame'와 'deesse'를 1기능, 'bataille'를 2기능, 'd'amor'를 3기능으로 파악하여 이 짧은 구절에서 세 기능을 통합한 여신의 모습을 읽어낸다. “사랑을 싸움으로 만든다는 것, 그것은 베누스를 ‘전투의 여신인’ 팔라스의 분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인물 속에 2기능과 3기능을 중첩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베누스를 ‘귀부인’이자 ‘여신’으로 부르는 것은 그녀의 권능을 ‘사랑의 싸움’ 위에 세우고, 그녀의 지배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말로, 베누스를 세 기능의 화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p. 46-47. 하지만 신적인 존재에게 'dame'나 'deesse'를 붙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bataille d'amor'를 2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의미 부여이다.

181) 사랑에 계략의 주제를 도입하는 것은 라빈의 어머니, 아마타 왕비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라빈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말이지, 너는 사랑의 함정들, 완곡한 표현들, 계략들, 눈짓들을 알아야 할 나이야.” (vv. 7878-7881)

구와 계약을 준비한다. 이 점에서 베누스와 아모르의 연합이라는 가설적 입장은 로랑트에서의 사랑의 모습을 신화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에네아스의 사랑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 “저를 정복한 사랑의 신, 쿠피도는 에네아스의 형이 아닌가요? 그가 저로 하여금 자신의 형제에게 사랑의 불길을 품게 만들었어요.”¹⁸²⁾ 라빈은 아마타 왕비에게 에네아스를 사랑하게 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임을 항변하면서 아모르가 에네아스의 형이라는 근거를 든다. 그녀가 거둬 불평한 것처럼 아모르는 공정하지 않고, 베누스는 작품 내내 전적으로 에네아스의 편이다. 에네아스는 마치 신들의 편애를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능숙하게 사랑의 기술을 펼치고 사랑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빈의 기다림을 배신하고 뒤늦게 나타났던 에네아스는 다시 한 번 지나치듯 사랑을 표현한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이 볼 때 눈길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그는 지나가면서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사람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였다. 이리하여 둘은 서로를 바라보고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vv. 9255-9261)

et nequedant si s'an gardot / que voiant aus l'oïl n'i tornot, / mais al trespas li refaisoit / aucun sanblant que il l'amoit, / quant n'antandoient pas a lui. / Itant pooient faire andui / d'aus esgarder, de sanblant faire.

사건을 통해 구현되는 비밀의 외관 속에서 시선과 신호가 수없이 교차하고, 계속해서 그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찰나의 순간들을 이용한다. “서로는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그 무엇도 없었다.”(vv. 9272-9274)

프티는 이러한 에네아스의 사랑을 두고, 귀부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트루바두르의 에토스와 대척점을 이룬다고 지적하였다.¹⁸³⁾ 크루아지-나케도 프티를 인용하면서 “핀 아모르의 윤리에 명백히 거스르는 유희의 전략과 실행”이라고 평하였다.¹⁸⁴⁾ 핀 아모르는 프랑스 남부의 음유시인, 트루바두르들

182) “n'est Cupido frere Eneas, / li deus d'amor qui m'a conquise? / Vers son frere m'a molt esprise.”(vv. 8630-8632)

183) A. Petit, “Le thème de l'amour...”, p. 64.

184) C. Croizy-Naquet,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p. 83

이 12세기 초부터 발전시킨 중세적 사랑의 기술이다. 그 개념은 오비디우스의 저서(『사랑의 기술 *Ars amatoria*』)에서 비롯하였지만, 쟁크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오비디우스의 모델을 확대 적용한 데 그치지 않고 사랑과 시의 본질적 관계를 성찰하였고,¹⁸⁵⁾ 핀 아모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트루바두르는 자신들만의 시와 가락을 찾아내고 고안하고 만들어내었다. 그 시들은 사랑의 기술을 제시하였고, 그들은 그 기술을 *핀 아모르*라고 불렀다. 그것은 비육체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용해된 금속처럼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가 배제되었다는 의미에서 정제되고 완벽하며 순수한 사랑을 뜻하였다.¹⁸⁶⁾

Troubadours : ceux qui trouvent, qui inventent, qui composent les poèmes et leur mélodies. Des poèmes qui proposent un art d'aimer, l'art de ce qu'ils appellent la *fin' amor*, l'amour affiné, parfait, épuré, non pas dans le sens qu'il serait platonique, mais comme un métal en fusion coule du creuset, pur de tout alliage et de toute scorie.

순수하게 사랑의 욕망을 찬미하고 지속하는 핀 아모르는, 귀부인 여성이 지배자로 군림하며 사랑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남성이 그런 여성을 숭배하며 사랑의 봉사를 바치는 형태를 띤다.¹⁸⁷⁾ 하지만 『에네아스』는 사랑을 전쟁과 정치에 결부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를 뒤바꾸면서 핀 아모르를 전복한다. 결혼식이 치러지기 직전, 마지막까지 에네아스의 기술에 휘둘리며 그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라빈은 다음과 같이 불평하였다.

나는 나를 구할 길이 없을 것이고, 그는 나에게 커다란 지배권을 휘두를 거

185) 이 관계를 쟁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시인은 말한다. 비록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녀에게 갖는 사랑이 나를 기쁨으로 채운다. 비록 내가 어떤 것도 받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 사랑에 즐거워한다. 나는 낙심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충만함을 느낀다. 그것이 내가 노래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 기쁨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내 시가 그 기쁨에 주었던 표현도, 그 기쁨에 대한 묘사도 끝내 그 사실을 내게 알려준다. 때문에 나의 노래는 침묵한다.” M. Zink, “Un Nouvel art...”, pp. 17.

186) *Ibid.*, pp. 11-12.

187) *Ibid.*, p. 15.

야. 그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든, 많이 사랑하든, 그는 언제나 내게 커다란 오만함과 완고함을 보일 거야. 그는 자주 내가 그를 충동적으로 사랑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나를 변하기 쉬운 여자로 여길 거야. 나는 사랑의 지배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결국 그가 승리할 거야. - 어리석은 라빈, 염려하지 마, 그가 낮에 이긴다면 너는 밤에 이기면 되잖아. - 불행한 것, 염려하지 말라고? 원래는 내가 지배권을 가져야 했어. 그가 내게 사랑을 애원하고, 나를 즐겁게 하며 내게 복종해야 했다고.(vv. 9857-9872)

Ge ne m'avrai de coi aidier, / si me demenra grant dongier; / ou s'il m'aime ou po ou grant, / toz tens m'en fera il sanblant, / de grant orgoil, de grant fierté: / sovant me sera reprové / que de s'amor fui prinsaltiere / et me tanra por noveliere; / le dongier avrai de l'amor, / il an ventra au chief del tor. / - Fole Lavine, ne t'enuit, / s'il vaint lo jor et tu la nuit. / - Ne m'enuit, lasse? Si fait voir, / lo dangier an deüsse avoir; / il me deüst proier d'amer / et losengier et dangerer.

『에네아스』가 그려내는 사랑의 기술은 트루바두르보다도 오비디우스의 그것에 가깝다. 오비디우스는 『사랑의 기술』에서 상대를 사랑에 빠뜨리고 그 감정을 유지시키는 유혹의 기술들을 선보였고,¹⁸⁸⁾ 에네아스는 여성에게 봉사하기보다 여성을 유혹하는 데 충실하다. 에드몽 파랄 E. Faral의 연구 이후 작품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던 명제, ‘『에네아스』가 오비디우스의 영향 아래 재해석되고 수정된 『아이네이스』’라는 주장은 이 점에서도 타당하다. 에네아스는 사랑을 쟁취하고 상대를 정복한다. 그것은 크루아지-나케가 감탄한바 “부인할 수 없는 심리 관찰의 자질과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능력”,¹⁸⁹⁾ 표현을 제어하는 사랑의 기술의 성과였다.

2.3.2. 사랑의 변증

사랑의 전쟁에서 드러나는 에네아스와 라빈의 태도는 그들의 독백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에네아스는 라빈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와 전쟁에 승리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긴 독백을 늘어놓고, 라빈은 모든 사랑의 국면에서 시

188) *Ibid.*, pp. 9-10.

189) C. Croizy-Naquet,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p. 83.

종일관 혼잣말에 빠져든다. 둘의 독백의 특징은 자아가 분열되어 사랑의 목소리와 이에 반대하는 이성의 목소리 간에 논쟁이 펼쳐진다는 점이다. 라빈이 사랑에 빠진 후 시작되는 첫 독백에서부터 그 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 어리석은 라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니? - 아모르가 그를 위해 나를 무척이나 괴롭히고 있어. [...] - 너는 왜 여기 멈추어 있는 거니? - 그 트로이아 인을 보려고. - 너는 충분히 자제할 수 있었어. - 왜? - 그를 보러 이곳에 온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니까.(vv. 8134-8148)

- Fole Lavine, qu'as tu dit? / - Amors me destroit molt por lui. / [...] / - Por coi t'arestas tu ici? / - Por lo Troïen esgarder. / - Bien t'an peüsses consirrer. / - Por coi? - Ne fu noiant savoir / quel venisses ici veor.

첫 마디의 'Fole Lavine'과 마지막 마디의 'savoir'의 대립이 두드러진다. 이성의 목소리는 에네아스를 사랑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라며 만류하고 사랑의 자아에 'Fole'의 꼬리표를 붙인다. 하지만 승자는 곧 결정된다. 이어지는 긴 독백에서 라빈은 끊임없이 아모르를 찬양하고, 사랑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아모르에게 탄원하기 때문이다. 몇 번의 전복이 반복되지만 라빈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방적인 사랑에 고통스러워한다. “나는 죽음 이외에는 이 고통에 다른 어떠한 위안도 갖지 못할 것 같아.”¹⁹⁰⁾ 우리는 여기에서도 치명적인 광기에 파멸하였던 디도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일까?

이제 나는 사랑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어. 어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해주셨어. 다른 어떤 이를 통해서도 내 스스로 겪어 알게 된 만큼 사랑을 알 수는 없어. 나는 이제 내가 사랑에 능숙해졌음을 잘 알겠어. 아모르가 나를 학교에 두었고 잠깐 사이에 많은 것을 가르쳤어. 아모르여, 이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잘 알고 있어요.(vv. 8178-8185)

190) "N'an quit avoir autre confort, / de ceste angoisse, fors la mort." (vv. 8255-8256) 이러한 라빈의 모습은 아무런 위안도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던 디도를 연상시킨다. (vv. 1736-1748, 1821-1822) 실제로 디도는 자살하였고 저승에서 에네아스는 그녀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대가 죽음보다 더 나은 위안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vv. 2648-2650)

Or sai ge ja d'amor asez ; / bien me disoit ma mere voir : / n'an pooie
pas tant savoir / par nul autre come par moi ; / molt an sui sage, bien i
voi ; / Amors a escole m'a mise, / an po d'ore m'a molt aprise. / Amors,
molt sai bien ma leçon ;

라빈의 이 말은 그녀의 사랑이 광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sai', 'savoir', 'sage'와 같은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voir', 'ecole', 'aprise', 'leçon'과 같은 단어들이 함께 사용된다. 라빈은 여기에서 무분별함으로 여겨졌던 사랑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명해지고 능숙해지는 삶의 대상으로 만든다.¹⁹¹⁾ 라빈은 사랑에도 준수해야 할 계율과 법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v. 8296)

따라서 사랑과 이성의 대립은 단순히 광기와 이성의 대립으로 치환되지 않는다. 둘은 서로에게 'fole'의 꼬리표를 떠넘기며 서로를 반박하고,¹⁹²⁾ 둘의 논쟁은 그 자체로 논증적인 성격을 띠며 나름의 논리를 쌓아나간다. 라빈의 고백은 그 결과물이었다. 그녀가 불공평한 사랑의 관계를 해소하고 에네아스에게도 사랑의 상처를 입히기 위해 고백을 결심하였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고백을 결심하는 그녀에게 이성인 현실적인 충고를 던진다. 싸움이 운명을 결정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에네아스가 이긴다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와 결혼할 수 있으니 고백이 무용하고, 만약 튀르누스가 이긴다면 적을 사랑한 라빈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고백이 어리석다.¹⁹³⁾ 이성은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잠시 마음을 숨길 것을 제안한다.(v. 8729)

191) 사랑에 입문한 그녀는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피력한다. “저는 어리석은 fole 소녀였는데, 당신이 저를 당신의 학교에 새로이 넣어주셨죠. 하루도 되지 않아 저는 모든 것을 배웠어요.”(vv. 8211-8213) 이제는 사랑을 모르는 그녀가 'fole'의 꼬리표를 가져간다.

192) 에네아스를 사랑하지 말았어야 했고, 싸움에서 누가 이겨도 상관없도록 둘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성의 충고에(vv. 8257-8278) 사랑이 소리친다. “어리석은 라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니?”(v. 8279) 'Fole Lavine'으로 시작하는 사랑의 외침은 앞서 이성이 사랑에게 외친 말과 동일하다.(v. 8134)

193) “- 그러면 어찌라고? - 조금만 기다려, 결투가 벌어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만약 그(에네아스)가 이긴다면 너를 가질 것이고, 그렇다면 너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겠지. 조금만 참아, 그게 지각 있는 행위가 될 거야. 만약 그가 죽고 패해서 튀르누스가 너를 아내로 맞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만약 네가 그를 사랑했던 것을 알거나 짐작한다면, 튀르누스는 너를 영원히 경멸할 거야.”(vv. 8731-8742)

하지만 사랑의 자아는 이에 단호하게 대답한다. “만약 에네아스가 저서 불행히도 죽게 된다면, 나도 죽을 거야.”¹⁹⁴⁾ 이는 이성의 논리에 맞서는 사랑의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사랑의 자아는 이 말을 통해 주어지는 대로 남편을 맞아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거부하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싸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었고, 그녀는 공주로서 승리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녀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남아 있는데, 튀르누스가 이겨도 그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⁹⁵⁾ 이성의 현실적인 충고는 싸움의 결과가 남편을 결정하며 라빈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 사랑의 자아는 이성의 논리를 그 전제에서부터 문제 삼는다. “튀르누스는 살아 있는 나를 갖지 못할 것이니, 나는 에네아스가 나의 연인이라는 것을 그에게 숨기지 않을 거야.”¹⁹⁶⁾ 튀르누스를 확실하게 거부할 그녀에게 고백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라빈의 태도는 결혼이 성사(聖事)가 되어 가면서 상호동의의 원칙이 중요해지던 당시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상호동의의 원칙은 1215년 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결정되지만, 뒤비 G. Duby에 따르면 1100년경을 전후하여 이미 개혁의 움직임이 생겨난다. 뒤비는 성인전, 교회 지침서, 성직자들의 글을 분석하면서 그 과정을 소개해주는데, 그중 아르놀에 관한 성인전에서는 아버지가 정해진 혼처를 거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다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딸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부모에게 조언을 요청 받은 아르놀은 상호동의의 원칙을 내세우며 딸의 뜻을 존중하라고 권고한다. 이는 민중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살을 붙인 설교용 예화들이었다.¹⁹⁷⁾

194) “se Eneas i est conquis / ou par mesaventure ocis, / ocirrai moi, [...]”(vv. 8745-8747)

195) “불행하구나,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그들은 싸움을 결정하였고, 이긴 자가 이의 없이 나를 갖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 만약 튀르누스가 이긴다면, 그는 결코 나를 갖지 못할 것이야.”(vv. 8327-8331)

196) “ja vive ne m’avra Turnus, / por lui nel quier ge celer pas / que mes druz ne soit Eneas ;”(vv. 8748-8750) 라빈은 결투가 벌어지기 직전에도 다시 한 번 동일한 의사를 표명한다. “그녀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너무나 불안했고 두려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확고하게 다짐하였다. 만약 에네아스가 그의 적에게 패해 죽는다면, 자신도 사랑을 위해 탑 아래로 떨어져 내리겠다는 것을. 그러면 그녀는 한 순간도 더 살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vv. 9317-9325)

물론 라티누스가 결혼을 결정하고, 전쟁의 승리가 결혼을 보장하는 『에네아스』에서 상호동의를 원칙이 작품에 내적으로 통합되어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품에서 상호동의를 중요성을 내세우는 것은 라빈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이 없는 결혼을 극도로 꺼리고, 그녀가 결혼을 거부할 경우 또 다른 분란이 싹틀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동의를 잠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잘 알겠어. 그는 자신이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보는 것 같아. 그는 나 없이도 땅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구나. 그것으로 그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 그는 나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신경 쓰지 않아.(vv. 9892-9898)

bien quit qu'il ne m'a gaires chiere. / Or li est vis, quant a vencu, / que il ait tot escombatu, / et bien quide avoir sanz moi / l'enor; il s'an velt faire roi. / Il ne crient gaire mon chalenge, / ne ne li chalt coment qu'il prenge;

그녀는 에네아스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짐작에서 그가 자신을 배제한 채 왕이 되려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녀에게 사랑과 결혼은 동의어이다. 때문에 라빈은 사랑 없는 그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그의 행동이 새로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그가 나를 부인으로 맞지 않는다면 이 영토의 가신들이 그를 주군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내가 상속권을 잃기 전에 수많은 기사들이 죽게 될 것이야.”¹⁹⁸⁾ 에네아스가 이 사실을 알고 라빈을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라빈의 이러한 태도는 에네아스의 사랑이 사후적으로나마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정당화하고 통치권 강화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준다.

튀르누스를 거부할 것을 다짐하고 사랑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랑의 자아는 여기에 한 가지 논리를 추가한다. 고백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고백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있다.

197) 조르주 뒤비, 『중세의 결혼』, 최애리 역, 새물결, 1999, pp. 153-227.

198) “ice ne estera ja voir / que li baron de ceste enor / lo reçoivent ja a seignor, / s’il ne me velt prendre a moillier; / ainz an morront mil chevalier / que si soie deseritee.”(vv. 9902-9907)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그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이야. 내 바람대로라면, 그로 인해 그는 더 사나워질 거야. 만약 그가 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한다면, 튀르누스는 훨씬 강건해진 그를 발견하게 될 거야. 에네아스가 만약 사랑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는 그로 인해 커다란 대담함을 발휘할 거야.(vv. 8756-8762)

car ainz que la bataille soit, / li voil primes faire savoir, / s'an ert plus fiers al mien espoir; / se de m'amor est a seür, / molt l'an trovera cil plus dur, / molt an prendra grant hardement, / s'il sot onques d'amor noiant.

이후 문학에서 ‘궁정적 사랑’이라 불리게 될 사랑의 일면이 여기에서 발견된다.¹⁹⁹⁾ 사랑은 용맹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용맹은 사랑을 쟁취한다. 라빈은 자신의 고백이 에네아스를 보다 굳건하고 대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에네아스가 튀르누스를 이길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라빈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의 논리와는 반대로, 오히려 싸움 이전에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랑의 논리가 제시된다.

라빈의 고백은 이로써 결정되었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므로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 마음을 미리 알려야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두 가지 논리를 통해 스스로를 설득하였다. 이 과정은 디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사랑의 모습이다. 그녀는 문제를 제기하고 논박하면서 자신이 처한 조건과 선택의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사랑의 논리들을 쌓아나간다. 그녀는 사랑을 포기하지도, 사랑의 감정에 휘둘리

199) 궁정적 사랑 amour courtois의 개념은 가스통 파리스가 크레티앵의 『수레를 탄 기사 *Chevalier de la charrette*』(1180년경)를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궁정적 사랑은 핀 아모르와 많은 부분 비슷하지만 사랑을 기사도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사랑과 용맹의 상호적 상승 관계는 조프루아 드 몬무스의 『브리튼 왕실사 *Historia regum Britanniae*』(1135년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브리튼에서 행해진 일종의 풍습으로 간략하게 소개되는데 그친다. 이에 비해 『에네아스』는 주인공들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이 관계를 한층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형태로 표현한다. 물론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것만으로 궁정적 사랑을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으나, 그 원형이자 핵심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궁정적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Geoffroy de Monmouth, *Histoire des rois de Bretagne*, trad. Laurence Mathey-Maille, Les Belles Lettres, 1992, p. 222.

지도 않으면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 사랑의 변증술을 펼친다.

그렇다면 에네아스는 어떠한가? 라빈의 편지를 받고 시작된 그의 첫 독백에서도 우리는 두 자아의 분열과 논쟁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자아는 화살이 자신에게 정말 상처를 입혔는지를 두고 싸운다. 사랑의 자아가 화살이 휴전을 깨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불평하자 이성(이성)은 과장하지 말라며 그의 말을 일축한다. 이에 사랑의 자아가 화살에 매어 있던 편지가 사랑의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설명하자(vv. 8971-8980) 이성(이성)은 답한다.

[...] - 너는 그것에 대해 항의할 것 없다. 누가 너에게 편지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겠느냐? 그 일은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네 싸움에 대해 생각해라. 나는 그 사랑이 네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만약 이긴다면 그녀를 갖게 될 것임을 너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네가 진다면, 그래서 그녀를 잃었다면, 다른 이가 그녀의 연인이 되겠지.(vv. 8980-8988)

[...] - Ne t'an doiz pas clamer. / Qui te fera droit d'un foillet? / Lai ce ester, ne t'entremet, / et si panse de ta bataille. / Ne sai que ceste amorte vaille, / car se tu voinz, ce puez savoir / que donc la t'estuet il avoir ; / se vencuz es, se l'as perdue, / si an fera autre sa drue.

여기에서 이성(이성)은 사랑과 전쟁, 사랑과 통치권이라는 작품의 주요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린다. 전쟁과 통치권 획득에 사랑이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이성(이성)의 입장은 분명하다.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의 자아가 주장하듯 편지가 에네아스를 사랑에 빠뜨렸다 한들, 결혼은 전쟁의 승리로 결정되고, 거기에 사랑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사랑하는 여성과 맺어지기 위해서라도 그는 사랑을 버리고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

-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은 내게 커다란 대답함을 주었다. 생각건대 어떤 기사도 그녀를 두고 나와 겨루지는 못하리라. 나는 그녀가 내게 먼저 사랑을 알렸다는 사실에 크게 감사해야 한다. 그녀를 잃거나 놓치기 전에 나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vv. 8989-8996)

- Ce est tot voir, mais nequedant / molt m'a doné grant hardement : / ne quit c'ons cors de chevalier / vers moi la puisse desraissnier. / Molt par li

doi savoir bon gré / qu'el m'a primes amor mandé, / et molt me metrai a
grant fais, / ainz que la perde et que la lais.

사랑의 자아는 이성의 말에 전적인 동의를 표한다.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전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랑의 자아는 'mais nequedant'으로 말을 이으면서 이성의 주장에 반박한다. 그 근거는 다시 한 번 긍정적 사랑의 논리이다. 사랑은 그에게 기사 한 명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대담함을 준다. 전쟁이 결혼을 결정짓는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의 효용성을 설파하자 이성온 두 가지 의심을 제기하면서 라빈의 사랑 자체를 문제 삼는다. 먼저, 라빈이 튀르누스와 에네아스 모두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라빈은 결과를 알기 전부터 상대를 사랑한 것이 되므로 승리자의 호의를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이성은 “여성이 악행을 꾸미는 데 영리하다”는 여성혐오적 인식에 기반하여 (vv. 8997-8998) 라빈의 “사악한 계략”(v. 9008)을 의심한다. 사랑의 자아는 이를 바로 기각한다. 그녀의 편지를 읽어보건대 그것은 진정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나는 그녀가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을 결코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자는 사랑에 대해 조금도 말할 수 없다.”²⁰⁰⁾

사랑의 대답에 이성은 반론을 제기한다. 그녀가 진정 사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를 향한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라빈은 튀르누스를 사랑하면서도 마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매일 볼 수 있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녀가 그(튀르누스)를 사랑하며 느낀 바를 나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다.”²⁰¹⁾ 이에 사랑의 자아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들을 기억해낸다. 자신이 사랑에 무지하여 눈치 채지 못하였을 뿐 그 시선들은 그녀가 예전부터 자신을 사랑해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vv. 9031-9037)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게 그것을 알려왔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²⁰²⁾

200) "Ge quit, se ele ne santist / teus angoisses, ja nel deïst: / ne puet parler d'amor noiant / qui ne aime et qui n'en sent;" (vv. 9015-9018)

201) "que puet estre car n'eint celui / qu'ele puet veor chascun jor? / Et ce qu'ele sent por s'amor / me fait antandre qu'est por moi." (vv. 9024-9027)

이러한 문답은 에네아스 역시 사랑에 입문하여 사랑의 가르침을 얻었음을 시사한다. 그는 사랑의 증상, 눈빛, 언어들을 알아본다. 그는 라빈의 사랑에 확신을 얻은 후, 다시 긍정적 사랑으로 돌아온다. “어제 이 사랑을 받았던 탑 아래 머물며 나는 아름다운 나절을 보냈다. 나는 그만큼 더 강해지고 역세졌으니, 사랑을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다.”²⁰³⁾ 이성의 논리, 이성의 의심들을 극복한 그에게 더 이상 장애물은 없다. 그는 마음껏 사랑을 긍정하고 사랑의 힘을 찬양한다.

만약 튀르누스가 그녀를 두고 싸우기를 원해도 나는 그에게 강력히 맞설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에게 강력한 공격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아모르가 나에게 네 개의 손을 주었다. 아모르는 사내를 무척이나 대담하게 만든다. 아모르는 금세 사내를 무척이나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아모르여, 당신은 무척이나 커다란 용맹을 주십니다! 아모르여, 당신은 용기를 키워주십니다! 아모르여, 당신은 무척이나 굳건하고 강력합니다! 아모르여, 당신은 무척이나 커다란 힘입니다!(vv. 9057-9066)

Se Turnus la velt desraissnier / molt le quit forment chalongier, / molt li
cuit randre grant estor; / quatre mains m'a doné Amor. / Amor molt fait
ome hardi, / Amors l'a molt tost anaspri. / Amors, molt dones vasalages!
/ Amors, molt faiz croistre corages! / Amors, molt es roides et forz! /
Amors, molt es de grant efforz!

라빈과 마찬가지로 에네아스는 자아의 분열과 논쟁이라는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서, 보다 지성적인 방식으로 사랑에 접근하고 사랑을 심화한다. 그는 라빈에게 속았을지도 모를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하였으며, 사랑의 가르침을 깨우쳐 이에 반박하였고, 사랑이 가져다줄 효용을 제시하여 사랑의 추구를 정당화하였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긍정적 사랑의 논리였다. 사랑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변증은 그가 광기를 좇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장이 되어 준다.

202) "ne quit noiant, s'el ne m'amast, / que ele ja le me mandast."(vv. 9029-9030)

203) "molt par fis ier bele jornee, / quant m'arestui desoz la tor / o ge recoill
cest amor; / molt an sui plus et fors et fiers, / molt m'en combatrai volantiers
;"(vv. 9048-9052)

하지만 에네아스에게 라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라빈은 긍정적 사랑을 근거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만, 에네아스는 긍정적 사랑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쟁으로 우회한다는 점이다. 위 인용문을 보면 에네아스 자신에게 힘을 주던 아모르의 찬양이(vv. 9057-9060) 남성 일반에게 힘을 주는 아모르의 찬양으로 확장되고, (vv. 9061-9064) 아모르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vv. 9065-9066) 이 찬양의 변주들이 알려주는 것은 결국 에네아스가 찬양하는 아모르의 권능, 아모르의 모습이 전쟁터에서 구현되는 사랑이라는 점이다. 그에게 아모르가 주는 용기는 사랑하는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쟁탈하는 싸움을 이기기 위한 것이고, 아모르가 지닌 강력한 힘은 이성을 마비시키며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투에서 경쟁자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었으니, 나는 먼저 싸움에 몸을 맡길 것이다. 죽어서나 살아서나.”²⁰⁴⁾ 그의 용맹은 사랑의 증거가 되고, 그의 승리는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상대의 사랑을 키우는 사랑의 전쟁,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전달하는 사선의 기술, 내적 논쟁을 통해 논증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의 변증까지, 지금까지 사랑과 통치의 갈등은 통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이어나가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번 에네아스의 독백에서 펼쳐진 변증은 사랑과 전쟁의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인 논리를 제시해주었다. 사랑의 힘을 전사의 힘으로 표출하는 긍정적 사랑은 전쟁의 승리를 도와 통치권 획득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에네아스가 주장한 긍정적 사랑이 사랑을 그 자체로 긍정하여, 사랑이 모험의 목표이자 원동력이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전쟁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러한 방식으로서만 추구될 수 있고, 때문에 라빈은 사랑의 분명한 표현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길은 아직 요원하다.

『에네아스』의 긍정적 사랑이 갖는 또 다른 문제는 일대일 결투나 전쟁의 묘사에서 사랑이 활약하는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설들에서 에네아스의 관심사는 땅과 통치권에 머물러 있고, 그가 튀르누스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부여한 용맹이 아니라 벨칸의 무구 덕분이었으며, 그가 튀르누스를 죽이는 동기는 라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팔라스에 대한 복수였

204) "quant de s'amor me fait lo don, / molt m'en metrai ainz a bandon / ou de la mort ou de la vie ;"(vv. 9053-9055)

다.²⁰⁵⁾ 우리는 그의 사랑이 용맹함으로 표출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고, 작품에서 사랑이 전쟁에 끼친 영향은 여전히 모호한 수수께끼로 남는다. 이 점에서 『에네아스』의 긍정적 사랑은 아직 초기 단계의 기본적인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쟁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하나의 논리로서만 기능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2.3.3. 사랑의 항해

에네아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라빈을 만나러 가기보다 막사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자신의 원칙을 견지한다. “라티누스 왕이 그를 배웅하였다. 헤어질 때 그는 라빈과 결혼할 날짜를 정하였다. 이로써 그는 왕이, 그녀는 왕비가 될 것이었다. 그들이 고민한 결과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8일 후로 결정되었다.”²⁰⁶⁾ 그는 노심초사 그의 승리를 기원하던(vv. 9313-9342) 라빈을 돌아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혼 일자를 정하였고, 8일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이에 대한 라빈의 반응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녀는 원래 자신이 가졌어야 할 지배권을 그가 쥐고 흔들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고,(vv. 9857-9872) 사랑 없는 결혼을 거부하면서 그가 자신을 버리고 땅만 가지려 한다면 다시 전쟁이

205) 위세는 “트로이아를 파괴한 불길에 라빈이 있는 로랑트를 불태우지만, 그것은 이 야기를 출발지점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젊은 여인의 마음에 트로이아 인이 지핀 사랑의 불을 은유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튀르누스가 이를 알아차리고 일대일 결투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이 둘의 일대일 결투가 사랑을 두고 다투는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 134. 이는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로랑트의 불을 사랑의 은유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에네아스와 라빈은 은밀하게 마음을 교환하였기에 튀르누스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화재가 거주민들에게 미친 파괴적인 효과(vv. 9633-9642)는 위세의 주장과 반대로 트로이아의 화재를 연상시킨다. 울프는 말한다. “한 여성으로 인해 도시가 불탔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사실과 조우한다. 소설의 끝에서 이 모든 것이 역할이 교체된 채 재연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로랑트에 불을 지피는 것은 라빈에 대한 권리로 힘을 얻은 에네아스이다. 반면 튀르누스는 도시가 완전히 불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대일 결투를 요청하러 달려간다.” M. Possamaï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 107.

206) “li rois Latins lo convoia. / Au departir lo jor noma / que il espossera Lavine ; / il sera rois et el raïne ; / de ce fu li termes asis / par lor esgarz jus qu’a huit dis”(vv. 9833-9838)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vv. 9892-9907) 그녀는 자신이 땅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고집하며, 에네아스가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여자는 사랑을 할 때 너무 무모한데,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훨씬 잘 숨길 줄 알아. - 맞아, 그 자는 마음을 참으로 잘 숨기지, 왜냐하면 그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 어떤 것이 대단치 않을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을 때, 그는 어떤 신호도 주려 하지 않겠지. - 그는 떠날 때 이곳으로 오려 하지 않았고, 눈길 하나 주려 하지 않았어. [...] 이를 근거로 말하건대, 그가 만약 나를 사랑했다면, 떠날 때 그는 내게 눈을 돌렸을 거야. 하지만 그는 몰려나 떠나기를 원했어.(vv. 9877-9891)

femme est trop hardie d'amer, / molt set mialz hom son cuer celer. / -
Par foi, cist lo ceille tres bien, / car il ne li est de moi rien. / - De
noiant mostreroit sanblant, / quant ne l'an est ne pou ne grant. / - Ne
deigna or pas ça venir / ne sol garder au departir. / [...] / por ce di ge,
se il m'amast / al departir l'oïl me tornast; / mais plus li fu d'aler ariere
;

라빈은 에네아스가 마음을 숨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닌지 의심을 떨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이 그녀를 에네아스에게 종속되게 만들어서,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곳에 사랑을 주었다고 한탄하면서도(v. 9908) 그가 사랑을 보여주지만을 기다린다. “나는 상속권의 상실을 한탄하지 않아. 그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내게 부족하지 않아. 만약 그가 하루빨리 이를 안심시켜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목숨에도 관심을 잃게 될 거야.”²⁰⁷⁾ 이는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에네아스와 라빈의 전형적인 관계 양상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라빈과의 결혼만을 남겨둔 그가 아직도 사랑의 표현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의 반응도 평소와 다르다. 에네아스는 긴 독백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싸움이 끝나자마자 그녀에게 곧장 가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내가 잘못

207) "Pou plain la deseritoison, / rien ne me faut se s'amor non. / S'il ne m'an fait bien tost seüre, / de ma vie n'avrai mes cure."(vv. 9911-9914)

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잘못하였고, 이 점에 대해 용서를 청한다.”²⁰⁸⁾ 에네아스는 마지막 독백을 통해 어떤 회심을 보여주는 것일까?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지금,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그녀는 내게 분노나 화, 노여움을 오랫동안 품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전쟁을 오래 끌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자는 자비를 청해야 한다. 한 사람이 약간의 지배권을 휘두르고,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게 어느 정도 빌도록 하였다면, 그 사람은 상대에게서 자비를 청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를 용서해야만 한다.(vv. 9969-9976)

Ne m'en doit porter maltalant, / corroz ne ire longuement ; / Amors n'a soing de longue guerre, / mais qui mesfet, merci doit querre ; / se l'an li moienne un po dongier, / et l'an s'i lest alques proier, / se li redoit an pardonner, / quant an li ot merci crier.

이어지는 그의 말은 우리의 기대를 쉽게 좌절시킨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대가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이야기한다. 부정대명사 'l'an'이 논지를 일반화하고 'doit', 'redoit'의 동사들이 의무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사과와 용서라는 새로운 사랑의 규칙이 제정된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배권을 어느 정도 행사하며 용서를 빌게끔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용서를 해주어야만 한다. 사랑은 전쟁을 오래 지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싸움이 있었을 때, 화해는 더욱 값지다. 약간의 화는 사랑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 분노는 사랑을 북돋고 자극하는 약이 된다. 연인 중에 한 명이 화가 났을 때, 그 후의 화해는 커다란 가치를 가지니,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화해 후의 입맞춤 한 번이 이전의 입맞춤 아홉 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화와 분노가 없다면, 입맞춤은 그토록 감미롭고 강력한 효과를 갖지 못할 것이다.(vv. 9977-9990)

Molt par est bone l'acordance, / quant il i a eü meslance, / et molt rest grant angenement / d'amor un po de maltalant. / Corroz qui trop ne dure

208) "forment li ai mesfait sanz faille / que sanpres anprés la bataille / aneslopas n'alai a li ; / mesfait l'an ai, pardon l'en pri."(vv. 9965-9968)

mie / est a amor escamonie, / molt l'aguise et anasprist; / quant uns des
 amanz se marrist, / molt valt après l'acordemant: / ce est uns
 renovelement; / mes valt uns sol baisier aproef / que ne feisient devant
 nuef: / se n'estoit l'ire et li corroz, / ne seroit si buen ne si proz.

사과와 용서의 규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이어서 소개된다. 에네아스에 따르면 사과와 용서를 거친 분노는 사랑을 성장시키고, 때문에 과오와 갈등, 싸움이 역설적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의 잘못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였으므로 라빈은 용서를 해야만 하며, 용서만 받는다면 그의 잘못은 사랑에 긍정적인 행위가 된다. 심지어 에네아스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한다. 화와 분노 없이 사랑은 밋밋해지고 별다른 즐거움도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잘못은 사랑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즐거움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행위이다.

다소 뻔뻔해 보일 수 있는 이 자기변호는 라빈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은 잘못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그의 사랑의 기술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는 자신의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빈의 고백에 화답하지 않았을 때에도, 전쟁이 끝나고 라빈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그녀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한다.(vv. 9089-9094, 9959-9964) 마지막 독백은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우리는 앞선 분석에서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그의 기술이 의심과 분노를 통해 사랑을 키운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는 이 기술의 효과를 본인의 입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바다에서 고통을 겪은 자는 어떠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물을 건넌 자보다도
 착했을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 죽음을 두려워한 자만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큰 기쁨을 느낀다.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약간의 분노 뒤에 사랑은 훨씬
 감미롭다.(vv. 9991-9998)

Qui torment a eü an mer, / plus se fait liez a l'ariver / que s'il l'avoit
 seürement / passee sanz altre torment; / quant a eü peor de mort, / se li
 plest molt, quant vient a port; / si fait amor; molt plaist forment /
 anprés un po de maltalant.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기술을 항해에 비유한다. 이 비유는 단지 에네아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르미에는 'roman' 장르에서 사랑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이 드문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²⁰⁹⁾ 작품에서 항해가 에네아스의 모든 노고와 시련을 집약하는 단어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 의미심장한 비유가 된다. 실제로 에네아스는 리비아의 해안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 “고귀한 기사들이여, 여러분이 이 바다에서 공포와 불행, 고통을 느꼈다면들 조금도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이를 떠올릴 때 그것은 여러분을 즐겁게 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 바다에서 겪은 불행을 즐겁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왕국과 땅을 정복하기 위해 타향으로 향하는 이는 행과 불행을 겪지 않고서는 그 거대한 권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전혀 불행을 겪지 않은 이는, 내 생각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운명이 우리를 대하는 대로 노고와 불행과 고통을 견디다보면, 신들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땅으로 약속하였던 곳, 선조들의 땅 롱바르디로. [...]”(vv. 311-341)

[...] “franc chevalier, / ne vos devez mie esmaier / se vos avez eü peor / an ceste mer, mal et dolor; / ça avant vos delicterà, / quant il vos an remembrerà; / buen vos sera a raconter / les maus qu’avez eü an mer. / Huen qui s’esmuert an altre terre / por regne et por païs conquerre, / an grant enor ne puet venir, / s’il bien et mal ne puet sofrir. / Qui toz tens a sa volanté / n’onques n’a mal espermanté, / ce m’est avis, je ne savra / a negun jor que bien sera; / [...] / Sofrant travail et mal et poine, / si com fortune nos demoine, / nos conduiront li dé ou leu / que il nos ont promis an feu, / an Lombardie la Maior; / [...]”

그는 바다에서 겪은 공포와 불행, 고통이 훗날의 즐거움이 될 것이며, 그러한 불행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이처럼 항해의 비유는 에네아스가 자신의 여정을,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를 이루고, 그 고된 여정의 모습에 사랑을 중첩시킨다. 이제 사랑

209) R. J. Cormier, *One Heart One Mind...*, p. 277.

은 폭풍우의 위협으로 가득 찬 또 하나의 항해가 되고, 그의 기술은 폭풍우의 위협을 이겨내는 기술, 그 고난을 훗날의 더 큰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기술이 된다.

에네아스의 여정과 사랑의 유비 관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에네아스가 위의 연설로 기사들을 격려하였던 것은 단순히 항해의 노고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에네아스에게 약속의 땅은 가까워질 듯 끊임없이 멀어지는 곳 이었고, 이탈리아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지난한 전쟁을 견뎌내야 했다. 그는 앞으로도 행과 불행이 반복될 것임을, 왕국을 얻기 위해서 이 행(幸)과 불행의 영원한 수레바퀴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항해가 그의 모든 여정에 대한 제유(提喻)라면, 폭풍우는 그 여정을 지배하는 것, 운명에 대한 은유가 된다.

그리고 작품에 운명을 도입하게 해주는 모티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폭풍우이다. 베르길리우스의 원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연결 관계는 분명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에 대한 기억 속에서 자극을 얻고, 촉발되었을 것이다. 『철학의 위안』에서 폭풍우의 은유는 첫 두 권에서 현저한 빈도수로 반복되는데, 두 권은 정확히 운명의 힘에 놓인 지상의 삶의 부침(浮沈)을 다룬다.²¹⁰⁾

et c'est la tempête qui lui sert de motif introducteur : or cette association qui ne peut guère s'autoriser du modèle virgilien a dû être encouragée, voire suscitée, par le souvenir de la *Consolatio* de Boèce, où la métaphore de la tempête se répète avec une insistance notable dans les deux premiers livres, qui traitent précisément des vicissitudes d'une vie terrestre soumise au pouvoir de Fortune.

모라-르브렁은 『에네아스』에서 운명이 폭풍우 치는 바다로 형상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운명은 유피테르가 운명의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며 계시하였던 것과 같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1권 vv. 227-296) 쉽 없이 굴러가는 행과 불행의 수레바퀴이다. “운명 Fortune은 『아이네이스』보다 로망어 개작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이네이스』에서 운명은 숙명 Fata과 경쟁하여, 그것에 가려졌다.”²¹¹⁾ 『에네아스』의 화자는 동일한 리퀴아 해안에서 운명

210) F. Mora-Lebrun, *L'“Énéide” médiévale...*, pp. 205-206.

의 수레바퀴를 언급한다.

운명이 그에게 호의적이었다. 조금 전에 그를 괴롭혔던 운명이 다시 그를 기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다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해서 너무 즐거워해서도 안 된다. 커다란 불행 때문에 너무 걱정해도 안 되고, 커다란 행운 때문에 너무 즐거워해서도 안 된다. 서로는 서로에 대해 균형을 맞추니, 행운과 불행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운명은 금방 뒤바뀐다. [...] 마치 자신의 바퀴를 굴리듯이.(vv. 674-688)

Molt li estoit propre fortune: / fortune lo ra esbaudi, / qui de devant l'avoit marri. / por ce ne doit hom desperer, / se lui estoet mal andurer, / et se il ra tot son plaisir, / donc ne se doit trop esjoir, / ne por grant mal trop esmaier, / ne por grant bien trop deslier; / et d'un et d'el, de tot mesure; / uns biens, uns mals toz tens ne dure. / Fortune torne en molt po d'ore, / [...] / si com el torne sa roëlle;

화자는 잃어버린 일행을 다시 만나 기뻐하던 에네아스를 보면서 운명의 수레바퀴를 역설하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행과 불행에 너무 즐거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변화에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권고를 남긴다. 하지만 에네아스의 연설은 그가 화자의 권고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네아스는 변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되, 행과 불행 모두에 거리를 두기보다 불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큰 행복의 자양분으로 삼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에네아스와 트로이아 인들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겪은 후에야 물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일행을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 항해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에네아스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행과 불행이 쉽 없이 교차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불행은 더 큰 행복이 되고 불행을 겪지 않은 행복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renouement”(v. 9986)²¹²⁾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211) *Ibid.*, p. 205.

212) 고드프루아는 다음과 같이 말을 옮긴다. “rétablissement dans un état nouveau, renaissance.” F. Godefroy, *Complément du dictionnaire de l'ancienne langue française et de tous ses dialectes du IXe au XVe siècle*, 10 vol., 1895-1902, V. 10, pp. 543-544 (Site internet : <http://www.micmap.org/dicfro>). DMF는 “recommencement”을 기본 뜻으로 삼고, 종교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갖는다고

나의 생각은 당연하다. 그것은 나를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금방, 한 순간에 변해버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 어떤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사이에 금방 변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지연은 금세 반대쪽으로 바꾼다.(vv. 10050-10060)

a buen droit est ce que ge ai / et a noalz me pot torner; / tost ai veü
uns tens müer. / [...] / il nuist sovant a porloignier / chose, quant ele est
aprestee, / car an po d'ore est tost müee. / Ce face l'an que l'an puet
faire: / tost torne un respit a contraire;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라빈의 변심을 의심하는 위의 말은 운명에 대한 서술과 매우 유사하다. 마지막 독백 내내 에네아스는 라빈의 변심을 걱정하였다. 사랑은 쉽게 변한다는 점에서 운명을 닮았고, 변화에 지배당한다는 점에서 그의 여정을 닮았다. 향해의 비유는 사랑의 기술을 운명만큼이나 쉽게 변하는 사랑의 마음에 대처하는 기술로 만든다.²¹³⁾

마지막 독백에서 에네아스는 사과와 용서의 규칙, 역경과 변심의 극복 등 정치적 사명이 아니라 사랑의 내적 논리에 따라 보다 일반화된 정당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비난과 약점을 극복하려 한다.²¹⁴⁾ 하지

설명한다. "rétablissement d'un état exempt de péché, régénération spirituelle". *Dictionnaire du Moyen Français*, version 2015, ATILF - CNRS & Université de Lorraine (Site internet : <http://www.atilf.fr/dmf>). 마츠무라는 간단하게 "revouvellement"으로 번역한다. T. Matsumura, *Dictionnaire du français médiéval*, dir. Michel Zink, Les Belles Lettres, 2015, p. 2909.

213) 이 점은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오비디우스는 1권에서 여성을 사로잡는 법을 가르쳤다면, 2권에서는 그 사랑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날개를 펴리며 쉽게 달아나는 아모르를 붙잡아두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토로한다. 이 어려움은 다이달루스를 붙잡지 못하는 미노스, 비행에 실패하는 이카루스에 빗대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날개도 잡지 못한 미노스와 달리 자신은 날아다니는 신을 붙잡을 것이라 호언한다. Ovide, *l'Art d'aimer*, éd. et trad. H. Bornecque, Les Belles Lettres, 1994, 2권 vv. 11-98.

214) 마지막 독백은 고통과 후회로 점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뉘우침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에네아스는 유예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라빈을 찾아가거나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일까? 14세기 말에 필사된 D 수고는 에네아스가 유예 기간에 라빈에게 용서를 구하는 에피소드를

만 전쟁 연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의 진실 여부는 불분명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로 남는다. 그는 첫 번째 독백에서 자신의 기술이 사랑의 성장이 아니라 지배권 획득을 위한 것임을 밝힌바 있고, 실제로 라빈은 에네아스의 사랑의 행동들을 지배권의 행사로 받아들였다. 또한 통치권 획득을 위한 여정에서는 고난과 역경이 외부적이었던 반면 사랑에서는 스스로 연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둘을 등치하는 항해의 비유가 과연 타당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라빈과의 화해의 장면도 작품에 등장하지 않아 독자는 에네아스의 자기변호가 실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항해의 비유는 긍정적 사랑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서사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기보다 사랑의 이론의 하나로 작품에 삽입되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독백에 주목하는 것은 에네아스의 정당화 시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텍스트에서 암시하는 바가 없어 조심스럽지만, 에네아스가 전쟁 후에도 라빈을 만나러 가지 않은 이유를 짐작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로랑트 전쟁은 사랑의 경쟁 이전에 땅의 경쟁이었고 트로이아 민족의 싸움이었으므로, 승리 후 에네아스가 트로이아 진영으로 돌아간 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행위였다. 결혼에 유예 기간을 둔 것도 전쟁의 피해를 수습하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로랑트에서 그의 사랑의 행동들은 언제나 정치적 대의의 방향과 일치하였고, 그에게 사랑의 기술은 무엇보다 정치적 기술이었다. 항해의 비유는 정치적 이익이 아닌 사랑의 성장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그 정치적 목적에 봉사한다. 그것은 사랑의 전쟁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변증이었고, 이로써 에네아스는 사랑의 기술을 온전히 마무리한다.

추가한다. 에네아스는 모프리아이라는 전령을 불러 완벽하고 항구불변한 사랑의 증표로서 반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하고, 라빈 역시 이에 대한 답례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선물한다.(vv. 10080-10276) 이는 에네아스의 모순적인 행동과 비궁정적인 모습을 완화하기 위한 후대 필경사의 노력으로 추측된다.

결 론

트로이아의 멸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던 『에네아스』의 저자는 로마 건설의 후일담을 덧붙이면서 작품을 마무리한다. 대관식과 결혼식을 마친 에네아스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아 도시 알브를 세웠고, 라티누스가 죽은 후 전 이탈리아를 물려받았다. 아스카니우스와 그의 후손들이 차례차례 땅을 계승하였고, 그 끝에서 로뮬루스가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며 로마를 건설하였다.

에네아스는 이탈리아의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 훌륭한 성벽과 강력한 주탑을 지었다. 도시에는 알브라는 이름을 붙였다. 도시는 무척이나 부유했고 무척이나 거대하였으며, 그 힘이 오래 지속될 것이었다. 에네아스는 도시를 오래 다스렸고, 라티누스 왕의 전 영토를 자신의 손 안에 두었다. 에네아스가 죽었을 때에는 아스카니우스가 이어서 통치하였고, 그 다음에는 안퀴세스가 저승에서 에네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제대로 가리켜보였던 것처럼, 그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왕들이 그의 뒤를 이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차례차례 태어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왕권의 소유자였고, 상속자에서 상속자로 내려가 레뮬스와 로뮬루스가 그 가계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형제였고 매우 강력했다. 그들이 도시 로마를 건설하였고 로뮬루스가 그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였다. 그는 도시에 첫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주었다.(vv. 10131-10156)

Eneas ot le mialz d'Itaire, / une cité comence a faire,/bons murs i fist et fort donjon. / Albe mist a sa cité non ; / molt par fu riche, molt fu granz, / ses anpires dura molt anz. / Longues l'a Eneas tenue, / puis est an sa main revertue / tote la terre al roi Latin, / et quant il rala à sa fin, / Ascanius regna après, / et puis fu si com Anchisés / a Eneas ot aconté / an enfer, et bien demostré / les rois qui après lui vendroient, / si com il dist que il nestroient : / l'un avant l'altre ansi sont né, / com a son fil l'ot aconté. / Molt furent tuit de grant pooir / et descendirent d'oir an oir,

/ desi que nez an fu Remus, / de cel linage, et Romulus ; / frere furent et
molt fort home. / Cil firent la cité de Rome, / que Romulus li anposa /
son nom, que primes li dona.

이 후일담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에네아스의 이야기를 더 큰 흐름 속에 위치시킨다. 에네아스가 건국 영웅이라고 했을 때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에네아스는 트로이아를 이탈리아로 옮겼고, 이를 되살려 후손들에게 전달하였다. 로마는 그 결과물이다. 투르누스의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끝난 원작과 달리 작품의 마지막은 연속성을 강조하고, 에네아스의 건설이 ‘이전 translatio’와 ‘거듭남 renouement’을 통해 두 도시를 매개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원작보다 한참 후에 작성된 『에네아스』의 특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의 전성기에 완성된 『아이네이스』와 달리 (서)로마가 멸망하고 한참 후에 쓰여진 『에네아스』는 로마 이후의 역사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트로이아를 자신의 선조로 지목하며 트로이아와의 연결성을 주장한 이상,²¹⁵⁾ 로마는 종착점이라기보다 일종의 가교로서 그 이전과 이후를 매개하는 도시가 되어야 했다.

『에네아스』 직전에 같은 궁정에서 작성된 『브뤼트』는 로마 이후를 소개하는 작품이었다. 에네아스의 증손자로 설정된 브뤼트는 에네아스와 비슷한 여정을 거친다. 그는 의도치 않은 죄를 저질러 이탈리아에서 추방되었고, 험난한 항해의 여정을 이겨내고 브리튼에 도착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트로이아를 다시 시작할 것 Troie renovelereit”을 선언한다.²¹⁶⁾ 즉, 에네아스의 계보는 로뮈루스

215) “트로이로부터의 이동에서 민족의 기원을 찾는 이러한 방식은 6세기의 투르의 그레고리우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12세기에 대부분의 서쪽 국가들이 (관심사가 달랐던 에스파냐를 제외하고) 이러한 발견을 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트로이 기원에 대한 프랑스 신화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이 시기에 강세를 얻었다.” 로버트 스완슨, 『12세기 르네상스』, 최종원 역, 이석우 감수, 심산, 2009, pp. 107-108. 본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다. 프랑크 족은 7-8세기에 이미 상당히 잘 짜인 트로이아 선조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고, 트로이아는 여러 민족들이 가장 빈번하게 자신의 선조로 지목한 민족이었다. C. Beaune, “L’utilisation politique du mythe des origines troyennes en France à la fin du moyen âge”, *Lectures médiévales de Virgile*. Actes du colloque de Rome (25-28 octobre 1982), École Française de Rome, 1985, p. 331.

216) L. Mathey-Maille, “Mythe troyen et histoire romaine : de Geoffroy de Monmouth au Brut de Wace”, *Entre fiction et histoire : Troie et Rome au*

의 로마와 동등하게 브뤼트의 브리튼으로 뻗어나가고, 브리튼은 트로이아의 힘과 문명을 이어받은 또 하나의 로마가 된다. 마테-마이유가 지적하듯이 『브뤼트』에서 브뤼트와 그의 후손들이 로마에 양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로마를 인정하되 또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²¹⁷⁾

프랑크 족이 프랑시옹 Francion처럼 트로이아에서 직접 도망친 인물을 선조로 내세운 데 반해, 몬무스의 『브리튼 왕실사』, 바스의 『브뤼트』는 에네아스를 거쳐 브뤼트로 이어지는 앙글로-노르망 족의 계보를 완성한다. 따라서 『에네아스』가 프랑스가 아닌 앙글로-노르망 궁정에서 작성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에네아스는 트로이아와 로마만큼이나 트로이아와 브리튼을 잇는 인물이고, 프랑크 족의 트로이아 계보에는 포함되지 않아 앙글로-노르망의 계보에 차별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디튀스와 다레스로 이어지는 전통에서 에네아스가 문제적 인물이 되었음에도, 그를 다시 취하고 복권 과정을 추진했던 것은 이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증명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는 현명함을 통해 전쟁과 사랑을 지배하는 탁월한 군주의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하지만 에네아스를 왜 하필 그러한 유형의 군주로 복권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서론에서 에네아스가 플랜테저넷 왕조의 창건자 헨리 2세와 동일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위세와 포사마이는 헨리 2세가 이방의 땅에서 바다를 건너 잉글랜드 왕위에 오른다는 점, 거대한 상속영지를 지닌 여성 알리에노르와 결혼한다는 점에서 둘의 공통점을 찾았다.²¹⁸⁾ 본 논문의 분석은 이 해석을 보다 정치(精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앙주와 노르망디에서 성장한 헨리 2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계를 따라 외할아버지 헨리 1세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틸다를 제치고 왕위에 올랐던 블루아의 스티븐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불완전한 상속권과 이를 보충하는 지난한 전쟁은 에네아스의 로랑트 전쟁을 연상하게 한다. 에네아스는 사실상 전쟁으로 영토를 얻어내지만, 그 권리를 연설로 정당화하고, 전투와 휴전을 반복하면

Moyen Âge, dir. E. Baumgärtner et L. Harf-Lancner, 1997, pp. 116-117에서 재인용.

217) *Ibid.*, pp. 117-118.

218) J.-Ch. Huchet, *Le Roman médiéval*, p. 12., M. Possamai et R. Wolf, *Le Roman d'Énéas*, pp. 18-19, 23-24 참조.

서 여론과 명분을 확보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헨리 2세가 일으킨 수차례의 전쟁들은 로랑트 전쟁과 동일시되며 이상화되고, 헨리 2세는 만인의 인정을 받으며 왕이 된 에네아스의 이미지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152년에 헨리 2세는 아키텐 공작령과 푸아티에 백작령 등 당시 프랑스 왕보다 더 넓은 상속영지를 가지고 있었던 알리에노르와 결혼하여 광대한 영토의 권리를 얻는다. 이 결혼은 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고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의 하나가 되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에네아스』는 헨리 2세의 결혼을 연상시키는 라빈과의 결혼이 아니라 둘의 사랑이야기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그 이야기를 에네아스가 라빈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꾸민다. 이는 기존 문학 작품에서 사랑의 문법을 형성하였던 핀 아모르를 전면에서 부인하는 이야기였다. 이때 알리에노르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트루바두르, 기욤 9세의 손녀로서 핀 아모르를 북프랑스와 잉글랜드에 전파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에네아스』는 핀 아모르를 전복하면서 알리에노르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사랑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전략적으로 왕권을 획득하는 에네아스, 나아가 헨리 2세의 모습을 부각한다. 이는 왕권 획득과 통치에 있어 아내의 그림자를 제거하고 헨리 2세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군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세우려는 정치적 작업, 헨리 2세의 다시쓰기 작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가설적 입장은 추가적인 분석과 근거들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군주론의 관점에서 에네아스의 전쟁과 사랑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에네아스가 트로이아 재건에 성공하는 과정을, 『에네아스』가 『아이네이스』와 차별화되는 지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고대와 중세, 서사시와 소설, 역사와 허구 등 『에네아스』가 위치한 다양한 교차로를 탐색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배경의 변화 역시 이러한 교차로의 한 층위에 해당한다. 『에네아스』는 분명 과도기적인 작품이지만, 그만큼 어느 쪽으로도 설명되고 어느 쪽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풍요로운 매력을 품고 있다. 본 논문은 전쟁의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주제의 발아에서, 에네아스라는 독특한 영웅의 모습에서, 그 다층적인 경계가 자아내는 의미와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밝혀보고자 하였다.

부 록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에네아스』와 『아이네이스』의 에피소드를 비교한다. 두 작품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에피소드들은 제외한다.²¹⁹⁾ 표에 기재된 에피소드의 순서는 『에네아스』를 따르며, 비교란에는 원작의 에피소드가 『에네아스』에서 어떻게 각색되었는지를 표시한다.

『에네아스』	『아이네이스』	비고
-	서문 (1권 vv. 1-11)	삭제
트로이아 멸망 (vv. 1-24)	(2권 vv. 250-558)	1. 아이네아스가 디도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화자의 직접 서술로 변경 2. 전반적인 내용 축소
에네아스의 도주 (vv. 25-92)	(2권 vv. 559-804)	1. 아이네아스가 디도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화자의 직접 서술로 변경 2. 전반적인 내용 축소 3. 에네아스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 재물을 챙기는 모습 추가
파리스의 심판 (vv. 93-182)	-	추가
리퀴아 해안 연설 (vv. 311-356)	(1권 vv. 198-207)	식량에 관한 내용 추가
디도 소개 (vv. 375-406)	(1권 vv. 335-368)	1. 베누스와 아이네아스의 대화 내용이 화자의 직접 서술로 변경 2. 퀴그말리온과 디도의 이야기 축소 3. 카르타고의 땅을 얻기 위

219) 『에네아스』와 『아이네이스』의 모든 에피소드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는 Ph. Logié, *L'Énéas, une traduction...*, pp. 329-468 참조.

		한 디도의 책략 내용이 확장
카르타고 묘사 (vv. 407-548)	(1권 vv. 418-449)	카르타고의 무력, 요새, 성벽의 경이, 시장과 문물, 풍요로움 등 전반적으로 내용 확장
운명의 수레바퀴 (vv. 677-692)	-	추가
에네아스의 카르타고 입성과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vv. 700-719)	-	추가
에네아스의 선물 (vv. 729-763)	(1권 vv. 643-656)	전반적인 내용 확장
베누스의 계략 (vv. 764-822)	(1권 vv. 657-722)	1. 쿠피도가 아스카니우스로 변신하는 내용이 삭제되어 베누스가 아스카니우스에게 직접 권능 부여 2. 디도만 사랑에 빠졌던 원작과 달리 에네아스도 사랑에 빠짐
디도의 요청과 에네아스의 트로이아 이야기 (vv. 839-1192)	(1권 vv. 748-3권 vv. 718)	1. 디도의 요청이 그 배신에 대한 이야기로 집약 2. 신들의 개입과 계시, 아이네아스의 야간 전투, 꿈에 나타난 헥토르, 헬레네와 프리아무스 일가, 크레우사 이야기가 삭제, 전반적으로 내용 축소 3. 항해 중 겪은 모험 이야기 삭제
디도가 겪은 사랑의 열병 (vv. 1197-1444)	(4권 vv. 1-128)	1. 사랑의 열병에 대한 묘사, 디도와 안나의 대화 등 전반적인 내용 확장 2. 베누스와 유노의 대화 삭제 3. 사랑의 열병이 카르타고에 일으킨 부정적인 효과 강화
디도와 에네아스의 사랑	(4권 vv. 160-197)	소문의 여신이 퍼뜨린 이야

(vv. 1515-1581)		기를 화자가 확증하는 내용 추가
에네아스의 출항 (vv. 1615-1902)	(4권 vv. 219-449)	1. 신의 개입 축소 2. 디도를 대신하여 카르타 고를 건설하는 아이네아스 의 모습 삭제 3. 에네아스가 디도의 죽음 을 우려하는 모습 추가
디도의 죽음 (vv. 1903-2144)	(4권 vv. 450-705)	1. 디도가 아이네아스와 트 로이아 인에게 한 저주가 삭제되고 비난의 어조가 탄 식의 어조로 변경, 에네아스 를 용서 2. 디도의 죽음 묘사 확장 3. 신의 개입 삭제 4. 묘비명 추가
저승 방문 (vv. 2348-3020)	(6권 vv. 236-898)	1. 저승 초입인 스틱스 강가 에 레테 강과 망각의 주제 추가 2. 디도와의 대화 내용, 디 도와 아이네아스의 행동 변 경 3. 트로이아 영웅들과의 만 남이 삭제되고 에네아스가 몸을 숨기는 것으로 변경 4. 안퀴세스의 계시에서 로 마의 역사와 찬양 내용 축 소 5. 안퀴세스의 계시를 들은 에네아스의 각성 추가
-	라비니아를 이방인과 결혼 시키라는 전조와 신탁 (7권 vv. 37-106)	삭제
몽토방 축조 (vv. 3143-3168)	(7권 vv. 157-159)	1. 전반적인 내용 확장 2. 몽토방 이름 추가
에네아스의 명을 받은 일 리오네스의 연설 (vv. 3175-3223)	(7권 vv. 212-248)	1. 연설의 어조 변경 2. 트로이아 전쟁과 도주에 대한 변론 추가 3. 귀환의 테마 도입

왕비와 튀르누스의 반대 (vv. 3277-3524)	(7권 vv. 286-474)	1. 유노와 알렉토의 개입이 삭제되고 왕비가 직접 튀르누스에게 전쟁을 부추김 2. 아마타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음 3. 에네아스와 트로이아인에 대한 비방 추가 4. 아마타가 에네아스와 파리스를 동일시하는 관점 변경 5. 튀르누스가 약혼과 영토의 계승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변경
아스카니우스의 사슴 사냥 (vv. 3525-3782)	(7권 vv. 475-571)	1. 유노와 알렉토의 개입 삭제 2. 아스카니우스가 티튀스의 숲에 들어가 사냥하는 내용 추가 3. 전투 장면 추가 4. 아스카니우스의 연설 추가 5. 에네아스의 원군 추가 6. 추격전과 공성전 및 약탈 장면 추가
1차 로랑트 가신 회의 (vv. 3783-3896)	(7권 vv. 572-640)	라티누스가 끝까지 전쟁에 반대하여 유노가 전쟁의 문을 열었던 원작과 달리, 라티누스는 싸워 이긴 자가 라빈과 영토를 얻게 될 것이라 선언
튀르누스의 가신과 동맹 회의 (vv. 4107-4243)	-	1. 내용 추가 2. 튀르누스가 에네아스와 파리스를 동일시하는 입장 추가
몽토방 방비 (vv. 4244-4296)	-	추가
베누스의 거래와 벌칸의 무구 (vv. 4297-4561)	(8권 vv. 370-453, 608-731)	1. 베누스와 마르스의 간통 이야기 추가 2. 볼카누스의 무구 제작 장

		<p>면 축소</p> <p>3. 무구에 대한 설명들 변경</p> <p>4. 방패에 새겨진 로마의 역사 삭제</p> <p>5. 베누스가 에네아스의 창에 팔라스와 마르스의 깃발을 매어주는 장면 추가</p> <p>6. 팔라스와 아란느의 경연 이야기 추가</p>
<p>외양데르 왕에게 원군 요청 (vv. 4609-4824)</p>	<p>(8권 vv. 18-369, 454-607)</p>	<p>1. 원군 요청을 권하는 신이 하신 티베리누스에서 베누스 여신으로 변경</p> <p>2. 가신 회의 추가</p> <p>2. 원군을 요청하는 아이네아스의 연설 내용 변경</p> <p>3. 복수와 귀환의 테마 추가</p> <p>4. 에트루리아의 원군 삭제</p>
<p>몽토방 수성전 (vv. 4825-5601)</p>	<p>(9권 vv. 1-10권 vv. 145)</p>	<p>1. 신의 개입 삭제</p> <p>2. 수성전을 펼치는 트로이아인들의 치욕과 분노가 두려움으로 변경</p> <p>3. 지도자로서의 에네아스의 중요성 부각</p> <p>4. 튀르누스의 공성 실패 부각</p> <p>5. 아스카니우스의 연설 추가</p> <p>6. 르네스테우스의 연설이 일리오네스의 연설로 변경</p>
<p>1차 휴전 (vv. 5999-6102)</p>	<p>(11권 vv. 100-138)</p>	<p>1. 아이네아스가 라티누스 왕을 비난하는 내용 삭제</p> <p>2. 장례를 치를 여유만을 부탁하였던 라우렌툼의 사신들이 튀르누스가 아니라면 에네아스와 싸울 이유가 없음을 주장</p> <p>3. 휴전에 분개하는 튀르누스의 모습 추가</p>
<p>2차 로랑트 가신 회의</p>	<p>(11권 vv. 225-445)</p>	<p>1. 디오메데스의 원군 거부</p>

(vv. 6537-6828)		삭제 2. 가신들이 라티누스 왕의 화평책에 동조하는 내용 추가
2차 휴전과 트로이아 막사 (vv. 7257-7364, 8025-8067)	-	1. 에네아스의 도시 점령 선언 추가 2. 도시 유력자들의 동맹 요청과 2차 휴전 추가 3. 트로이아 막사 추가 4. 에네아스와 트로이아인들의 행렬 및 아름다움 과시, 도시민들의 찬탄과 라빈의 사랑 추가
에네아스와 라빈의 사랑 (vv. 7857-9274)	-	1. 왕비와 라빈의 대화 추가 2. 라빈의 사랑의 열병 추가 3. 라빈의 내적 독백 추가 4. 라빈의 고백 추가 5. 에네아스의 사랑의 열병과 내적 독백 추가 6. 라빈과 에네아스의 시선, 사랑의 신호들 추가
일대일 결투 (vv. 9275-9402, 9575-9814)	(12권 vv. 81-952)	1. 신들의 개입 삭제 2. 라빈의 걱정과 다짐 추가 3. 아이네아스의 연설에서 귀환의 테마와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 추가 4. 아이네아스의 라티누스 비난 삭제 5. 아마타의 죽음 삭제 6. 뵐칸의 무구 강조
대관식과 결혼식, 후일담 (vv. 9815-10156)	-	1. 라빈의 탄식과 에네아스의 독백 추가 2. 대관식과 결혼식 추가 3. 에네아스가 파리스를 극복하였다는 내용 추가 4. 에네아스의 왕권 획득과 통치, 후손들의 계승, 로마의 건설을 소개하는 후문 추가

참고문헌

1. 『에네아스 이야기』 작품 및 번역본

Eneas, roman du XIIe siècle, éd. J.-J. Salverda de Grave, 2 t., Champion, coll. "Les Classiques français du Moyen Âge", 44 et 62, 1985 et 1968.

Le Roman d'Énéas, éd. et trad. A. Petit, LGF, Le Livre de Poche, coll. "Lettres gothiques", 1997.

Le roman d'Énéas, trad. M. Thiry-Stassin, Champion, coll. "Les Classiques français du Moyen Âge", 33, 1997.

2. 『아이네이스』 작품 및 번역본

Virgile, *Énéide*, éd. et trad. J. Perret, 3 vol., Les Belles Lettres, 1981.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1』, 김남우 역, 열린책들, 2013.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천병희 역, 숲, 2012.

3. 연구서 및 논문

BEAUNE, Colette, "L'utilisation politique du mythe des origines troyennes en France à la fin du moyen âge", *Lectures médiévales de Virgile*, Actes du colloque de Rome (25-28 octobre 1982), École Française de Rome, 1985, pp. 331-355.

CHÊNERIE, Marie-Luce, "Le motif des présents dans le *roman d'Enéas*", *Relire le "Roman d'Enéas"*, dir. J. Dufournet, Champion, coll. "Unichamp", 1985, pp. 43-62.

- CORMIER, Raymond Jean, *One Heart One Mind : The Rebirth of Virgil's Hero in Medieval French Romance*, Mississippi University, Romance monographs, 1973.
- CROIZY-NAQUET, Catherine, "La forteresse de tentes troyennes dans *Le Roman d'Énéas* (vv. 7281-7352)", *Bien dire et bien apprendre*, 9, 1991, pp. 73-89.
- DUMÉZIL, Georges, *Mythes et dieux des Indo-Européens*, éd. H. Coutau-Bégarie, Flammarion, 1992.
- HANNING, Robert, "Engin in Twelfth-Century Romance : an examination of the *Roman d'Énéas* and Hue de Roteland's *Ipomedon*", in *Yale French Studies*, n. 51, 1974, pp. 82-101.
- HOEPFFNER, Ernst, "L'Énéas et Wace", *Archivum Romanicum*, vol. 15, 1931, pp. 248-269.
- HOSLER, John D, *John of Salisbury. Military Authority of the Twelfth-Century Renaissance*, Brill, 2013.
- HUCHET, Jean-Charles, *Le Roman médiéval*, PUF, 1984.
- LOGIÉ, Philippe, *L'Énéas, une traduction au risque de l'invention*, Champion, 1999.
- MARCHELLO-NIZIA, Christiane, "De l'Énéide à l'Eneas, les attributs du fondateur", *Lectures médiévales de Virgile*, Actes du colloque de Rome (25-28 octobre 1982), École Française de Rome, 1985, pp. 251-266.
- MATHEY-MAILLE, Laurence, "Mythe troyen et histoire romaine : de Geoffroy de Monmouth au *Brut* de Wace", *Entre fiction et histoire : Troie et Rome au Moyen Âge*, dir. E. Baumgartner et L. Harf-Lancner, 1997, pp. 113-126.
- MORA-LEBRUN, Francine, "Source de l'Énéas : la tradition exégétique et le modèle épique latin", *Relire le "Roman d'Énéas"*, dir. J. Dufournet, Champion, coll. "Unichamp", 1985, pp. 83-104.
- MORA-LEBRUN, Francine, *L'"Énéide" médiévale et la naissance du roman*, PUF, 1994^a.
- MORA-LEBRUN, Francine, "L'ombre mythique de Diane dans le *Roman d'Énéas*", *Bien dire et bien apprendre, Fées, dieux et déesses au Moyen Âge*, 12, 1994^b, pp. 169-189.

- PETIT, Aimé, *Naissances du roman : Les Techniques littéraires dans les romans antiques du XIIIe siècle*, 2 vol, Champion, 1985.
- PETIT, Aimé, "Le thème de l'amour dans le *Roman d'Énéas*", *Énée et Didon : Naissance, fonctionnement et survie d'un couple mythique*, CNRS, 1990, pp. 55-66.
- POIRION, Daniel, "De l'*Enéide* à l'*Enéas* - mythologie et moralisation", *Cahiers de civilisation médiévale*, XIX, 3, 1976, pp. 213-229.
- POSSAMAÏ, Marylène et WOLF, Romaine, *Le Roman d'Énéas*, Atlande, coll. "Clefs concours-Lettres médiévales", 2015.
- ROUSSE, Michel, "Le Pouvoir, la prouesse et l'amour dans l'*Enéas*", *Relire le "Roman d'Énéas"*, dir. J. Dufournet, Champion, coll. "Unichamp", 1985, pp. 149-168.
- ZINK, Michel, "Un Nouvel art d'aimer", dans *L'Art d'aimer au Moyen Âge*, Philippe Lebaud, 1997, pp. 9-70.
- 로버트 스완슨, 『12세기 르네상스』, 최종원 역, 이석우 감수, 심산, 2009.
- 이태수, 「『아이네이스』 6권에 나타난 로마인의 가치관 - 아이네아스의 변신과 pietas」, 『서양고전학연구』, 7, 1993, pp. 203-231.
- 조르주 뒤비, 『중세의 결혼』, 최애리 역, 새물결, 1999.

4. 기타

- Dictionnaire du Moyen Français*, version 2015, ATILF - CNRS & Université de Lorraine (Site internet : <http://www.atilf.fr/dmf>).
- GODEFROY, Frédéric, *Dictionnaire de l'ancienne langue française et de tous ses dialectes du IXe au XVe siècle*, 10 vol., F. Vieweg / Émile Bouillon, 1881-1902 (Site internet : <http://www.micmap.org/dicfro>).
- MATSUMURA, Takeshi, *Dictionnaire du français médiéval*, dir. Michel Zink, Les Belles Lettres, 2015.

Résumé

Discours du prince dans le *Roman d'Énéas*

- Une étude sur les thèmes de la guerre et de l'amour

OH Soohwan

Départ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e *Roman d'Énéas* prétend être une traduction de l'*Énéide* de Virgile. Cependant le texte est plus proche d'une recreation qu'une traduction proprement dite. Il reflète l'écart entre la Rome antique et la cour anglo-normande du XII^e siècle où s'est effectuée cette mise en roman. Notre étude du *Roman d'Énéas* consiste à mettre en évidence cet écart et à l'interpréter en fonction de la situation politique de l'époque.

Notre attention va tout particulièrement à une nouvelle représentation du protagoniste. Énéas y est présenté comme un prince et sur ce point, le texte médiéval ne s'écarte guère du texte latin. Membre de la famille royale de Troie et chef des réfugiés troyens, il réussit à reconstruire la cité et devient le fondateur de Rome. Or, ce qui différencie Énéas médiéval d'Énée antique sont les traits comme la tactique et l'habileté tant militaires que verbales. C'est grâce à ces qualités que le héros médiéval parvient à accomplir sa mission. À la différence de l'épopée latine, ni la force guerrière, ni la piété envers son père, les dieux, ou encore son destin ne sont mis en avant ici. Ces qualités d'Énéas que nous qualifierons désormais comme art se déploient notamment dans les domaines de la guerre et de l'amour.

La première partie de notre étude analyse la guerre de Troie et celle de Laurente pour en dégager l'art de la guerre d'Énéas. Si l'épopée latine met

en scène Énée qui, face au spectacle effrayant de la Troie assaillie, n'hésite pas à s'engager dans la bataille, le héros médiéval est présenté tout autrement. Énéas observe à distance la situation, évacue ses guerriers et se sauve en emmenant ses trésors. Ces comportements plutôt atypiques pour un prince semble refléter une conception de guerre propre à Énéas qui accorde plus d'importance à la stratégie qu'à la force. Cette image de l'homme-stratège se confirme au moment où il raconte la chute de Troie à Dido. C'est son usage du mot 'trahison', mot par lequel il désigne la cause de la destruction de Troie qui attire notre attention. Il laisse entendre par ce terme la tromperie de Ménélas et d'Ulysse, c'est-à-dire le cheval de Troie et non pas l'adultère de Pâris. S'en dégageant sa façon d'interpréter la guerre de Troie et ce qu'il valorise comme vertu du chef. Dans son habile remaniement de l'histoire, il parvient à minimiser sa fuite en insistant sur la volonté divine et à faire valoir d'autres vertus. Ces vertus comme le jugement rapide et exact, la prévoyance matérielle et la parole adroite se déploient plus systématiquement dans la guerre de Laurente. L'épisode du château de Montauban, celui des tentes troyennes et les trois longs discours sont des passages très révélateurs en ce sens.

Arrivé à Laurente, le héros médiéval en examine la topographie, dresse le plan et construit avec soin un château fort qui sera nommé Montauban. Notons que dans l'*Énéide*, ce dernier n'était constitué que de simples sillons, palissades et talus. En plus, Énéas prend soin de surveiller les mouvements de son ennemi, de faire des réserves de vivres et de fortifier le château comme il faut ; il maintient la position de défense lors de la bataille pour surmonter l'infériorité numérique des siens. Il faut noter que ce type de récit de guerre, complètement vidé de scènes de bataille, est très rare tant dans le modèle antique que dans d'autres oeuvres médiévales. Ce nouveau type du récit de guerre pourrait être une façon de mettre en relief la nouveauté du personnage d'Énéas qui préfère l'art ou l'intelligence à la force.

Les tentes somptueuses qu'il fait construire pendant la trêve devant la ville de Laurente est un autre exemple de cet art de la guerre d'Énéas.

Elles manquent de structure de défense, mais n'en donnent pas moins l'impression d'une forteresse bien équipée aux yeux des citoyens de Laurente. Ceux-ci, croyant que cette énorme construction a été achevée en un seul jour, en sont émerveillés et critiquent le roi Latinus de ne pas avoir fait la paix avec les Troyens. Le cortège de guerriers troyens, parés du mieux possible, afin d'exhiber leur splendeur devant les Laurentiens leur fait le même effet. C'est une manière de montrer qu'au héros rusé, une trêve, des tentes inoffensives et un cortège paisible servent d'armes efficaces.

Énéas ne néglige pas non plus de justifier ses actes, car, en déclenchant la guerre, Turnus l'identifie à Pâris qui s'était emparé de la femme d'autrui. Énéas réplique à cette attaque par un argument du retour à la terre des ancêtres. À travers ses trois discours, il construit en trois étapes la légitimité de sa présence à Laurente : d'abord par la volonté des dieux, ensuite par la légitime succession de propriété des ancêtres, enfin par le consentement du souverain actuel, Latinus. Ainsi le chef troyen réussit à s'imposer comme un roi légitime pour les barons et les puissants de Laurente, avant d'hériter du trône et d'instaurer une union parfaite entre les deux cités.

Si la première partie explique la manière dont Énéas obtient son droit à la terre grâce à une victoire politico-militaire, la seconde cherche à montrer sa manière d'harmoniser la souveraineté et l'amour. La plupart des critiques considèrent que son amour pour Dido n'est qu'une luxure condamnable, tandis que la princesse de Laurente bénéficie d'un amour véritable dont l'oeuvre fait l'éloge. Pourtant, du point de vue politique qui nous intéresse, les deux amours se distinguent plutôt selon qu'ils sont compatibles avec la mission du héros. Dido, elle, qui a longtemps peiné pour construire Carthage, conquis des pays voisins et bien gouverné son peuple, finit par abandonner sa cité après avoir connu Énéas. Il en est de même pour ce dernier qui faillit oublier son devoir à cause de sa passion pour Dido. Ce n'est qu'après l'avertissement des dieux et la révélation de son père aux Enfers qu'il s'en détourne et se met de nouveau à la quête

de la souveraineté de la terre promise.

En revanche, dans l'épisode de Lavine, Énéas tente de concilier sa mission avec son amour. Ce défi de concilier les deux revêt trois différentes formes : guerre, dialectique et navigation. D'abord, il mène une guerre d'amour où il s'agit de protéger son cœur et de ravir celui d'une autre. Il cache son sentiment, ne l'exprime que parcimonieusement afin de mieux attiser l'amour de l'autre, jusqu'au moment où cette dernière lui est totalement soumise. Cette guerre d'amour transgresse le code de la *fin'amor*, le protocole de la relation amoureuse prédominant dans la littérature de l'époque. Si la *fin'amor* ordonne à l'homme de vénérer la dame, d'être à son service, le *Roman d'Énéas* inverse ce rapport. C'est Énéas qui occupe la position supérieure, Lavine étant contrainte de demander sa grâce.

Évidemment, tout cela ne se passe pas sans difficultés. Le monologue d'Énéas montre sa conscience partagée entre raison et amour. À la fin, c'est la voix de l'amour qui l'emporte. Il n'empêche que sa poursuite de l'amour reste un processus intellectuel, car c'est selon sa logique que la voix de l'amour soumet la raison. Lorsque la raison lui conseille de se concentrer sur le combat à mener contre Turnus, Énéas répond que l'amour lui donnera la vaillance qui sera nécessaire au combat. Toujours est-il que, même s'il est ainsi affermi dans sa poursuite de l'amour, Énéas choisit la guerre pour obtenir le mariage avec Lavine, plutôt que de se contenter de la passion en soi et de daigner s'adresser directement à son amie.

Il va de soi que Lavine considère une telle attitude de la part d'Énéas comme une indifférence, un exercice démesuré de la domination à son égard. Là-dessus, Énéas se justifie dans son dernier monologue, en disant que ses comportements peuvent être profitables à leur relation, car l'amour devient plus doux et plus consistant après un désaccord et une colère. Cette physiologie de l'amour est symbolisée par l'image de la navigation en pleine tempête. C'est moyennant cette métaphore qu'Énéas fait de ses comportements une pratique de l'art d'aimer, art de saisir un cœur aussi versatile que la roue de Fortune. Il s'agit d'une ultime dialectique qui

confirme le triomphe du guerrier d'amour.

L'image de prince construite autour d'Énéas peut être interprétée en rapport avec le contexte politique de la cour de Henri II, l'homme qui a dû aussi traverser la mer et passer par des guerres pour enfin monter au trône qui lui était destiné par la lignée maternelle. Le parallélisme entre Énéas et Henri II se poursuit en matière d'amour, mais d'une manière plus compliquée. Si l'amour romanesque entre Énéas et Lavine représente en quelque sorte la *fin'amor* inversée, cela peut constituer une tentative biaisée de réduire l'influence d'Aliénor d'Aquitaine, à la fois épouse de Henri II à qui ce dernier doit une part considérable de son royaume et initiatrice de *fin'amor* en Angleterre.

Tout compte fait, le *Roman d'Énéas* peut être lu comme une oeuvre politique qui redessine l'image de Henri II en soulignant ses compétences dans tous les domaines qui touchent à son pouvoir princier.

Mots-clés : discours du prince, art de la guerre, art d'aimer, politique, réécriture

Numéro d'étudiant : 2013-22763